

YTN 뉴스 프로그램 공정성 평가 연구

2025. 1.

한국미디어경영학회

YTN 뉴스 프로그램 공정성 평가 연구

목 차

요약문	1
I. 연구배경	13
II. 방송뉴스 공정성 평가와 보도전문채널의 공정성 평가	15
1. 방송 공정성 개념 연구	15
2. 공정성에 대한 영국, 미국의 차이	18
3. 공정성의 평가	20
1) 내용분석을 통한 공정성 평가	20
2)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1
3)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2
4) 시청자가 평가하는 공정성	23
4.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공정성 평가	25
III.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28
1. 분석대상 및 분석기간	28
2. 자료의 수집	29
3. 분석 유목의 설정	30
1) 일상적 보도행태 분석을 위한 유목	30
(1) 뉴스 제시방식	30
(2) 뉴스 아이템 유형	30
(3) 뉴스 아이템 성격	31
(4) 뉴스 아이템 편향성	32
(5) 뉴스 내용의 구성방식	33

(6) 기자 리포트에서의 취재원 제시 형태	34
(7) 뉴스 내용의 초점	36
(8) 뉴스 내용의 편향성	36
2)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37
(1) 출연자 수	37
(2) 외부 출연자 유형	37
(3) 외부인 초청 대담 아이템 수	38
(4) 대담 아이템 유형 분류	38
(5) 대담 아이템의 성격	38
(6) 대담 아이템 선정의 편향성	39
3)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보도에 대한 분석	39
(1) 22대 총선 관련 아이템 여부	39
(2) 22대 총선 관련 아이템 유형	39
(3) 시간적 배분의 편향성	40
(4) 뉴스 내용의 편향성	40
4. 코더 교육 및 코더 간 신뢰도(inter-coder reliability)	41
5. 분석대상	42
1) 프로그램별	42
2) 월별	42
3) 프로그램 별 뉴스 제시 방식	43
IV. 뉴스 프로그램 분석 결과	44
1. 뉴스 일반 보도	44
1) 뉴스 아이템	44
(1) 뉴스 아이템 유형	44
(2) 뉴스 아이템 성격	47
(3) 뉴스 아이템 편향성	48
2) 뉴스 내용	51
(1) 뉴스 내용 구성 방식	51
(2) 취재원 제시 형태	51

(3) 취재원 유형	52
(4) 뉴스 내용의 초점	54
(5) 뉴스 내용의 편향성	55
2.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56
1) 스튜디오 대담 건수	56
2) 출연자 수	56
3) 출연자 성격	57
(1) 출연자1 성격	57
(2) 출연자2 성격	58
4) 아이템	59
(1) 아이템 수	59
(2) 1번 아이템	60
(3) 2번 아이템	62
(4) 3번 아이템	64
5) 아이템 종합	67
3. 22대 국회의원 선거 보도	69
1) 총선보도 아이템 수	69
2) 총선보도 시간배분	70
3) 총선보도 내용 편향성	71
4. 유진 그룹 관련 보도 추가 분석	73
1) 유진 그룹 관련 보도 자료 수집 및 결과	73
2) 월별 보도 수	76
3) 뉴스 제시 방식	76
4) 뉴스 아이템	77
(1) 유진 그룹 관련 보도 아이템	77
(2) 유진 그룹 YTN 인수 관련 세부 보도 아이템	78
5) 뉴스 내용	79
(1) 내용 구성 방식	79
(2) 취재원 제시 형태 및 유형	79
6) 유진 그룹 YTN 인수에 대한 논조	80

V. YTN 보도의 공정성 평가	82
1. 뉴스 일반 보도 공정성	82
1) 소재의 다양성	82
2) 아이템 선정의 편향성	83
3) 투명한 취재원 활용	84
4) 뉴스 내용의 편향성	85
2.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의 공정성	87
1) 스튜디오 출연자 성격	87
2) 대담 아이템	87
3. 선거 보도의 공정성	89
1) 시간적 배분	89
2) 선거보도 내용	90
VI. 결론	92
1. 연구 결과의 요약	92
2. 연구의 함의	97
참고문헌	99

표 차례

<표 1> 프로그램 별 보도 수(단위: 건, %)	2
<표 2> YTN 뉴스 아이템 유형(단위: 건, %)	2
<표 3> 뉴스 아이템 편향성(단위: 건, %)	4
<표 4> 뉴스 내용의 편향성(단위: 건, %)	5
<표 5>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출연자 성격(단위: 건, %).....	6
<표 6>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아이템 편향성(단위: 건, %)(다중응답 분석)	7
<표 7> 총선 보도 아이템(단위: 건, %).....	7
<표 8> 총선보도 내용 편향성(단위: 건, %).....	8
<표 9> 유진그룹 YTN 인수 관련 세부 보도 아이템	9
<표 10> 소재 집중도 비교	10
<표 11> 아이템 선정 및 뉴스 내용의 편향성 지수 비교	10
<표 12> 투명한 취재원 활용도 비교	10
<표 13> 스튜디오 출연자 성격 비교	11
<표 14> 선거보도 시간 배분 및 보도 내용의 편향성 지수 비교	11
<표 15> 공정성의 하위 개념 및 판단기준	16
<표 16> 방송심의 규정 중 공정성 항목	22
<표 17> 선거방송심의 규정 중 공정성 조건 내용	23
<표 18> 시기별 분석대상 프로그램	28
<표 19> YTN 뉴스의 분석대상 일자	29
<표 20> 뉴스 아이템 유형	31
<표 21> 뉴스 아이템 편향성	33
<표 22> 투명한 취재원 유형	35
<표 23> 외부 출연자 유형	38
<표 24> 22대 총선 뉴스 아이템 유형	40
<표 25> 프로그램 별 보도 수(단위: 건, %)	42
<표 26> 월별 분석대상 보도 수(단위: 건, %)	43
<표 27> 프로그램별 뉴스 제시 방식(단위: 건, %)	43
<표 28> YTN 뉴스 아이템 유형(단위: 건, %)	44
<표 29> 월별 YTN 뉴스 아이템(단위: 건, %)	46
<표 30> 뉴스 아이템 성격(단위: 건, %)	47
<표 31> 뉴스 제시 방식별 뉴스 아이템 성격(단위: 건, %)	48

<표 32> 뉴스 아이템 편향성(단위: 건, %)	49
<표 33> 뉴스 제시 방식별 아이템 편향성(단위: 건, %)	50
<표 34> 뉴스 내용의 구성방식(단위: 건, %)	51
<표 35> 취재원 제시 형태(단위: 건, %)	52
<표 36> 투명한 취재원 유형(단위: 건, %)	52
<표 37> 뉴스 내용의 구성 차원(단위: 건, %)	54
<표 38> 뉴스 내용의 편향성(단위: 건, %)	55
<표 39>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건수(단위: 건, %)	56
<표 40>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출연자 수(단위: 건, %)	56
<표 41>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출연자 성격(단위: 건, %)	57
<표 42>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출연자1 성격(단위: 건, %)	58
<표 43>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출연자2 성격(단위: 건, %)	59
<표 44>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아이템 수(단위: 건, %)	59
<표 45>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1번 아이템 분류(단위: 건, %)	60
<표 46>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1번 아이템 성격(단위: 건, %)	61
<표 47>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1번 아이템 편향성(단위: 건, %)	61
<표 48>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2번 아이템 분류(단위: 건, %)	62
<표 49>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2번 아이템 성격(단위: 건, %)	63
<표 50>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2번 아이템 편향성(단위: 건, %)	64
<표 51>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3번 아이템 분류(단위: 건, %)	65
<표 52>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2번 아이템 성격(단위: 건, %)	65
<표 53>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3번 아이템 편향성(단위: 건, %)	66
<표 54>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아이템 종합(단위: 건, %)(다중응답 분석)	67
<표 55>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아이템 성격(단위: 건, %)(다중응답 분석)	67
<표 56>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아이템 편향성(단위: 건, %)(다중응답 분석)	68
<표 57> 총선 보도 아이템(단위: 건, %)	69
<표 58> 총선보도 시간배분(단위: 건, %)	70
<표 59> 아이템별 총선 보도 시간적 배분(단위: 건, %)	71
<표 60> 총선보도 내용 편향성(단위: 건, %)	72
<표 61> 아이템별 총선 보도 편향성(단위: 건, %)	72
<표 62> YTN의 유진 그룹 관련 보도 현황	74
<표 63> 월별 유진 그룹 관련 보도 수	76
<표 64> 유진 그룹 관련 뉴스 제시 방식	76

<표 65> 유진그룹 관련 보도 아이템	77
<표 66> 유진그룹 YTN 인수 관련 세부 보도 아이템	78
<표 67> 뉴스 내용의 구성 방식	79
<표 68> 취재원 제시 형태	79
<표 69> 투명한 취재원 유형	80
<표 70> 유진그룹 YTN 인수에 대한 논조	80
<표 71> 소재 집중도 분석 결과	82
<표 72> 소재 집중도 비교	83
<표 73> 뉴스 아이템 선정의 편향성 지수	84
<표 74> 아이템 선정의 편향성 지수 비교	84
<표 75> 투명한 취재원 활용도 비교	85
<표 76> 뉴스 내용의 편향성 지수	85
<표 77> 뉴스 내용의 편향성 지수 비교	86
<표 78> 스튜디오 출연자 성격 비교	87
<표 79>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아이템 편향성 지수	88
<표 80> 총선 보도 시간 배분의 편향성 지수	89
<표 81> 선거보도 시간 배분의 편향성 지수 비교	90
<표 82> 총선보도 내용 편향성 지수	90
<표 83> 선거보도 내용의 편향성 지수 비교	91
<표 84>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	95

그림 차례

<그림 1> 검색 키워드 '유진'으로 도출된 YTN 보도 화면	74
--	----

요약문

- 본 연구의 목적은 2024년 방영된 YTN 뉴스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임. 분석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1개월이며, 분석대상 뉴스는 해당기간에 보도전문채널 YTN의 프라임타임에 방영된 뉴스임.
- 본 연구는 분석대상으로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21시 30분부터 방영된 주중(월-금) 뉴스인 <뉴스NIGHT>, <YTN24>(4월)와 주말(토, 일) <뉴스와이드>, <YTN24>(4월)로 설정함.
- 분석기간을 매 분기별 3개월 간격으로 1개월(2월, 5월, 8월, 11월)로 상정한 후, 각 1주로 정함.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5월 대신 4월로 대체함. 선거 일인 4월 10일을 전후로 각 1주일간을 포함하여 분석함.
- 분석유목은 한국미디어경영학회에서 수행한 2020년 <TV조선 뉴스 및 시사·보도 프로그램 공정성 연구>와 2021년, 2022년 <TV조선 뉴스프로그램 공정성 연구>에서 활용되었던 유목에 근거하여 보도전문채널 YTN방송의 특성과 2024년 정치적 환경을 고려하여 수정 및 보완함.
- 유목은 뉴스 일반과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을 구분하여 설정하였는데, 분석대상 뉴스에는 모두 약 20-30분 가량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스튜디오에서 앵커와 대담을 나누는 형식이 포함되어 있음.
- 뉴스 일반의 분석 유목은 뉴스 제시 방식, 뉴스 아이템(유형, 성격, 편향성), 뉴스 내용(구성방식, 취재원 제시 형태, 투명한 취재원 유형, 초점 내용, 편향성) 등으로 범주화함.
- 이와 함께 4월 10일 시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고려하여, 선거보도 역시 아이템, 시간적 배분, 편향성 등으로 유목을 설정하여 살펴봄.
- 외부인 초청 대담의 분석 유목은 출연자 수, 출연자 성격, 대담 아이템 수와 첫 번째 대담 아이템부터 세 번째 대담 아이템까지 대담 아이템 주제, 성격, 편향성 등을 반복하여 조사함.
- 마지막으로 2024년 2월 유진 그룹의 YTN 인수가 결정된 사실을 고려하여, 유진 그룹에 대한 YTN 보도의 공정성을 추가적으로 점검함.

1. 뉴스 분석 결과

- 전체 분석대상의 뉴스는 주중에 방송되었던 <뉴스NIGHT>가 543건, <YTN24>(4월) 411건이었

고, 주말에 방송되는 <뉴스와이드> 206건, <YTN24>(4월) 107건 등 총 1,267건으로 나타남.

- 분석결과를 제시하는데 있어서, 주중 <뉴스NIGHT>와 <YTN24>, 주말 <뉴스와이드>와 <YTN24>는 시기에 따라 프로그램명과 방송 시작시간의 변동이 있으나,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간주하여 편의상 주중 프로그램은 <뉴스NIGHT>로, 주말 프로그램은 <뉴스와이드>로 통합하여 결과를 제시함.

<표 1> 프로그램 별 보도 수(단위: 건, %)

프로그램 명	빈도	비율
뉴스NIGHT	543	42.9
YTN24(주중, 4월)	411	32.4
뉴스와이드	206	16.3
YTN24(주말, 4월)	107	8.4
합계	1267	100.0

- 뉴스의 제시 방식은 앵커가 이후 전개될 리포트를 간략히 설명한 후, 기자 리포트가 진행되는 '기자 리포트 패키지' 방식이 분석대상인 두 뉴스 프로그램 모두에서 절반 이상의 비율로 나타나 가장 많았음.
- 또한 '단신'의 분포 비율도 30% 이상의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YTN의 단신은 일반적인 타 방송 뉴스의 단신보다 방송 시간이 긴 형태도 있음. 본 연구에서는 시간이나 길이와 관계 없이 기자가 등장하여 리포트하지 않고 앵커가 혼자 뉴스를 직접 소개하는 형태를 단신으로 상정하였기 때문에 단신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 뿐만 아니라 '외부인 초청 대담'도 일반적인 타 방송 뉴스보다 많이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분석 대상인 <뉴스NIGHT>(주중 <YTN24> 포함), 주말 <뉴스와이드>(주말 <YTN24> 포함)에서 거의 매일 1회 이상 구성됨.
- 뉴스 아이템은 전체적으로 '해외/국제' 관련이 가장 많았는데, 2024년 시행된 미국 대선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의 해외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 가령, 실제 분석대상 일자에 해당하는 11월 6일에는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YTN은 <뉴스 NIGHT>(21:40)를 <뉴스 특보> 체제로 방송함.
- 다음으로는 '사회' 관련 아이템이 높은 비율이었고, '22대 총선', '경제', '국내 정치'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 YTN 뉴스 아이템 유형(단위: 건, %)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국내 정치	72	22	94
	7.8%	7.3%	7.6%
선거 일반	2	0	2
	0.2%	0.0%	0.2%
22대 총선	120	17	137
	12.9%	5.6%	11.1%
중앙행정	48	14	62
	5.2%	4.6%	5.0%
외교	12	6	18
	1.3%	2.0%	1.5%
북한(통일)	28	16	44
	3.0%	5.3%	3.6%
국방	12	4	16
	1.3%	1.3%	1.3%
지역	17	8	25
	1.8%	2.6%	2.0%
경제	108	18	126
	11.7%	5.9%	10.2%
사법	41	4	45
	4.4%	1.3%	3.7%
검찰	33	4	37
	3.6%	1.3%	3.0%
치안	32	7	39
	3.5%	2.3%	3.2%
사회	98	43	141
	10.6%	14.2%	11.5%
교육	36	11	47
	3.9%	3.6%	3.8%
노동	6	0	6
	0.6%	0.0%	0.5%
환경	4	2	6
	0.4%	0.7%	0.5%
보건/질병	33	10	43
	3.6%	3.3%	3.5%
복지	8	3	11
	0.9%	1.0%	0.9%
방송·문화예술	20	12	32
	2.2%	4.0%	2.6%
IT·정보통신	5	1	6
	0.5%	0.3%	0.5%
스포츠	26	9	35
	2.8%	3.0%	2.8%
생활	53	25	78
	5.7%	8.3%	6.3%
해외/국제	112	67	179
	12.1%	22.1%	14.6%
기타	1	0	1
	0.1%	0.0%	0.1%
전체	927	303	1230
	100.0%	100.0%	100.0%

- 뉴스 아이템의 성격은 정치인이나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정치인 혹은 정치적 쟁점 이슈(정치 이슈)’보다 ‘비정치인 혹은 비정치적 쟁점 이슈(비정치 이슈)’가 더 높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남.
- 비교적 높은 비율로 도출된 ‘해외/국제’ 아이템이나 ‘사회’, ‘경제’ 등의 아이템은 비정치적 아이템이기 때문임.
- 아이템 편향성은 정치 이슈를 다룬 뉴스를 대상으로 정부·여권이나 야권에 우호적이거나 불리한 아이템, 혹은 이들 모두로 분류하기 어려운 아이템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 전체적으로 YTN 뉴스는 ‘분류 어려움’으로 평가된 비율이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야당·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당·여권 비판적’인 아이템이 3.2%,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 우호적 혹은 야당·야권 비판적’인 아이템은 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는 여권의 경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특검, 채 해병 특검 등이, 야권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각각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해석됨.
- 전반적으로 뉴스 아이템 성격을 여권과 야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면, 정부·여권에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템이 3.8%(41건), 야권에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템이 3.8%(42건)으로 거의 유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3> 뉴스 아이템 편향성(단위: 건, %)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 우호적 혹은 야당·야권 비판적	13	14	27
	1.6%	4.9%	2.5%
대체로(간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 우호적 혹은 야당·야권 비판적	12	2	14
	1.5%	0.7%	1.3%
분류 어려움	55	15	70
	6.8%	5.2%	6.4%
대체로(간접적으로) 야당·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당·여권 비판적	6	1	7
	0.7%	0.3%	0.6%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야당·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당·여권 비판적	28	7	35
	3.5%	2.4%	3.2%
해당사항 없음	693	247	940
	85.9%	86.4%	86.0%
전체	807	286	1093
	100.0%	100.0%	100.0%

- 뉴스 내용의 구성방식은 객관적 사실 중심의 스트레이트성 리포트에 해당하는 ‘사건설명’이 가장 많이 보도되었고, 다음으로 ‘사건설명+분석+객관적 논평’, ‘사건설명+분석’, ‘사건설명+분석+주관적 논평’의 순으로 나타남.

- YTN 뉴스는 취재원을 명확히 밝힌 경우가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취재원은 ‘정부 기관’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음.
- 또한 ‘해외 언론사’가 취재원인 경우도 비교적 많았으며, ‘경찰’, ‘시민사회·노동·이익단체’, ‘더불어민주당’, ‘검찰’ 등의 순이었음.
- 뉴스 내용 구성은 사회 일반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특정 쟁점 초점’, ‘특정 개인 초점’, ‘특정 집단/단체 초점’의 순으로 나타남.
- 뉴스 내용의 편향성은 대부분의 뉴스에서 분류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됨. 뉴스 내용의 편향성은 1개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정부·여권이나 야권에 대해 우호적 혹은 비판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음.
- 같은 보도 내에서 정부·여권과 야권의 입장, 주장과 반론, 공격과 방어 등을 대부분 동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권 비판적’이거나 ‘대체로 정부·여권 우호적 혹은 야권 비판적’인 뉴스가 각각 6건과 5건 발견됨.
- 이는 뉴스 아이템과 유사하게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한 내용이 대표적인데, 아이템 상으로는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정부·여권에 비판적인 것으로 분류되나 뉴스 내용의 측면에서는 특검에 대한 반대 입장도 일부(소수) 들어있기 때문에 ‘대체로(간접적으로)’ 정부·여권에 비판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음. ‘대체로’ 야권 비판적인 뉴스 내용의 사례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련 내용이 해당함.
- 결과적으로 여권/야권의 유/불리는 1건의 보도 수 차이가 있으나, YTN 뉴스 내용에서의 정치적 편향은 비교적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표 4> 뉴스 내용의 편향성(단위: 건, %)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대체로(간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 우호적 혹은 야당·야권 비판적	5 0.6%	0 0.0%	5 0.5%
분류 어려움	103 12.8%	39 13.6%	142 13.0%
대체로(간접적으로) 야당·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당·여권 비판적	6 .7%	0 0.0%	6 0.5%
해당사항 없음	693 85.9%	247 86.4%	940 86.0%
전체	807 100.0%	286 100.0%	1093 100.0%

-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은 분석대상 YTN 뉴스에서 모두 1회 이상, 총 37회의 초청 대담이 방영되었으며, 각 회 모두 2명이 출연하여 총 74명이 등장하였음.
- 출연자의 성격은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에 해당하는 인물이 가장 많았으며, ‘국민의힘(16회)’, ‘더불어민주당(12회)’, ‘군소정당(2회)’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그러나 ‘군소정당’ 역시 야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출연자 수에 있어서 여권과 야권이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표 5>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출연자 성격(단위: 건, %)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민주당	12	0	12
	22.2%	0.0%	16.2%
국민의힘	16	0	16
	29.6%	0.0%	21.6%
군소정당	2	0	2
	3.7%	0.0%	2.7%
전문가	24	19	43
	44.4%	95.0%	58.1%
전/현직 타언론사 기자	0	1	1
	0.0%	5.0%	1.4%
전체	54	20	74
	100.0%	100.0%	100.0%

- 대담 아이템 수는 ‘4개 이상’인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22대 총선’ 관련 아이템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국내 정치’, ‘중앙행정’, ‘해외/국제’, ‘선거 일반’ 등의 순이었음.
- 이 가운데, ‘논쟁적 이슈로 정치적 아이템’이 90% 이상의 압도적인 비율로 조사되었음.
- 대담 아이템의 편향성 역시 분류하기 어려운 사례가 절반 이상이었고, ‘대체로 야권에 우호적 혹은 정부·여권에 비판적’인 아이템, ‘분명하게 야권에 우호적 혹은 정부·여권에 비판적’, ‘대체로 (간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 우호적 혹은 야당·야권 비판적’,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 우호적 혹은 야당·야권 비판적’인 아이템의 순으로 나타남.
- 대담 아이템의 경우, 전반적으로 야권에 우호적인 아이템(35.0%)이 정부·여권에 우호적인 아이템(10.0%)보다 높은 비율인 것으로 조사됨.

<표 6>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아이템 편향성(단위: 건, %)(다중응답 분석)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 우호적 혹은 야당·야권 비판적	0	2	2
	0.0%	2.0%	2.0%
대체로(간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 우호적 혹은 야당·야권 비판적	5	3	8
	5.0%	3.0%	8.0%
분류 어려움	47	18	65
	47.0%	18.0%	65.0%
대체로(간접적으로) 야당·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당·여권 비판적	12	3	15
	12.0%	3.0%	15.0%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야당·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당·여권 비판적	8	2	10
	8.0%	2.0%	10.0%
전체	72	28	100
	72.0%	28.0%	100.0%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보도는 총 137건으로 나타났는데, ‘투·개표 현황 및 결과’가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공천 갈등’, ‘전략분석’, ‘TV토론’, ‘판세 분석’ 등의 순이었음.

<표 7> 총선 보도 아이템(단위: 건, %)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판세분석	11	0	11
	9.2%	0.0%	8.0%
전략분석	19	3	22
	15.8%	17.6%	16.1%
후보자 자체논란	16	0	16
	13.3%	0.0%	11.7%
유세스케치	6	3	9
	5.0%	17.6%	6.6%
정책/공약분석	3	0	3
	2.5%	0.0%	2.2%
투·개표 현황 및 결과	39	3	42
	32.5%	17.6%	30.7%
공천갈등	7	3	10
	5.8%	17.6%	17.3%
TV토론	16	5	21
	13.3%	29.4%	15.3%
기타	3	0	3
	2.5%	0.0%	2.2%
전체	120	17	137
	100.0%	100.0%	100.0%

- 총선 보도의 시간적 배분은 여권에 많이 할애한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27.0%)이었으나, 군소정당을 포함하면 야권 할애 비율(30.7%)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여권과 야권에 각각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한 보도의 수의 비율 차가 3.7%로, 시간적 배분에 있어서 어느 한 편에 치우쳤다고 언급하기는 어려움.
- 총선 보도 내용의 편향성도 ‘분류 어려움’으로 판단된 보도가 가장 많았으며, ‘대체로 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권 비판적’이 내용과 ‘대체로 정부·여권 우호적 혹은 야권 비판적’인 내용의 보도 수 차이(2건)가 크지 않았음.

<표 8> 총선보도 내용 편향성(단위: 건, %)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대체로(간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 우호적 혹은 야당·야권 비판적	2	0	2
	1.7%	0.0%	1.5%
분류 어려움	115	16	131
	95.8%	94.1%	95.6%
대체로(간접적으로) 야당·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당·여권 비판적	3	1	4
	2.5%	5.9%	2.9%
전체	120	17	137
	100.0%	100.0%	100.0%

- 추가적으로 2024년 2월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에 따라 최대주주가 된 유진 그룹에 대한 YTN 보도 행태를 살펴보았음.
- 분석 대상 뉴스 프로그램과 일자에는 유진 그룹 관련 보도가 단 1건이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평가하기는 불가능했음.
- 이에 YTN 웹사이트를 통해 유진 그룹 관련 보도를 검색하였음. YTN 웹사이트의 검색 기능상 뉴스 프로그램별 검색은 불가능했으므로, 2024년 한 해 동안 등장한 유진 그룹 관련 전체 ‘동영상 기사’ 보도를 추출하였음.
- 유진 그룹 관련 보도는 검색 키워드를 ‘유진’으로, 검색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검색조건은 제목과 본문을 포함하는 전체로 설정한 후, ‘동영상 기사’에 한정하여 해당 보도를 추출하였음.
- 그 결과, YTN 294건, YTN 사이언스 11건, YTN2 0건, YTN 라디오 0건, YTN dmb 0건이 도출되었는데, YTN 보도 294건 중 유진 그룹이 언급된 보도는 총 41건이었음.

- 총 41건의 보도는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유진 그룹의 YTN 인수 관련 보도였는데, 제외된 1건의 보도는 건설업계가 증감 소음을 잡기 위해 신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해당 기업체를 언급하는 중 '유진 기업'이 간략히(1회) 언급하고 있었음.
- 40건에 해당하는 '유진 그룹 YTN 인수' 관련 보도는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50.0%인 20건으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과정 및 결과'를 스트레이트로 전달하는 보도가 20.0%인 8건 이었고, 'YTN 인사' 문제에 대한 보도에서 유진 그룹이 언급된 보도가 17.5%인 7건, '유진 그룹의 인수 자격조건'을 언급한 것이 12.5%인 5건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분석결과로 볼 때, YTN의 보도에서 유진 그룹의 영향력 행사가 발견되지 않았음.

<표 9> 유진그룹 YTN 인수 관련 세부 보도 아이템

구분	빈도	비율
방통위 의결 과정 및 결과	8	20.0
방통위 의결 절차적 문제점	20	50.0
유진 그룹의 인수 자격조건	5	12.5
YTN 인사	7	17.5
전체	40	100.0

2. YTN 뉴스의 공정성 평가

- YTN 보도의 공정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소재 집중도 지수와 편향성 지수 등을 활용하여 살펴봄.
- 또한 YTN의 보도를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시기와 분석 대상 매체, 뉴스 프로그램에 큰 차이가 있으나, 2022년 수행된 한국미디어경영학회의 KBS, MBC, TV조선의 보도 내용분석 결과와 비교를 시도함.
- 소재 집중도를 파악하기 위해 뉴스 아이템의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Herfindahl-Hirschman index)를 산출함.
- HHI 값은 2024년 YTN이 2022년 KBS, MBC, TV조선보다 낮았음. 소재 집중도는 HHI 값이 클수록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되며, 이에 따르면 YTN이 KBS·MBC·TV조선 보다 소재 집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10> 소재 집중도 비교

구분	2022년			2024년
	KBS1TV	MBC	TV조선	YTN
HHI 값	1147.41	1097.89	920.95	791.84

- 아이템과 뉴스 내용의 편향성은 편향성 지수를 통해 도출하였는데, 이 역시 YTN이 KBS·MBC·TV조선 보다 상대적으로 0에 더욱 가까워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표 11> 아이템 선정 및 뉴스 내용의 편향성 지수 비교

구분	2022년			2024년
	KBS1TV	MBC	TV조선	YTN
아이템 선정의 편향성 지수	+0.31	+0.31	+0.59	-0.06
뉴스 내용의 편향성 지수	+0.03	-0.03	+0.21	-0.01

- 투명한 취재원을 활용한 비율은 YTN이 85.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2022년 KBS·MBC·TV조선의 비율보다는 낮게 나타남.

<표 12> 투명한 취재원 활용도 비교

구분	2022년			2024년
	KBS1TV	MBC	TV조선	YTN
편향성 지수	99.7%	99.7%	99.2%	85.5%

- 외부인 초청 대담의 출연자는 2022년 KBS의 결과와 유사하게 전문가가 비율이 높았음.
- 다만, 정치인에 한정하여 출연자를 살펴보면, 2022년 KBS와 MBC는 ‘더불어 민주당’ 소속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보다 출연 횟수가 많았으나, TV조선은 ‘국민의힘’ 소속 인물이 더 많이 출연함.
- 2024년 YTN도 ‘국민의힘’ 소속이 상대적으로 ‘민주당’보다 높은 비율이나 군소정당 출연자를 합하면, 큰 차이는 없음.

<표 13> 스튜디오 출연자 성격 비교

구분	2022년			2024년
	KBS1TV	MBC	TV조선	YTN
더불어민주당	2	1	1	12
	28.6%	50.0%	14.3%	16.2%
국민의힘	0	0	3	16
	0.0%	0.0%	42.9%	21.6%
군소정당	1	1	0	2
	14.3%	50.0%	0.0%	2.7%
전문가	3	0	3	43
	42.9%	0.0%	42.9%	58.1%
전/현직 타 언론사 기자	0	0	0	1
	0.0%	0.0%	0.0%	1.4
스포츠 선수 및 연예인	1	0	0	0
	14.3%	0.0%	0.0%	0.0%
계	7	2	7	74
	100.0%	100.0%	100.0%	100.0%

- 선거보도의 경우, 시간적 배분에서 YTN은 편향성 지수가 2022년 KBS·MBC·TV조선 보다 0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진 결과를 보이는데, 여권에 할애하는 경우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선거보도 내용에 있어서의 편향성 지수는 2022년 MBC·TV조선보다 0에 가까우며, KBS와는 0과의 차이가 동일하여 비교적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14> 선거보도 시간 배분 및 보도 내용의 편향성 지수 비교

구분	2022년			2024년
	KBS1TV	MBC	TV조선	YTN
시간 배분의 편향성 지수	-0.10	-0.13	-0.11	+0.36
보도 내용의 편향성 지수	+0.01	+0.16	-0.18	-0.01

3. 종합 평가

- YTN 뉴스는 비교적 다양한 소재의 아이템을 전달하고 있었으며, 정치 이슈에 대해서도 편향된 모습을 보인다고 단정짓기 힘들.
-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정부·여권에 불리한 아이템이나 내용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 야권에 불리한 아이템이나 내용을 양적으로 큰 차이 없이 유사하게 보도하고 있었음.
- 물론, 양적으로 완벽하게 여/야권의 유/불리가 동일한 비율로 나온 것은 아님. 뉴스와 대담 아이

- 템, 뉴스와 총선 보도 내용 등에서 정부·여권에 불리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하지만, 유의미하게 큰 차이는 없었음.
- 그러나 이러한 차이도 2024년 지속적으로 대통령, 영부인 관련 논란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던 점을 고려하면 납득할 수 있는 대목임.
 - 스튜디오 출연자나 총선 보도 시 시간적 배분도 야당인 민주당보다는 여당인 국민의힘 쪽에 많이 할애하고 있었지만 큰 차이라고 볼 수 없었으며, 범 야권을 포함하면 유사한 비율이었음.
- 비교 대상으로 적합도가 낮을 수 있으나, 2022년 KBS, MBC, TV조선 뉴스의 내용분석 결과와 비교해도 YTN의 편향성 지수는 0에 가까운 사례가 많아 상대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YTN의 보도가 균형과 중립 등을 비교적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다만 기계적 중립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 YTN의 최대 주주 변경 과정에서 당초 우려되었던 최대 주주인 유진 그룹에 대한 영향이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음.
- 분석 대상 뉴스 프로그램의 보도 수도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YTN 웹사이트를 통해 검색된 지난 1년간 유진 그룹 관련 뉴스도 그리 많지 않았음.
 - YTN의 민영화가 보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실제 보도내용에서는 유진 그룹의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았음. 그럼에도 보도전문채널의 민영화가 향후 YTN의 보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음.

I. 연구배경

언론은 국민의 여론 형성 및 여론의 방향 설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텔레비전(이하 TV)의 영향력은 다른 미디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크다. TV의 영향력은 무엇보다 모든 시청자에게 특별하게 침투하는(uniquely pervasive)특성에서 비롯된다. 즉, TV는 누구나 쉽게 보고,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타 매체보다 월등하게 뛰어나다(FCC v. Pacifica Foundation, 1978).

미국에서는 방송의 주파수가 제한적이고, 그 주파수는 공공의 소유라는 점을 들어서 방송 사업자에게 공정성(fairness)을 준수하도록 요구해왔다(Red lion Broadcasting v. FCC, 1969). 이러한 공정성 원칙은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해석, 개개인이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자유로 규정하면서 강조되었다. 또한 방송사가 수정헌법을 명분 삼아 자의적으로 특정인과 특정 입장을 공격하지 않도록 편파적 방송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다(Pickard, 2018).

하지만 1980년대 공화당의 레이건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로써 미디어 기업의 자유도 존중되면서 공정성 원칙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었다. 특히 정당 등에 의해 임명되는 FCC 위원들이 방송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책임을 부여받는 것은 의도치 않은 편향이나 지위 남용의 위험을 구조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송영주, 2019). 또 형평의 원칙을 강조하다 보니 뉴스가 논쟁적 이슈를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이른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낳는 점과, 다매체환경에서 방송 내용 규제의 전통적 논리였던 주파수 희소성 원칙이 희석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윤성옥, 2009).

공정성 원칙이 사문화된 미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방송의 공정성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방송의 이용자인 시청자 역시 방송으로 하여금 공정성을 요구한다. 이는 지상파 방송사 3곳 중 2곳이 공영방송이기도 하지만 민영방송사인 SBS와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 채널A, JTBC, MBN 역시 방송허가권자의 특혜로 인해서 탄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YTN과 연합뉴스TV 등의 보도전문방송채널은 비록 지상파처럼 주파수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비록 케이블TV 및 IPTV라는 미디어를 이용하지만 뉴스라는 형태를 방송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업자로 간주된다. 즉, 신문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허가받은 소수에 한해서 뉴스를 제작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방송의 공정성 평가는 방송사업자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측면도 강하다.

1995년 공영방송으로 출발한 보도전문채널인 YTN은 2024년 2월 민영방송으로 재출범하게 되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하면서 국민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에 방송의 공정성과 방송사 경영의 투명성을 중요하게 요구하였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2024.2.7.)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의결 보도자료를 통해 “변경승인 심사위원회는 승

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및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의 담보를 위한 승인 조건 등의 부과를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의 공적책임 등과 관련해 제기된 사회적 우려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도전문채널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유진이엔티(주)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특수관계자 포함)에 유리한 보도·홍보성 기사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YTN의 보도·편성에 개입하지 않을 것”을 10가지 조건 중 하나로 부과하였다.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지점 중 하나는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YTN 보도의 공정성 훼손 문제였다. 시민사회, 언론관련 단체 등에서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반대한 이유 중 하나도 보도의 공정성과 관련되어 있다(경향신문, 2023). 따라서 YTN 보도의 공정성 등 공적 책임에 대한 진단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 연구는 YTN 뉴스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진단하는 내용분석을 진행하였다. 공정 보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민영방송사로 재출발하는 YTN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평가인 셈이다. 또한 2024년 민영보도전문채널로 새롭게 재탄생한 YTN 뉴스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첫 평가이다.

다만, 2024년의 모든 보도 내용을 분석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프라임 타임에 방송되는 주중(월-금) <뉴스NIGHT>, <YTN24>(4월)과 주말(토, 일) <뉴스와이드>, <YTN24>(4월)를 대상으로 삼았으며 분기별(2월, 4월, 8월, 11월) 일자를 특정하여 분석하였다. 매 분기별 1개월을 3개월 간격으로 할 경우, 5월 보도를 분석해야 했다. 대신 4월을 분석한 것은 2024년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문이다. 즉, 선거시즌의 방송 뉴스 공정성, 특히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검증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기 때문이다.

II. 방송뉴스 공정성 평가와 보도전문채널의 공정성 평가

1. 방송 공정성 개념 연구

뉴스의 공정성 개념은 1987년 한국 정치의 민주화와 국내 언론 자유의 확장과 맞물려 있다. 5공화국의 언론통제에 대한 반발로 인해 KBS 시청료 납부 거부, 국민주 모금에 의한 한겨레신문의 등장, 민주일보, 세계일보 창간으로 뉴스 생산과정과 보도 관행에 대한 반성이 이뤄졌다. 특히 KBS와 MBC 등 공영방송사들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는 다른 방송철학이 필요하게 되면서 서구 언론의 공정성에 주목하였다.

강명구(1989)는 스웨덴 공영방송을 분석하면서 사실성(factuality)과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을 제시한 웨스터슈탈(Westerstahl, 1983)의 연구를 소개하였다. 또한 맥퀘일(McQuail, 1986)의 뉴스 개념모델을 소개하면서 객관성(objectivity)의 하위개념으로 사실성과 불편부당성을, 비객관성의 하위개념으로 당파성과 주관성, 선전 등을 분석하였다. 강명구의 연구는 국내 공정성 개념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을 촉발시켰다.

강명구의 연구(1989) 이후 지난 35년간 다양한 각도에서 공정성 개념이 조명되었다. 가령, 유종원(1995)은 공정보도 개념을 여러 개념과의 연계성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면서 공정한 심판으로서의 언론, 단순한 관찰자 역할을 강조하는 배심원형 언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별력을 필요로 하는 단독 판사형 언론으로 구분하였다. 이민웅(1996)은 공정성을 진실성, 적절성, 균형성, 다양성, 중립성(불편부당성), 이데올로기의 6개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이민웅(1996)은 강명구의 연구를 확장시키기 위해 뉴스 편향성의 개념을 도입했다. 비판커뮤니케이션학자 골딩(Golding, 1977)의 뉴스 편향성 평가 범주를 소개한다. 즉, 편향성을 의도적 편향성(사실 및 당파성, 선전)과 비의도적 편향성(주관적 선택 및 누락)과 이데올로기를 검토하였다. 비의도적 편향성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현장 기자들의 신념과 데스크, 케이트키퍼의 주관적 판단 등도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은 것이다.

강태영·권영설(2000)은 공정성 구성요소로 공정성의 하위 개념으로 진실성, 적절성, 균형성(양적), 중립성(질적), 다양성, 종합성(심층성)을 제시하였다. 강태영(2004)은 또한 정확성, 질적, 양적 균형성, 적절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는 보도, 단편적이지 않은 종합적 보도, 다양한 정보와 견해가 반영된 보도, 양시양비론을 지양하는 보도, 불편부당한 보도를 공정성 하위요소로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아래 <표 1>에서 보여주듯, 많은 연구자들이 공정성 개념에 대해 탐색하여 왔다.

권형돈·하주용·배진아(2015)는 공정성 개념의 구성요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공정성 하위 개념을 도출한 후, 단어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비슷한 개념 35개를 범주화하였다. 정리된 35개의 개념들 가운데, 기존 연구에서 진실성이 17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균형성 16회, 중립성 13회, 다양성 9회, 적절성 8회의 순으로 나타남을 밝혔다. 그리고 진실성, 균형성, 중립성, 다양성, 적절성 등 5가지의 개념을 공정성의 주요 개념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기자와 PD의 진영논

리가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공영방송 종사자들은 상업방송과는 다른 조금 더 엄격한 보도 원칙이 필요하지만 정치권력과 노동 권력의 후광에 의존하려는 경향도 존재함을 경계한다.

방송뉴스의 공정성에 대한 논문들은 최근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논문 역시 개념을 조금 더 구체화하려는 노력들로 평가된다. 가령, 강재원과 최일우(2024)는 국내 법원 판례에서 나타난 공정성을 분석했다. 즉, 법원은 공정성을 비편향성과 객관성, 균형성 등으로 구성으로 보고, 이들 3가지 요소에 진실성과 공익성을 고려하여 공정성 개념을 구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물론 이러한 공익성 이슈는 공영방송의 노동조합 활동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유의선(2024)는 공영방송이 지향하는 저널리즘 철학으로써 보도의 진실성, 공정성 이슈가 주요하게 인식되고 있다고 밝힌다. 또한 공영방송의 영역으로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합리적 여론조성, 사회문화적 다양성 수용을 언론의 주기능으로 간주한다.

종합하자면, 공정성(公正性)은 어느 한 편에 치우치거나 편견이 없어야 공정하다는 의미이다. 미국에서는 이를 공정성(fairness)으로, 영국에서는 불편부당(impartiality)으로 표현하고 있다. 미국의 공정성은 차별이나 편견이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영국의 불편부당 역시 행위 참여자 또는 논쟁자에게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동어반복으로 보이지만 이들 개념 사이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 공정성은 흔히 균형성과 함께 쓰이면서 대립되는 사안이나 주장을 다룰 때 논쟁적 의견에 대해 편애나 우열 없이 다루면서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을 말한다(조항제, 2019).

<표 15> 공정성의 하위 개념 및 판단기준

연구자	공정성의 하위 개념 및 판단기준
이민웅·이창근·김광수 (1993)	진실성, 적절성, 균형성, 중립성, 다양성, 독립성 - 방송언론인: 정확성, 질적 균형, 중립성, 양시양비론의 지양 - 시청자: 진실성, 적절성, 불편부당성(균형성과 중립성을 포괄)
강명구(1994)	사실성 검증 - 정확성, 균형성; 윤리성 검증 - 합법성, 윤리성; 이데올로기성 검증 - 전체성, 역사성
유종원(1995)	공정성은 우리 사회가 언론의 역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입장에서 공정한 심판으로서의 언론, 단순한 관찰자 역할을 강조하는 배심원형 언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별력을 필요로 하는 단독판사형 언론으로 구분
이민웅(1996)	공정성을 진실성, 적절성, 균형성, 다양성, 중립성(불편부당성), 이데올로기의 6개 차원으로 구분 ① 진실성: 정확성과 완전성; ② 적절성: 특정 아이템이 선택되느냐와 선택된 후 어떻게 처리되느냐의 2가지 측면; ③ 균형성: 시간 배분, 뉴스항목 제시 순서, 인터뷰 음성, 영상처리 등에서 양적 균형을 이루느냐와 상반된 이해당사자의 주장을 균형 있게 전달하느냐는 질적 균형을 포함; ④ 다양성: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 제공되느냐와 다양한 사회계층들의

	입장이 골고루 반영되느냐의 2가지 측면: ⑤ 중립성(불편부당성): 양시양비론 입장을 취하며 최종 판단을 시청자의 몫으로 미루는 소극적 중립성과 이슈에 대한 중립적 태도를 견지한 뒤 충실한 취재를 통해 판단을 내리는 적극적 중립성 ⑥ 이데올로기: 지배계급의 견해와 일반국민의 견해가 일치하는 정도, 일반국민과 지배계급을 매개하는 중재자의 유사성 정도, 지배계급의 이익에 반하는 정보와 의견이 누락되는 정도
강태영·권영설(2000)	공정성의 하위 개념으로 진실성, 적절성, 균형성(양적), 중립성(질적), 다양성, 종합성(심층성)을 제시 ① 진실성: 자료의 정확성, 신뢰할 만한 정보원, 추측이 아닌 사실보도; ② 적절성: 아이탬의 선정과 배치; ③ 균형성: 양적 균형 ④ 중립성: 질적 균형 ⑤ 다양성: 공평한 입장 반영과 다양한 계층 입장 반영 ⑥ 종합성: 심층성과 같은 개념
강태영(2004)	정확성, 질, 양의 균형성, 적절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는 보도, 단편적이지 않은 종합적 보도, 다양한 정보와 견해가 반영된 보도, 양시양비론을 지양하는 보도, 불편부당한 보도
문종대·윤영태(2004)	언론의 자율성(자유로운 언론이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거나 최소한 위반하지 않는 모든 행위)
김승수(2004)	진실과 정의
김세은·이상길(2007)	불편부당성, 정직성
문종대(2007)	윤리성, 상업성
이준웅·김경모(2008)	다양성확보, 담론적 공정성, 포괄성(소수의견의 보호)
김연식(2009)	사실성, 균형성, 맥락성, 다양성, 자율성
심훈(2014)	균형성, 중립성, 사회적 감시 및 권력비판, 사실성, 사회적 다원성, 사회적 약자 보호
원희영·윤석민(2015)	체계적 편향, 보도량 편향, 출연자 발언 편향
배진아(2015)	진실성, 균형성, 방송기술오용금지, 이해당사자 일방주장금지, 차별금지
김성준(2017)	전통적 공정성, 사회적 공정성, 의도적 불공정성, 선정적 불공정성
이종혁·정낙원·김세은(2017)	보도량(양적균형)과 프레임(질적 균형)
남재일·이강형(2017)	균형성, 중립성, 소수의견 존중, 사회 불평등 구조 개선, 사회정의 실현
윤석민(2018)	정확성, 진실성
이정훈·정준희(2018)	객관성(정확성, 균형성, 불편부당성), 합당성(시대적 대의, 공의로움)
조항제(2019)	사실성, 중요관련성, 투명성, 불편부당성, 다양성, 균형성, 중립성, 반편향성, 본래성

* 출처: 김승수(2004); 이종혁(2015); 조항제(2019) 재구성.

2. 공정성에 대한 영국, 미국의 차이

미국과 영국에서 공정성을 바라보는 견해 차이는 해당 국가의 공영방송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다. 미국은 민영방송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 주도형 방송체계를 갖고 있다면, 영국은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주도형 모델이기 때문이다(문재완, 2008). 즉, 미국에서는 시청률이 높은 것이 공중의 이익을 충실히 반영한다는 입장이라면, 청소년 보호 등 극히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방송 내용에 대한 규제를 삼간다. 반면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법에 규정된 공정성 원칙의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재원조달을 국가가 보장하면서 이에 대한 의무 역시 국가에서 감독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한동안 공정성 원칙(fairness doctrine)을 강조했으나 1987년 이를 폐기하였다. 미국의 공정성 원칙은 표현의 자유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 개개인이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자유로 규정하면서 강조되었다. 또한 방송사가 수정헌법을 명분삼아 자의적으로 특정인과 특정 입장을 공격하지 않도록 편파적 방송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다(Pickard, 2018). 하지만 1980년대 공화당의 레이건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로써 미디어 기업의 자유도 존중되면서 공정성 원칙을 폐기하였다. 한국 역시 뉴스미디어가 증가하면서 미디어 기업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공정성에 대한 입장변화를 시사한다.

미국에서는 정당 등에 의해 임명되는 FCC 위원들이 방송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책임을 부여받는 것은 의도치 않은 편향이나 지위 남용의 위험을 구조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송영주, 2019). 또 형평의 원칙을 강조하다 보니 뉴스가 논쟁적 이슈를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이른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낳는 점과, 다매체환경에서 방송 내용 규제의 전통적 논리였던 주파수 희소성 원칙이 희석되었기 때문에 풀이된다(윤성욱, 2009). 미국에서는 비록 공영방송으로 PBS(Public Broadcast Service)가 있지만 그 존재감은 다른 민영방송에 비해 미미한 편이다. 그렇기에 주파수의 희소성에서 민영방송에게도 요구했던 방송의 공정성은 유선방송을 통한 다채널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 오히려 다양한 시각의 제공이 공익성(public interest)의 실현에 기여하는 측면도 고려된다.

영국에서 불편부당성은 반대되는 견해에 대해 똑같은 방송시간과 공간을 할애하거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한다는 객관성과는 의미가 약간 다르다. 사안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다양한 이념, 의견, 관심 또는 개인을 포괄적으로 다루려는 시도(Sambrook, 2012; 조항제, 2019에서 재인용)로 간주한다. 그렇기에 불편부당은 “편견이 없고, 균형감 있으며, 객관적이고, 열린, 특정입장에 대한 편 들기가 없는 것”(Cushion, 2011:33)이라고 정의 내려진다. 단순히 양적인 균형감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역시 불편부당 개념 속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념, 의견, 관심, 개인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실제 보도에 있어서는 BBC 역시 다양한 목소리 대신에 소수의 논쟁적인 이슈를 집중보도하고, 엘리트 중심의 보도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Wahl-Jorgensen et al., 2016). 하지만 영국 BBC방송이 불편부당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진실

성(truthfulness)과 정확성(accuracy) 역시 BBC의 허가장(Royal Charter)에서 강조되고 있다 (Flood et al., 2011).

프랑스의 경우 다원주의 차원에서 방송의 공정성을 접근한다. 특히 방송채널의 다양성, 사업자의 다양성을 외적 다원주의라고 한다면, 프로그램 안에서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보장을 내적 다원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먼저, 외적 다원주의 보장을 위해 진입규제, 소유·겸영 규제 등의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내적 다원주의의 경우 구체적 방법까지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사상과 의견의 다원주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즉,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사회적 다양성 제고' 같은 다원적 가치들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민주 사회의 이치나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김세은, 이상길, 2008). 이에 시청자최고위원회(CSA)는 정치인의 출연시간 등에서 형식적 다원주의를 지향하되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공정성 시비를 회피하는 동시에 다원주의 가치를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송영주, 2019).

언론의 공정성은 언론인으로서의 전문직 수행을 위한 가치판단의 기준이며, 국민들과 정부기관이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언론으로부터 획득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동시에 정치적으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Fico & Soffin, 1995). 언론의 공정성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전문직 수행, 공중의 신뢰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이제까지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는 그 자체로서의 단일 개념에 대한 것보다 공정성을 구성하는 몇 개의 개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허친슨 위원회가 언론의 비당파적 뉴스 보도를 강조하면서 정확성, 공정성, 균형성을 언론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해 준수해야 할 중요 강령으로 제시하는 데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William, Wilbur & Clifford, 1980).

그런 점에서 영국의 애년 위원회(Annan Committee)가 1977년 발표한 방송의 미래에 관한 보고서에서 지적한 공정성 또는 불편부당성의 세 가지 요소는 공정성을 적절히 규정하고 있다(Annan, 1977). 애년 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성의 첫 번째 요소는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하게 여러 의견들과 견해들이 표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언론인은 그들의 언론행위에서 한 가지 견해만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요소는 여러 문제에 대한 견해의 범위뿐만 아니라 그 견해의 무게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언론인이 수용자에게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는 사실이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주장하는 의견까지 무게 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수의 의견이 더 큰 비중을 가져야 한다. 물론 다수의 의견에 도전하는 소수의 의견도 주목을 받아야 하지만 그 다수의 의견이 충분하고 명확하게 제시되고 아울러 그 다수의견에 도전하는 소수 의견의 도전의 상태와 의미도 명확하게 파악되어야 한다. 세 번째 요소는 언론인의 견해의 범위와 무게가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 시기의 지배적인 의견이 언제나 지배적인 의견일 수는 없다. 상황이 달라지면 소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 될 수도 있다. 공정한 보도는 이런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3. 공정성의 평가

1) 내용분석을 통한 공정성 평가

언론의 공정성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특히 방송에서의 공정성은 그 존재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로써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되지만(정필모, 2012), 다수의 연구들에서는 방송의 공정성은 개념의 구체성을 갖추지 못하고 변화하는 방송 환경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원희영·윤석민, 2015). 또 방송법과 방송심의 규정, 그리고 언론사의 보도 준칙에서도 공정성, 공익성, 객관성, 사실성, 균형성, 중립성 등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규정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최영재·홍성구, 2004).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크게 방송의 내용분석과 시청자의 평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내용분석은 공정성의 하부 개념 요소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거나 대표적인 편향성 사례를 통해 정성적 평가를 하기도 한다. 공정성의 하부개념으로는 보도 내용의 형식적, 내용적 특성을 분류하고, 이를 항목별로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권혁남, 1999; 남지나, 최윤정, 2010; 강재원, 최일우, 2024).

실제로 남지나·최윤정(2010)은 공정성을 형식적 공정성과 내용적 공정성으로 분류하고 국내 지상파 방송의 공정성을 측정하였다. 형식적 공정성에는 보도대상이 되는 보도비율(proportion), 보도시간(length), 보도순서(order), 육성(soundbite) 샷의 크기(shot size) 등을 따라서 분석하였다. 또한 내용적 공정성은 보도성향(valence)를 긍정, 중립, 부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권혁남(1999)은 후보자에 대한 긍정/중립/부정을 기준으로 내용적인 공정성 연구의 연장선이다. 김창숙과 민영(2021)은 역시 형식적 공정성에 초점을 맞춰 보도 대상, 보도량, 보도 순서, 정보원의 유형, 보도 논조, 관점의 다양성 등으로 공정성을 평가했다.

영국 BBC의 경우 보도의 정확성(accuracy)을 높이기 위해서 출처(source)를 충분히 밝히고, 진실한 증거에 기반하며, 명확하고 정확한 언어로 설명하도록 요청하고 있다(유의선, 2024). 출처의 투명성은 저널리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원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해당 보도가 추정이나, 추측에 의한 보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자의 보도가 사실성에 입각한 보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논쟁 영역에 있는 현안을 다룰 시 이해당사자 간 주장의 균형을 맞춘다. 즉, 정치 현안에 대한 토론 프로그램에서 출연 패널 간의 사회적 비중이나 전문성, 평소의 관점 등에 주목해서 이력의 균형을 맞춘다(유의선, 2024). 특히 선거 기간에서 보도에서는 정당 지지자간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항시 제기된다.

이와 함께 기자들의 전문성 부족과 기자의 선입견은 방송 공정성 결여의 요인으로 꼽히기 한다. 경제지식이 부족한 기자가 한 경제보도는 시청자에게 경제상황 전반에 대한 보도를 하지 못하게 된다. 무엇보다 기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보도하지 못하고, 주어진 정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

지 못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비판적 시각을 누락할 수 밖에 없다(주대우, 2023).

김성준(2017)은 공영방송의 공정성 논의를 4개의 유형으로 나눠서 살펴보고 있다. 즉, ‘전통적 공정성 유형’,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와 가치 판단에 따른 심층적 보도에 필요한 요소들로 구성된 ‘사회적 공정성 유형’, 왜곡 등의 의도적 행위로 인한 내용과 형식상의 불공정성이 포함된 전형적 불공정 평가 유형인 ‘의도적 불공정성 유형’, 마지막으로 근래 논란이 되고 있는 매체의 이익을 우선함에 따른 선정성, 오락성과 관련된 불공정 평가 유형인 ‘선정적 불공정성 유형’ 등으로 나뉘었다.

2)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공정성 평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중요하게 간주하는 핵심가치들도 주요 고려대상이다. 방송법과 방송심의 규정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윤성옥, 2009). 하지만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서는 보도, 편성, 국민의 기본권과 알권리, 소수계층 보호,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등을 공정성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에서는 사실성, 객관성, 균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보도와 편성의 사실성과 객관성, 균형성, 소수계층보호,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등을 평가한다면 공정성의 핵심가치에 대한 측정이 가능한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언급한 방송심의 규정 중 해당 내용은 공정성(제9조)와 대담·토론프로그램 등(제13조), 객관성(제14조), 인권 보호(제21조), 윤리성(제25조), 품위유지(제27조), 방송언어(제51조) 등이다. 공정성의 경우, 방송심의 규정 제9조에 따라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해 공정성, 균형성 유지, 당사자 의견의 균형 있는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방송의 제작 또는 편집기술 이용하여 특정인(단체)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별이나 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의 이유로 방송편성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담·토론 프로그램과 객관성, 인권보호 등의 방송심의 규정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6> 방송심의 규정 중 공정성 항목

구분	내용 요약	조항
공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실 왜곡 금지 - 쟁점, 대립 사안에 대한 공정성, 균형성 유지, 당사자 의견 균형 반영 - 제작 또는 편집기술 이용하여 특정인(단체)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 오인 금지 - 이해당사자 일방 주장 금지 -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차별 금지 	제9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진행의 형평성·균형성·공정성 유지 - 토론의 결론을 미리 예정 및 암시, 의도적 유도 금지 - 진행자 및 출연자의 타인(단체) 조롱, 희화화 금지 	제13조 1, 3, 5항
객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에 대한 정확·객관적 전달 및 불명확한 내용 금지 	제14조
인권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적·신체적 차이, 학력·재력·출신지역·방언 등을 조롱의 대상, 열등한 대상 취급 금지 	제21조 3항
윤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바른 가치관 및 규범 정립,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 시장 이바지 - 가족공동체 가치 존중, 가족 내 평등 및 민주적 관계 이바지 - 민족의 존엄과 긍지 손상 금지 	제25조
품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쾌감 유발할 수 있는 고성, 고함,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 불쾌한 언행 등 표현 금지 - 신체 사물 활용 또는 의도적 무음, 비프음, 모자이크 등 사용한 욕설 표현 금지 -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 해치는 표현 금지 	제27조 1, 2, 5호
방송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어 사용, 불가피한 경우 예외이나 특정 지역 또는 인물 희화화나 부정적 묘사 금지 - 바른 언어생활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 금지, 프로그램 특성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 	제51조

3)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서도 공정성 관련 항목들이 존재한다. 이는 논쟁적 이슈에서 균형감있는 보도를 강조하는 영국의 불편부당원칙과 맞닿아있다. 즉, 정치적 중립(제4조)와 공정성(제5조), 형평성(제6조), 객관성(제8조), 특집기획프로그램(제9조), 시사보도정보 프로그램(제10조), 사실보도(제12조), 정당 등에 의한 협찬방송의 금지(제20조) 등이다. 정치적 중립의 경우, 선거방송 심의규정 제4조에 따라 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주장 또는 이익을 지지·대변하거나 옹호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또한 공정성은 방송에서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하며, 프로그램의 배열과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불리하지 않도록 하고,

선거 당일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이 외에도 형평성, 객관성, 특집기획 프로그램, 시사·보도정보 프로그램, 사실보도 등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7> 선거방송심의 규정 중 공정성 조건 내용

구분	내용 요약	조항
정치적 중립	-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중립 - 후보자 및 정당의 주장/이익 지지 및 대변 금지	제4조
공정성	- 프로그램 배열, 내용 구성에 있어 후보자 및 정당에 유·불리 금지 - 선거일의 선거결과에 영향 미치는 내용 금지, 투표 독려 가능	제5조
형평성	-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공평한 관심 및 처우 제공 - 선거 실시되는 방송구역 내 지역 균형, 여러 종류 선거 균형 유지 - 선거법에 의한 후보자 및 정당 중심 보도 가능, 그 밖의 후보자 및 정당 포함 노력	제6조
객관성	- 사실 전달 - 쟁점 사안에 대한 상이한 관점, 견해 포함	제8조
특집기획프로그램	- 선거 관련 없어도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불리 금지	제9조
시사·보도정보 프로그램	- 선거 관련 대담·토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등 논의 균형, 출연자의 선정, 발언횟수, 발언시간 등 형평 유지 - 시사·보도정보프로그램에서의 진행 형평성·균형성·공정성 유지, 진행자 및 출연자 특정 정당·후보자 조롱 희화화 금지	제10조
사실보도	- 사실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 금지 -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 금지, 실제결과와 예측이 다를 경우 정정보도 -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용어 금지	제12조
정당 등에 의한 협찬방송의 금지	- 정당 또는 후보자에 의한 협찬방송 금지	제20조

4) 시청자가 평가하는 공정성

시청자의 평가는 다양한 미디어에 대한 언론 수용자라고 할 수 있는 시청자들 혹은 미디어 전문가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하다. 뉴스의 내용분석이 객관적 평가라고 한다면 수용자 평가는 주관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손영준(2011)은 수용자의 평가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의미에 부합하는 평가라고 강조한다. 이는 공리주의차원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해당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을 갖는가, 해당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유용하다고 믿는가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손영준(2011)는 이를 배분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차원에서 살펴볼 것을 권유한다. 즉, 공정성은 ‘희소한 사회적 자원(scarce social asset)’을 어떻게 공정하고 정당하게 나눌 것인가의 질문이라는 것이다. 방송이라는 제한된 자원을 물리적 시간과 보도태도를 배분하고 결정하는 과정으로 보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

관적인 방송이 공정한지를 측정하였다. 방송의 공정성 인식에는 TV신뢰감은 정(+)의 영향을 개인효능감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한다(손영준, 2011).

심훈(2014)은 방송학회 회원 129명을 상대로 KBS 및 MBC 보도에 관한 공론과 정론(객관성, 중립성, 사회적 다원성, 사회적 약자보호, 사회감시 및 권력 비판) 등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했다. 그 결과, 공영 방송이 공정보도 구현에 있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송 전문가들의 결론을 내렸다. 심훈(2014)는 이와 함께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와 관련, 향후 전망치를 공정보도 실사지수(FBSI, Fairness Broadcasting Survey Index)로 측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미디어미래 연구소에서도 전문가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방송사의 공정성을 측정하고 있다. 미디어미래연구소에서는 공정성의 요소로 뉴스 및 정보의 객관성과 대립되는 의견 보도의 균형성(이하 균형성), 그리고 다양한 집단의 가치와 견해 반영 여부(이하 견해의 다양성), 특정 이슈나 이해당사자에 편향되지 않은 보도행태(이하 비편향성)를 평가하여 국내 언론의 공정성 순위를 매겨왔다. 2020년 조사에서는 YTN의 경우 균형성과 비편향성, 객관성 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가장 공정한 미디어로 선정되었다(허미선, 2020). 이는 전국 미디어 학자 389명을 대상으로 공정성 평가를 한 결과이다.

유사한 조사로는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신뢰성 조사 역시 공정성 보도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정한다. 2024년의 조사에서는 YTN의 경우 56%의 신뢰도를 얻어 57%의 신뢰도를 얻은 MBC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Reuters Institute, 2024). 이와 같은 설문조사는 이용자의 주관적 평가인 셈이다.

4.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공정성 평가

보도전문 케이블방송은 지난 1980년 6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서 첫 출발한 CNN(Cable News Network)이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다. 24시간 뉴스채널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CNN은 당시 재선에 나선 지미 카터 대통령에 대한 인터뷰를 성사시키면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1985년에는 프라임 타임에 인터뷰 형식의 래리킹 라이브(Larry King Live) 등 다양한 뉴스 포맷을 선보였다. 또한 1986년 우주왕복선 챌린저의 폭발 장면을 생중계하고, 1991년 걸프전쟁 생중계의 특종 등으로 전 세계에 CNN이라는 이름을 널리 알렸다. 미국에서 CNN의 보도성향은 중도라기보다는 다소 진보적인 매체로 평가받는다(Weatherly, et al., 2007).

1996년 10월 루퍼트 머독에 의해 보수성향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폭스뉴스(Fox news)가 첫 방송을 하였다. 폭스뉴스는 CNN과는 달리 공화당 지지자와 보수층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2019년부터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보도는 케이블TV가 되었다. 또한 1996년 NBC방송과 MS의 합작사인 MSNBC 방송이 출범하며 상대적으로 CNN보다 더 진보적인 시각을 장착하면서, 미국에서는 진보, 중도, 보수 매체가 각각 존재하는 MSNBC-CNN-Fox news 등의 이념적 분화도 이루어졌다(Martin & Yurukoglu, 2014).

미국의 3개 보도전문채널이 이념적 성향에 따라 다른 보도를 할 수 있는 것은 CNN을 제외하고 나머지 2개 채널이 1987년 공정성 원칙(fairness doctrine)이 철폐된 뒤 등장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초기 공정성 원칙이 방송 주파수의 제한성과 함께 방송의 영향력, 침투성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면 케이블 중심의 보도전문채널은 주파수의 제한성과도 거리가 멀다. 말하자면, 주파수 희소성의 차원에서 민영방송에게도 요구했던 방송의 공정성은 유선방송을 통한 다채널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 오히려 다양한 시각의 제공이 공익성(public interest)의 실현에 기여한다고 바라보는 시각도 제기된다. 공정성을 강조하고 편향성에 대한 제재가 있다면 이 같은 다양한 시각의 전달이 어려웠을 수도 있다.

3대 네트워크인 ABC, CBS, NBC 방송의 뉴스보다 폭스뉴스와 CNN의 시청률이 더 높다. 미국인들이 한주동안 뉴스 이용경험에서 폭스뉴스는 27%, CNN은 23%를 기록하는 반면, ABC뉴스와 CBS 뉴스는 20%에 머물고 있다(Reuters Institute, 2024). 하지만 폭스뉴스와 CNN에 대한 불신도 높아서 응답자가 각각 43%, 37%의 응답자가 신뢰하지 않는 매체로 꼽고 있다. 이는 정파적 보도에 대한 반작용으로 여겨진다.

국내 최초의 보도전문채널인 YTN은 연합뉴스(당시 연합통신)의 자회사로 1995년 3월 첫 방송을 시작하였다. 한국의 CNN을 표방하여 출범한 YTN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1996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 국가적 재난에 대한 보도를 통해서 주요 뉴스채널로 자리 잡게 된다(이승훈, 2014), 하지만 외환위기로 인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신청이후 연합뉴스에서 분리되어 한국 전력공사, 담배인삼공사, 한국마사회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정파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미국의 24시간 뉴스채널과는 달리 국내 보도전문채널은 정파성은 금기시 되어왔다. 대신 공영방송과 같은 수준의 공정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국내 국민들이 방송을 공공재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방송위원회에서는 보도전문채널의 승인요건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과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이 명문화되어 있을 정도다(김영덕, 2007). 또한 보도전문채널인 YTN과 연합뉴스TV가 그동안 공영방송 형태로 운영된 점도 강한 공정성 요구와 맞물려 있다. 내부 구성원들 역시 공정성에 대한 강한 요구를 하고 있다. 실제 YTN 노조는 공정방송 사수를 목적으로 2008년, 2012년, 2018년에 파업을 해왔다(김대근, 2018).

국내 보도전문채널인 YTN과 연합뉴스TV의 탄생배경 및 운영주체, 채널 성격이 비슷하다는 점은 두 방송사에게 새로운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그렇기에 2024년 YTN의 민영화는 보도전문채널의 체질변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히 최대액출자(대주주) 변경을 넘어서 보도 내용의 질적 차이, 특히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공정성이라는 보도의 큰 원칙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국내 24시간 뉴스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공정성을 단독으로 연구한 것은 거의 없다. 주로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의 공정성을 연구하면서 YTN의 연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YTN의 초창기 뉴스 분석에서 이은미와 이종수(1995)는 지상파 3사 방송 뉴스와 YTN 뉴스를 상호, 비교했다. 1주일간 뉴스 스토리는 KBS 1TV가 50분 방송에 192개, MBC가 45분에 185개, SBS가 40분에 181개, YTN이 30분에 159개였다. 뉴스 1건당 방송 길이는 KBS가 가장 길었던 반면 YTN이 가장 짧았다. 등장인물로 보면 KBS의 경우, 대통령이 9.5%, 야당 정치인이 9.2%, 여당 정치인이 2.5%를 차지한데 비해, YTN의 경우 대통령 18.4%, 야당 정치인 11.8%, 여당 정치인 9.9%를 차지해 대통령 및 여당 정치인 대 야당 정치인의 비율은 7대 3으로 편향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획취재의 경우 KBS 뉴스의 13.3%인데 비해 YTN은 0.6%에 불과했다. 반면 계획된 사건은 KBS가 48.1%인데 반해 YTN은 69.4%로 공식적인 연설, 기념식 중심의 편성이 많았다. 출범 초기에 장비 및 인력 부족으로 다양성을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YTN의 공정성에 대한 뉴스 이용자 279명의 평가는 평균 2.99점으로 KBS(2.78)와 MBC(2.89), SBS(3.00)보다는 높게 나타났지만 JTBC(3.56)에 비해서는 크게 낮았다(이승용, 2014).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공정성의 4개의 하위 개념(진실성, 적절성, 균형성, 중립성)에 대한 5점 척도 결과에 대한 평균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서울 언론사 기자 25명의 공정성 평가에서도 YTN은 2.53점을 얻어, JTBC의 3.69보다는 낮았지만 KBS(1.85), MBC(1.49), SBS (2.39)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4년의 경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뒤 진행된 설문조사였기 때문에 세월호에 대한 재난보도가 공정성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동세호와 안호림(2023)은 20대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가 열린 2022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국내 방송사들의 팩트체크 뉴스의 경향과 공정성을 분석하면서 YTN의 경우, 총 20건의 팩트체크

뉴스 중 17건이 정치인의 발언을 검증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전체 20건 중 보수에 불리한 판정이 55%(11건)로 진보에 불리한 20%(4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친 진보성향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보도전문채널 등에 방송의 공정성과 방송사 경영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2월 주)와이티엔(YTN)의 최대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하면서 방송의 공정책임에 대한 강조와 함께 보도전문채널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일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모기업과 관련해서 보도·홍보성 기사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등으로 보도 및 편성 개입이 없도록 할 것도 강조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요구사항은 공영에서 민영방송사로 재출범하는 YTN의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펴봐야 할 항목이기도 하다.

Ⅲ.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1. 분석대상 및 분석기간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YTN에서 방영되고 있는 뉴스 프로그램으로, 2024년 11월 기준 <뉴스 NIGHT>(월-금 21:40)와 <뉴스와이드>(토-일 및 공휴일 21:50)이다. YTN은 뉴스 전문채널로서 24시간 뉴스를 편성하기 때문에 다양한 뉴스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그러나 21:30대의 뉴스가 하루 발생했던 사회 이슈 및 사건·사고 등을 종합·정리한다는 판단하에 본 뉴스를 분석대상으로 상정하였다. 물론, 이후 시간대에도 뉴스가 편성되어 있으나, 이는 밤 11시 이후로 심야시간대 뉴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석대상으로 설정한 이들 뉴스 프로그램은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프로그램명과 방영 시간의 변경 과정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시기별 분석대상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8> 시기별 분석대상 프로그램

구분	기간	프로그램명 및 방영시간
평일(월-금)	2024년 1월-4월 1일	<뉴스 NIGHT> 21:35
	2024년 4월 2일-4월 30일	<YTN 24> 21:35
	2024년 5월 1일-6월 14일	<뉴스 NIGHT> 21:30
	2024년 6월 17일-11월	<뉴스 NIGHT> 21:40
주말(토-일) 및 공휴일	2024년 1월-4월 1일	<뉴스와이드> 21:50
	2024년 4월 6일-4월 28일	<YTN 24> 21:50
	2024년 5월 4일-11월	<뉴스와이드> 21:50

위의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24년 11월 기준 21:40 방영되는 <뉴스 NIGHT>와 <뉴스와이드>는 1월부터 현재까지 프로그램명과 방영 시간의 변경이 있었다. 또한 국내·외 대형 이슈가 발생할 경우, 이들 뉴스 프로그램 대신 특보체제로 편성되기도 했는데, 이때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간대의 <뉴스특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가령, 2024년 11월 6일(수)은 <뉴스 NIGHT>(21:40)가 편성되어야 하지만, 미국 대선 소식으로 동일 시간에 <뉴스특보>가 방영되었다.¹⁾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11개월로 상정하였는데, 이는 분석 보고서의 제출 시한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분석대상 뉴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11개월 간 방영된 모든 뉴스를 분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체계적 표집을 활용하여 분석대상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먼저, 11개월 중 3개월 간격으로 4개월(2월, 5월, 8월, 11월)을 설정하였는

1) 그러나 분석결과를 제시하는데 있어서는, 편의상 평일 <뉴스 NIGHT>와 주말 및 공휴일 <뉴스와이드>로 통일하였다.

데, 이는 매 분기 1개월씩 포함되어 어느 특정 시기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분석대상 각 1개월 마다 각 1주씩 분석일을 선정하였다. 또한 2024년 4월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시기임을 반영하여 선거일인 4월 10일을 기준으로 선거 전과 후, 각각 1주를 추가 분석대상 날짜로 설정하였다.

분석일 선정은 주(週) 구성표집(constructed week sampling) 방법에 따라 무작위 번호추출기 (<https://www.minzkn.com/random.html>)를 통해 각 월마다 먼저 나오는 숫자의 해당 요일을 분석 대상 날짜로 정하였다. 동일한 날짜가 반복 도출될 경우, 필요한 요일의 날짜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출하였다. 이에 따라 선정된 각 YTN의 주중 및 주말 뉴스의 분석대상 날짜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9> YTN 뉴스의 분석대상 일자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뉴스NIGHT> or <YTN 24>					<뉴스와이드> or <YTN 24>	
2월	5	20	21	15	2	17	25
4월*	8	9	3	4	5	6	7
	15	16	24**	11	12	13	14
8월	26	13	21	8	2	31	11
11월	11	26	6	13	1	23	10

* 4월의 경우, 4월 10일 대통령 선거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을 상정함.

** 4월 17일(수)이 포함되어야 하나, 참조할 수 있는 스크립트 부재로 4월 24일로 대체함.

2. 자료의 수집

자료의 수집은 YTN의 각 뉴스 프로그램 공식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일자별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YTN 웹사이트의 다시보기 서비스는 날짜별, 프로그램별로 구분되어 있어 과거 뉴스를 웹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그러나 타 방송뉴스 다시보기 서비스와 달리, 각 뉴스 프로그램의 각 뉴스 건별로 영상이 분류되어 있지 않으며 스크립트도 제공되지 않는다. 즉, 해당 일자의 뉴스 프로그램 전체를 영상으로만 다시 볼 수 있다. 다만, YTN 웹사이트에서 정치, 경제, 사회, 전국, 국제 등 뉴스 분야에 따라 뉴스에 접속하면 해당 뉴스 건 별 다시보기 서비스와 문자 텍스트가 제공된다. 따라서 YTN에 협조를 요청하여 분석대상 일자의 뉴스 스크립트를 제공받아 YTN 웹사이트의 뉴스 영상을 확인하며 분석하였다.

3. 분석 유목의 설정

분석 유목은 한국미디어경영학회에서 수행한 2020년 <TV조선 뉴스 및 시사·보도 프로그램 공정성 연구>, 2021년 <TV조선 뉴스프로그램 공정성 연구>, 2022년 <TV조선 뉴스프로그램 공정성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유목을 기초로, 2024년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 및 보완하였다.

1) 일상적 보도행태 분석을 위한 유목

(1) 뉴스 제시방식

뉴스는 건별로 앵커가 시작할 뉴스 한 건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브릿지 코멘트 이후, 본격적인 뉴스가 진행되는데, 뉴스 제시방식은 앵커의 코멘트와 기자 등장하는 영상 및 코멘트가 제시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제시방식의 분석 유목은 첫째, ‘기자리포트 패키지’로 앵커가 기자리포트를 소개한 후 기자가 사전에 제작한 영상과 코멘트를 제시하는 형태를 말하며, 둘째, ‘(기자) 현장 연결’로, 앵커가 기자리포트 소개 후 기자와 원격으로 연결하여 대담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셋째, ‘단신’은 기자리포트 없이, 앵커가 짧은 뉴스를 직접 소개하는 형태로, 뉴스 시간과 관계없이 기자가 등장하여 리포트를 하지 않으면 단신으로 판단하였다. 넷째, ‘스튜디오 대담’이 있는데, 이는 앵커가 기자리포트 소개 후, 앵커가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한 기자와 취재 전후 및 추가 설명을 하는 형태로 설정하였다. 또한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이 있는데, 이는 앵커가 자사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 혹은 이해당사자 등의 스튜디오 출연자(장관, 국회의원, 의사, 변호사, 교수, 시사평론가 등)와 대담하는 형태로, 분석대상 뉴스에는 거의 매일 약 30분간의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이 진행되었다.²⁾ 여기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뉴스 제시방식은 ‘기타’로 구분하였다.

(2) 뉴스 아이템 유형

뉴스 아이템 유형은 뉴스 한 건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나 내용이라고 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YTN 뉴스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뉴스 아이템을 다음의 표와 같이 25개로 분류하였다.

2)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은 별도의 유목으로 분석하였다.

<표 20> 뉴스 아이템 유형

구분	내용
국내정치	여당, 여당, 국회, 국회의원 등 정치인, 정치적 사건이나 사안 관련 내용
선거 일반	2024년 시행된 22대 총선을 제외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보궐선거 등 선거 관련 내용
22대 총선	2024년 4월 10일 시행된 국회의원 선거 관련 내용
중앙행정	대통령(실), 국무총리, 정부 부처(장관) 등 행정부 관련 내용
외교	외국과의 정상회담, 대통령 순방, 국제회의, 한일 관계 개선 등의 내용
북한(통일)	(핵)미사일 실험, 북한 인권(이탈주민), 우크라이나 파병 등의 내용
국방	한미 연합 훈련, 채해병 사망 사건 등 군 관련 내용
지역	지자체, 지방행정, 지역 이슈 등 관련 내용
경제	금융(은행, 증권, 보험 등), 산업(반도체 등), 부동산 등 경제 관련 내용
법원	재판 결과, 법원 입장, 판사 등 관련 내용
검찰	검찰 수사나 기소, 검사 비리 등 관련 내용
치안	범죄 사실, 경찰 수사 등 관련 내용
사회	화재, 사고, 사건, 참사, 집회, 시위 등 관련 내용
교육	자사고 등 교육정책, 사교육, 수능, 의대 정원 등 교육 관련 내용
노동	파업, 노사협상,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내용
환경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기후 위기 등 관련 내용
보건/질병	질병, 백신, 전공의 사표, 의료 공백 및 대란 등 내용
복지	노인, 청소년, 아동 복지, 연금개혁, 의료개혁, 민생회복지원금 등 관련 내용
젠더	여성 인권, 성소수자 등 관련 내용
방송·문화예술	방송위, 방심위, KBS 등 방송, 공연·전시·관광, 대중문화(연예인) 등 내용
IT, 정보통신	통신(텔레콤), AI, 아이폰(애플), 갤럭시 등 내용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관련 내용
생활	생활정보, 미담, 날씨, 성금 모금, 푸바오, 반려견 등 관련 내용
해외/국제	미 대선, 해외 전쟁, 외신 인용, 특파원 보도, 국제 정세 등 내용
기타	이 외의 아이템으로 분류될 수 있는 내용

(3) 뉴스 아이템 성격

뉴스 아이템 성격이란 한 건의 뉴스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아이템의 성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인 관련 혹은 정치적 쟁점 이슈’와 ‘비정치인 관련 혹은 비정치적 쟁점 이슈’로 구분하였다. ‘정치인 관련 혹은 정치적 쟁점 이슈’는 뉴스 아이템 내용 중 먼저, 정치인이 직·간접적으로 포함되어 2회 이상 언급되는 경우 해당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1회 언급되더라도 뉴스 아이템의 전반적인 성

격이 정치인과 관련되어 있다면 ‘정치인 관련 이슈’로 분류하였다. 다만, 사건이나 사고 등에서 단순히 정치인이 언급되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정치인 관련’에서 정치인의 범위는 대통령실은 대통령부 터 비서관급까지(행정관, 일반직원은 제외)로 설정하였고, 중앙정부는 국무총리, 장관, 검찰총장까지, 지방정부는 지자체장까지로 설정하였다. 국회는 각 당대표, 원내대표,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저명 정당인으로 설정하였다. 실명이 아니라 직책만 언급되어도 정치인 관련 이슈에 포함하였고, 교육감은 정치인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정치적 쟁점 아이템’은 정치인 언급이 없었고, 언급된 인물이 정치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정치적 쟁점이 되는 사회 이슈로 설정하였다. 가령, 정치인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실 관저 공사 의혹이나 의대 정원 문제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정치인 관련 혹은 비정치적 쟁점 이슈’는 ‘정치인 관련 혹은 정치적 쟁점 이슈’에 해당하지 않는 뉴스 아이템 모두를 말한다. 정치인이 등장하는 뉴스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인의 행위나 발언에 쟁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가령, 전기차 화재와 관련한 뉴스에서 방지 대책에 대해 정치인의 코멘트가 단순 인용된 경우가 해당한다. 또한 해외 정치인 관련 보도도 비정치인 이슈에 포함하였다.

(4) 뉴스 아이템 편향성

뉴스 아이템 편향성은 뉴스 아이템 성격이 ‘정치인 관련 혹은 정치적 쟁점 이슈(이하 정치 이슈)’로 분류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뉴스 아이템이 ‘정부/여당/여권’ 또는 ‘야당/야권’에 우호적이거나 유리한지 또는 비판적이거나 불리한지에 대한 판단이다. 뉴스 아이템 편향성을 분석 유목으로 설정한 배경은 의제설정 효과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McComb & Shaw, 1972). 의제설정 효과란 매스미디어가 설정한 의제의 현저성은 공중이 설정한 의제의 현저성과 높은 정적 상관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 매스미디어가 어떤 이슈를 강조하여 보도하면 공중 역시 해당 이슈를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일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인 관련 혹은 정치적 쟁점 이슈’에 대해 YTN이 어떤 아이템을 취사선택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목을 설정하였다.

<표 21> 뉴스 아이템 편향성

구분	예시 내용
정치 이슈로,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에 우호적이거나 유리한 아이템 혹은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야당·야권에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아이템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 경제 성장률 역대 최고, 한미일 동맹 강화 등 외교정책 찬양, 야권 정치인 사법 리스크, 투기 연루 의혹 및 사과, 막말 등
정치 이슈로, 대체로(간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에 우호적이거나 유리한 아이템 혹은 대체로(간접적으로) 야당·야권에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아이템	전 정부 비교 및 비판, 야권의 내부 갈등 등
정치 이슈지만, 정부·여당·여권 또는 야당·야권에 우호적이거나 유리하다고 또는 비판적이거나 불리하다고 분류하기 어려운 아이템	단순 정부 정책 발표, 정당 입장 등
정치 이슈로, 대체로(간접적으로) 야당·야권에 우호적이거나 유리한 아이템 혹은 대체로(간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에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아이템	전 정부 비교 및 옹호, 여권의 내부 갈등 등
정치 이슈로,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야당·야권에 우호적이거나 유리한 아이템 혹은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에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아이템	대통령 지지율 하락, 외교참사, 검찰 공화국, 영부인 리스크, 대통령 막말, 야당 대표 차기 대선 지지율 1위 등
해당사항 없음	비정치인 혹은 비정치적 쟁점 이슈에 해당

(5) 뉴스 내용의 구성방식

뉴스 내용의 구성방식은 기자가 리포트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는가에 관한 유목이다. 기자리포트 내용의 구성방식 분석 유목은 ‘사건설명’, ‘사건설명+분석’, ‘사건설명+객관적 논평’, ‘사건설명+주관적 논평’, ‘기타’로 범주화하였다. 여기서 ‘사건설명’은 아이템에 대한 객관적 사실(육하원칙) 중심의 스트레이트 구성방식을 말한다. 분석은 아이템 관련 이슈의 발생 원인이나 배경, 주요 내용, 전개 과정, 이해관계자나 전문가 입장이나 분석자료,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구성방식을 의미한다. 가령, 검찰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하였을 경우, 검찰이 발표한 사실과 내용만 전달하면 ‘사건설명’에 해당하며, 검찰에서 발표한 사실과 내용 전달에 덧붙여 전문가 인터뷰나 자료제시 등을 통해 원인, 전망 등을 이어가면, ‘분석’으로 판단하였다. ‘객관적 논평’은 아이템 관련 내용의 전개 방향, 예상되는 영향이나 전망, 이해관계자의 태도 전망 등에 대하여 기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추론한 내용을 제시하였을 경우라고 설정하였다. ‘주관적 논평’은 객관적 논평과 유사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특정 사안이나 이해당사자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우호적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일방의 입장만을 추론하여 제시하는 경우라고 설정하였다.

(6) 기자 리포트에서의 취재원 제시 형태

기자리포트에서 취재원은 기자가 다루고자 하는 뉴스 아이템에 대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를 말한다. 취재원의 성격은 기자리포트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취재원 제시 형태에 대한 분석 유목은 크게 ‘투명한 취재원’, ‘익명의 취재원’, ‘취재원 제시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취재원이 다수일 경우 가장 근본적인 자료나 논거를 제시한 취재원(뉴스 발단 제공자) 1명을 대상으로 판단하였으며, ‘취재원 제시 없음’은 취재 영상이나 기자 코멘트에서 취재원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투명한 취재원’은 기자리포트에서 가장 근본적인 자료나 논거를 제시한 주체로서, 성명이나 기관명 등이 명확히 제시되는 취재원을 말한다. 가령, 대통령실 000대변인, 기획재정부 000장관, 국회 “...” 등과 같이 성명이나 기관명을 명확히 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익명의 취재원’이란 기자리포트에서 가장 근본적인 자료나 논거를 제시한 주체로 판단되지만, 성명이나 기관명 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취재원을 의미한다. 가령, ‘정부, ...’, ‘정보당국, ...’, ‘검찰 고위 관계자, ...’, ‘경찰 고위관계자, ...’ 등과 같이 성명이나 기관명을 모호하게 혹은 뭉뚱그려 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국방부 고위 관계자’, ‘검찰 관계자’ 등과 같이 기관명은 명확히 드러나 있으나 관계자라는 표현이 덧붙여져 있는 경우 익명의 취재원으로 간주하였다.

가. 투명한 취재원 유형

투명한 취재원의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적인 유목을 설정하였다. 투명한 취재원이 여러 개일 경우 기자리포트에 가장 근본적인 자료나 논거를 제시한 취재원 1개를 대상으로 분석하며, 이때 기자리포트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자막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표 22> 투명한 취재원 유형

구분	내용
대통령실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등
정부 기관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 기관장 등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의 공무원, 각종 브리핑 등 정책자료, 통계자료(물가, 경제성장률, 실업률 등), 국정감사 응답 등 * 날씨뉴스 정보원은 정부기관(기상청)으로 분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대변인, 소속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
국민의힘	당 대표, 대변인, 소속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
조국혁신당	당 대표, 대변인, 소속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
개혁신당	당 대표, 대변인, 소속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
군소정당	정의당, 진보당 등 위 4개 정당을 제외한 정당 소속 정치인 등
국회	국회의장, 상임위 위원장(그 외는 정당으로 판단)
검찰	검찰총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경찰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각종 사건·사고 등에 관한 취재원은 경찰로 분류)
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이외 법원 등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장, 지자체 공무원 등
전문가	의사, 변호사, 교수 등
해당 방송사 독점취재 자료	자막이나 앵커 브리핑 멘트에 '단독'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경우
해당 방송사 자체분석 자료	심층분석 등 해당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자료
타 국내 언론사 보도	다른 국내 언론사 보도
해외 언론사 보도	CNN, FOX, 뉴욕타임즈 등 해외 언론사 보도
민간 통계자료	여론조사기관, 증권사, 경제연구소 등이 발간한 통계자료
일반인 및 시청자	시청자 인터뷰, SNS 댓글, 블로그, 유튜브, 커뮤니티 등의 자료
시민사회·노동·이익 단체	민주노총, 한국노총, 의사협회 등
외국정부 자료	바이든 대통령 기자회견, 미국 국무부 대변인 브리핑 등 외국정부 및 유관기관 발표자료
해외 민간기관 및 기업체	해외 저명인사, 해외 민간기관(빌보드, 아카데미 등)의 자료
북한 정권·기관지·언론매체 등	김정은 위원장, 조선노동당, 조선중앙TV 등 북한 관련 자료
기업체	삼성, LG, 현대 등 민간기업
국내 문화예술인	연예인, 예술인, 스포츠 선수 등
해외 문화예술인	연예인, 예술인, 스포츠 선수 등
기타	그 외의 투명한 취재원

나. 익명의 취재원 유형

익명의 취재원 유형은 취재원을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유목 설정이 곤란하다. 이에 개별 뉴스 분석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직접 기록하였다.

(7) 뉴스 내용의 초점

뉴스 내용의 초점은 뉴스에서 제시된 내용이 취재 대상의 어느 차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분석 유목은 ‘특정 개인에 초점을 맞춘 내용(윤석열, 이재명, 조국, 등)’, ‘특정 집단이나 단체에 초점을 맞춘 내용(정부 부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검찰, 의사협회 등)’, ‘특정 쟁점에 초점을 맞춘 내용(의료대란, 명태균 게이트, 사도광산 등)’, ‘사회 일반에 초점을 맞춘 내용(국민, 시청자, 유권자 등)’, ‘해당사항 없음(비정치 이슈)’으로 설정하였다.

(8) 뉴스 내용의 편향성

‘정치 이슈’에 한정하여 뉴스 내용이 편향성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에 우호적이거나 유리한 코멘트 혹은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야당·야권에 비판적인 코멘트’, ‘대체로(간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에 우호적이거나 유리한 코멘트 혹은 대체로(간접적으로) 야당·야권에 비판적인 코멘트’, ‘정부·여당·여권 또는 야당·야권에 우호적이거나 유리하다고 분류하기 어려운 코멘트’, ‘대체로(간접적으로) 야당·야권에 우호적이거나 유리한 코멘트 혹은 대체로(간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에 비판적인 코멘트’,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야당·야권에 우호적이거나 유리한 코멘트 혹은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정부·야당·야권에 비판적인 코멘트’로 범주화하였다. 뉴스 내용의 편향성은 기자 리포트나 현장 연결 등 뉴스 내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으며, 리포트하는 기자가 직접 편향성을 드러내기보다는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정치인이나 전문가의 코멘트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편향성을 드러내는 경우, 기자 리포트 내용 전반을 고려하여 ‘대체로(간접적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2)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분석 대상인 YTN의 <뉴스 NIGHT>와 <뉴스와이드> 등은 거의 모든 분석 해당 일자에 외부인을 스튜디오에 초청하여 앵커와 함께 대담을 진행하는 방식을 구성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뉴스 NIGHT>의 ‘포커스 NIGHT’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이슈를 주제로 논의하며 다소 차이가 있지만 약 20-30분 동안 진행된다. 이에 앞선 ‘일상적 보도행태 분석을 위한 유목’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음과 같은 유목을 설정하였다.

(1) 출연자 수

먼저, 대담은 YTN 자사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출연하기 때문에 그 수를 파악하였다. 유목은 ‘1명’, ‘2명’, ‘3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2) 외부 출연자 유형

외부 출연자는 논의 주제와 관련하여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기도 하고, 특정 입장을 대변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어떤 출연자가 등장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외부 출연자의 유형은 출연자의 소속을 판단하는 것이다. 외부 출연자는 대통령·비서실장·정책실장·수석 등 소속인 ‘대통령실’, 국무총리 및 장관, 기관장, 소속 공무원 등은 ‘정부 기관’, 각 정당 대표와 소속 의원 및 당직자는 각 정당으로 표시하였다. 다만, 더불어 민주당, 국민희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4개 정당을 제외한 정의당, 진보당 등은 ‘군소 정당’으로 상정하였다. 교수·의사·변호사 등은 ‘전문가’의 영역으로 분류되며, 민주노총·한국노총·의사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 및 기자협회 등은 ‘시민사회·노동·이익단체’로 설정하였다.

외부 출연자는 대부분 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2인에 대한 성격만 파악하였고, 3명 이상 일 경우, 발언량이 가장 많은 2명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의 표와 같이 분류하였는데,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정당 소속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적용하였다.

<표 23> 외부 출연자 유형

구분	내용
대통령실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등
정부 기관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 기관장 등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의 공무원 등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대변인, 소속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
국민의힘	당 대표, 대변인, 소속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
조국혁신당	당 대표, 대변인, 소속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
개혁신당	당 대표, 대변인, 소속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
군소정당	정의당, 진보당 등 위 4개 정당을 제외한 정당 소속 정치인 등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장, 지자체 공무원 등
전문가	의사, 변호사, 교수 등
타 언론사	전·현직 타 언론사 소속(자사 기자는 제외) 인물 등
시민사회·노동·이익 단체	민주노총, 한국노총, 의사협회 인물 등
시청자 및 일반인	특정 소속이 없는 일반인 등
문화예술인, 스포츠 선수	연예인, 프로 야구 선수, 유튜버 등
기타	그 외의 출연자

(3) 외부인 초청 대담 아이템 수

아이템 수는 외부인을 초청하여 대담을 나누는 주제의 수를 의미한다. 하나로 간주할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해 여러 관점 또는 여러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논의하는 경우, 하나의 아이템으로 간주하였다. 가령, 의료대란 문제를 논의하면서 여권, 야권 등 정치권의 입장을 논의할 경우, 의료대란 아이템(보건, 질병 등) 하나로 보았다.

(4) 대담 아이템 유형 분류

대담 아이템도 앞선 뉴스 아이템과 동일하게 ‘국내 정치’, ‘선거 일반’, ‘22대 총선’, ‘중앙행정’, ‘외교’, ‘북한(통일)’, ‘국방’, ‘지역’ 등 25개로 대담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나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대담 아이템은 4개 이상으로 분류되더라도 세 번째 논의하는 아이템까지만 코딩하였다.

(5) 대담 아이템의 성격

외부인을 초청하여 나누는 대담의 아이템은 ‘논쟁적 이슈로 정치적 아이템’과 ‘논쟁적 이슈로 유사 정치적 아이템’, ‘비논쟁적 이슈’로 분류하였다. ‘논쟁적 이슈로 정치적 아이템’은 정치 이슈로 정부·여권과 야권 혹은 의혹 제기자와 의혹 당사자 등과 같이 이해당사자가 명확히 분화되어 서로 갈

등이나 대립이 존재하는 아이템을 의미한다. 가령, 선거와 대통령·영부인 의혹 및 특검, 야당 대표 기소 및 재판 등이 해당한다. ‘논쟁적 이슈로 유사 정치적 아이템’은 아이템 자체는 정치적 성격이 적으나, 이해당사자 간 견해가 달라 갈등이나 대립이 존재하며 정치권으로 확대된 아이템을 말한다. ‘비 논쟁적 이슈’는 비정치적 아이템으로 사건이나 사고, 사회문제 등을 의미한다. 대담 아이템의 성격도 세 번째 논의하는 아이템까지만 코딩하였다.

(6) 대담 아이템 선정의 편향성

대담 아이템 선정의 편향성은 앞선 뉴스 아이템 편향성과 동일하게 논쟁적 이슈에 한정하여 해당 대담 아이템이 ‘정부·여당·여권’ 또는 ‘야당·야권’에 우호적이거나 유리한지 또는 비판적이거나 불리한지에 대한 판단이다. 대담 아이템 선정의 편향성도 세 번째 논의하는 아이템까지만 코딩하였다.

3)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보도에 대한 분석

선거 보도는 유권자가 공직 후보자들을 선택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로 다른 정치적·정책적 입장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 중, 어떤 인물이 공직에 적합한가를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데 주요 근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시행되었고, 이를 앞두고 국내 각 정당은 당내 공천 과정을 거쳐 각 지역구 후보를 선출하였다. 선거 결과 야권이 192석, 여당이 108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올해 선거가 시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YTN 뉴스가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어떻게 보도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분석은 22대 총선 보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선거 아이템 분류, 시간적 배분의 편향성, 뉴스 내용의 편향성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1) 22대 총선 관련 아이템 여부

22대 총선 관련 아이템 여부는 앞선 ‘일상적 보도행태 분석을 위한 유목’ 중 ‘뉴스 아이템’에서 ‘22대 총선’으로 분류된 아이템에 한정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분석을 위해 다음의 유목으로 별도 분석하였다.

(2) 22대 총선 관련 아이템 유형

분석 대상 뉴스가 22대 총선 관련 아이템일 경우, 해당 뉴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 유목은 ‘선거판세 분석’, ‘선거전략 분석’, ‘인물분석’, ‘선거유세 스케치’, ‘(예비)후보자 자체

논란’, ‘정책·공약 분석’, ‘투표·개표 현황 및 결과’, ‘선거 일반’, ‘공천갈등’, ‘TV토론’, ‘기타’ 등 11개로 범주화 하였다.

<표 24> 22대 총선 뉴스 아이템 유형

구분	내용
선거판세 분석	여론조사, 지지성향 및 지지율 분석, 전문가 분석 등
선거전략 분석	당대표(당직자) 지역이나 단체 방문 및 발언(유권자 소수), 당 선관위 구성, 경선결과, 상대 당 과거 비판, 문재인·박근혜 등 전 대통령 등판 등
인물 분석	정당별 출마 예상자, (예비)후보자 이력 등 인물 중심 분석
(예비)후보자 자체 논란	(예비)후보자 막말 등 발언, 부동산 거래, 증여 논란 등
선거유세 스케치	당대표, 후보, 당직자 등 선거유세 현장 모습(유권자 다수), 유세 현장 후보자 및 유권자 인터뷰 등
정책·공약 분석	정당·후보자별 주요 정책(공약) 소개, 여야 정책(공약) 비교분석 등
투표·개표 현황 및 결과	선거구별 투표 및 개표현황, 선거 결과 및 분석 등
선거 일반	선거구·선거법 관련, 선거 의미, 선거일정, 투표 독려, 중앙선관위 관련 등
공천 과정	당내 공천 갈등, 불복 선언 혹은 불복 후 출마 예상 등
TV 토론	후보자 본선·경선 TV토론, 토론 발언 분석 등
기타	이 외의 아이템으로 분류될 수 있는 내용

(3) 시간적 배분의 편향성

뉴스가 선거 관련 아이템일 경우, 뉴스 내용이 시간적으로 어느 정당에 더 많은 시간을 배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 유목은 ‘여당·여권에 많은 시간 할애(당해 아이템 보도시간의 70% 이상)’, ‘야당·야권에 많은 시간 할애(당해 아이템 보도시간의 70% 이상)’, ‘여당·야당에 균형적으로 시간 배분(당해 아이템 보도시간의 50%씩 배분)’, ‘군소정당에 많은 시간 할애(당해 아이템 보도시간의 70% 이상)’, ‘중립적·객관적 내용에 많은 시간 할애(당해 아이템 보도시간의 70% 이상)’, ‘기타’로 분류하였다.

(4) 뉴스 내용의 편향성

뉴스가 선거 관련 아이템일 경우, 뉴스 내용의 편향성에 대한 분석 유목은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여당·여권에 우호적이거나 유리한 내용 혹은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야당·야권에 비판적인 내용’, ‘대

체로(간접적으로) 여당·여권에 우호적이거나 유리한 내용 혹은 대체로(간접적으로) 야당·야권에 비판적인 내용’, ‘여당·야권 또는 야당·야권에 우호적이거나 유리하다고 분류하기 어려운 내용’, ‘대체로(간접적으로) 야당·야권에 우호적이거나 유리한 내용 혹은 대체로(간접적으로) 여당·여권에 비판적인 내용’,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야당·야권에 우호적이거나 유리한 내용 혹은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야당·야권에 비판적인 내용’으로 범주화하였다.

4. 코더 교육 및 코더 간 신뢰도(inter-coder reliability)

본 연구의 내용분석을 위한 코더는 언론학 전공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3명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내용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코더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한 작업으로 코더들에게 연구 목적과 분석 유목의 개념 등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측정 방법을 정리한 코딩 북을 배포한 후, 코딩을 위한 사전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는 연습 코딩을 통해 의견 차이가 발생할 때마다 대면 및 비대면으로 수시 진행하였고, 연구진과 코더들의 상호 토론을 거쳐 견해 차이를 좁혀 나갔다. 이후, 최종적으로 신뢰도 검증을 위해 코더 3명이 동일한 날짜의 분석 대상 뉴스 보도 3일 치 각 132건(전체 보도 수 1,267건의 10.4%)을 코딩하였으며, 검증 결과 신뢰도는 88.22%로 도출되었다.

5. 분석대상

1) 프로그램별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YTN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NIGHT>, <YTN24>(4월)과 토·일 주말의 <뉴스와이드>, <YTN24>(4월)이다. 또한 이들 뉴스 프로그램에서 등장한 각각의 기자 리포트가 기본 분석단위이다. 따라서 주중(월-금) 뉴스 프로그램의 보도 건수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중 <뉴스NIGHT>가 543건(42.9%), <YTN24> 411건(32.4%), 주말 <뉴스와이드> 206건(16.3%), <YTN24> 107건(8.4%)으로 총 1,267건(100.0%)이었다.

<표 25> 프로그램 별 보도 수(단위: 건, %)

프로그램 명	빈도	비율
뉴스NIGHT	543	42.9
YTN24(주중,4월)	411	32.4
뉴스와이드	206	16.3
YTN24(주말,4월)	107	8.4
합계	1267	100.0

다만, 주중 <뉴스NIGHT>와 <YTN24>, 주말 <뉴스와이드>와 <YTN24>는 시기에 따라 프로그램 명과 시작 시간의 변동이 있을 뿐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편의상 주중 프로그램은 <뉴스NIGHT>로, 주말 프로그램은 <뉴스와이드>로 통합하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월별

<뉴스NIGHT>의 전체 보도 수는 954건이었으며, <뉴스와이드>는 313건이었다. 월별 분석대상을 살펴보면, 2월 <뉴스NIGHT>의 보도 건수는 208건(21.8%), <뉴스와이드>가 70건(22.4%)이었으며, 8월은 각각 168건(17.6%), 58건(18.5%), 11월 167건(17.5%), 78건(24.9%)으로 나타났다. 4월에는 <뉴스NIGHT>가 411건(43.1%), <뉴스와이드> 107건(34.2%)이었었는데, 이는 4월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분석 기간을 2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표 26> 월별 분석대상 보도 수(단위: 건, %)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2월	208	70	278
	21.8%	22.4%	21.9%
4월	411	107	518
	43.1%	34.2%	40.9%
8월	168	58	226
	17.6%	18.5%	17.8%
11월	167	78	245
	17.5%	24.9%	19.3%
전체	954	313	1267
	100.0%	100.0%	100.0%

3) 프로그램 별 뉴스 제시 방식

분석대상 YTN 뉴스의 내용 제시방식을 살펴본 결과, 앵커가 리포트 소개 후 기자가 사전에 제작한 영상과 코멘트를 제시하는 형태인 ‘기자 리포트 패키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1,267건의 보도 가운데, 59.9%인 759건이 여기에 해당했으며, 프로그램 별로도 ‘기자 리포트 패키지’ 방식의 구성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뉴스NIGHT>의 경우, 전체 954건 중 59.2%인 565건이 기자 리포트 패키지였으며, <뉴스와이드>는 62.0%인 194건이었다. 다음으로는 ‘단신’이 전체 1267건 중 36.2%인 459건이었으며, 프로그램 별로는 <뉴스NIGHT> 355건(37.2%), <뉴스와이드> 104건(33.2%)로 나타났다. ‘외부인 초청 대담’은 <뉴스NIGHT> 전체 954건 중 2.8%인 27건, <뉴스와이드> 3.2%인 10건이었다. ‘기타’는 전화 연결로 뉴스 하나를 구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표 27> 프로그램별 뉴스 제시 방식(단위: 건, %)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기자 리포트 패키지	565	194	759
	59.2%	62.0%	59.9%
(기자)현장 연결	6	5	11
	0.6%	1.6%	0.9%
단신	355	104	459
	37.2%	33.2%	36.2%
외부인 초청 대담	27	10	37
	2.8%	3.2%	2.9%
기타	1	0	1
	0.1%	0.0%	0.1%
전체	954	313	1267
	100.0%	100.0%	100.0%

IV. 뉴스 프로그램 분석 결과

1. 뉴스 일반 보도

본 연구의 코딩 작업에서는 앞선 뉴스 제시 방식에서 ‘외부인 초청 대담(총 37건)’을 별도의 코딩 북을 설정하여 코딩하였다. ‘외부인 초청 대담’은 앵커가 스튜디오에 외부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약 20-30분 간 대담을 나누는 형식으로 일반적인 뉴스 리포트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제외한 일반적인 뉴스 보도의 아이템과 관련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뉴스 아이템

(1) 뉴스 아이템 유형

분석대상 YTN 뉴스 전체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아이템은 미국 대선, 해외 전쟁 및 분쟁, 국제 정세 등 ‘해외/국제’ 관련 아이템이었다. 뉴스 제시 방식 가운데 ‘외부인 초청 대담’을 제외한 총 1,230건 중 14.6%인 179건이 여기에 해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건·사고, 참사, 화재, 재난 등 ‘사회’ 관련 아이템이 11.5%인 141건, ‘22대 총선’ 관련 아이템이 11.1%인 137건, ‘경제’가 10.2%인 126건, ‘국내 정치’ 7.6%인 9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별로 살펴보면 다소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데, <뉴스NIGHT>는 총 927건의 보도 가운데, ‘22대 총선’ 관련 뉴스가 12.9%인 12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해외/국제’ 관련 뉴스가 12.1%인 112건이었고, ‘경제’가 11.7%인 108건, ‘사회’가 10.6%인 98건, ‘국내 정치’ 7.8%인 72건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뉴스와이드>는 총 303건의 보도 중, ‘해외/국제’ 관련 뉴스가 22.1%인 67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다음으로 ‘사회’ 관련 뉴스가 14.2%인 43건, ‘국내 정치’ 7.3%인 22건, ‘경제’가 5.9%인 18건, ‘22대 총선’이 5.6%인 1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8> YTN 뉴스 아이템 유형(단위: 건, %)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국내 정치	72	22	94
	7.8%	7.3%	7.6%
선거 일반	2	0	2
	0.2%	0.0%	0.2%
22대 총선	120	17	137
	12.9%	5.6%	11.1%
중앙행정	48	14	62
	5.2%	4.6%	5.0%
외교	12	6	18

	1.3%	2.0%	1.5%
북한(통일)	28	16	44
	3.0%	5.3%	3.6%
국방	12	4	16
	1.3%	1.3%	1.3%
지역	17	8	25
	1.8%	2.6%	2.0%
경제	108	18	126
	11.7%	5.9%	10.2%
사법	41	4	45
	4.4%	1.3%	3.7%
검찰	33	4	37
	3.6%	1.3%	3.0%
치안	32	7	39
	3.5%	2.3%	3.2%
사회	98	43	141
	10.6%	14.2%	11.5%
교육	36	11	47
	3.9%	3.6%	3.8%
노동	6	0	6
	0.6%	0.0%	0.5%
환경	4	2	6
	0.4%	0.7%	0.5%
보건/질병	33	10	43
	3.6%	3.3%	3.5%
복지	8	3	11
	0.9%	1.0%	0.9%
방송·문화예술	20	12	32
	2.2%	4.0%	2.6%
IT·정보통신	5	1	6
	0.5%	0.3%	0.5%
스포츠	26	9	35
	2.8%	3.0%	2.8%
생활	53	25	78
	5.7%	8.3%	6.3%
해외/국제	112	67	179
	12.1%	22.1%	14.6%
기타	1	0	1
	0.1%	0.0%	0.1%
전체	927	303	1230
	100.0%	100.0%	100.0%

이를 방송 월별로 살펴보면, ‘해외/국제’ 관련 뉴스는 2월, 4월, 8월, 11월 등 분석대상 해당 월에 각각 37건, 76건(2주), 32건, 34건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 대선과 경선 및 트럼프 후보의 피습 등이 있었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등 중동 분쟁 소식 등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 관련 이슈도 분석 대상 월에 고루 많이 다루어졌고, ‘22대 총선’ 아이টে은 총선이 있었던 4월에 급증하는 모습을 보인다. ‘국내 정치’ 이슈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8월은 광복절 행사 논란과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이 있었던 시기가
기도 하다.

<표 29> 월별 YTN 뉴스 아이템(단위: 건, %)

구분	2월	4월	8월	11월	전체
국내정치	11	20	36	27	94
	4.1%	4.0%	16.4%	11.4%	7.6%
선거 일반	1	0	0	1	2
	0.4%	0.0%	0.0%	0.4%	0.2%
22대 총선	27	110	0	0	137
	10.0%	21.8%	0.0%	0.0%	11.1%
중앙행정	20	14	12	16	62
	7.4%	2.8%	5.5%	6.8%	5.0%
외교	4	10	1	3	18
	1.5%	2.0%	.5%	1.3%	1.5%
북한(통일)	8	10	5	21	44
	3.0%	2.0%	2.3%	8.9%	3.6%
국방	1	12	2	1	16
	0.4%	2.4%	0.9%	0.4%	1.3%
지역	5	8	5	7	25
	1.8%	1.6%	2.3%	3.0%	2.0%
경제	24	61	22	19	126
	8.9%	12.1%	10.0%	8.1%	10.2%
사법	8	16	10	11	45
	3.0%	3.2%	4.6%	4.7%	3.7%
검찰	7	5	14	11	37
	2.6%	1.0%	6.4%	4.7%	3.0%
치안	11	4	2	22	39
	4.1%	0.8%	0.9%	9.3%	3.2%
사회	24	63	26	28	141
	8.9%	12.5%	11.9%	11.9%	11.5%
교육	16	25	0	6	47
	5.9%	5.0%	0.0%	2.5%	3.8%
노동	1	2	2	1	6
	0.4%	0.4%	0.9%	0.4%	0.5%
환경	0	3	2	1	6
	0.0%	0.6%	0.9%	0.4%	0.5%
보건/질병	15	14	7	7	43
	5.5%	2.8%	3.2%	3.0%	3.5%
복지	4	3	0	4	11
	1.5%	0.6%	0.0%	1.7%	0.9%
방송,문화예술	6	11	10	5	32
	2.2%	2.2%	4.6%	2.1%	2.6%
IT, 정보통신	1	3	0	2	6
	0.4%	0.6%	0.0%	0.8%	0.5%
스포츠	19	7	9	0	35
	7.0%	1.4%	4.1%	0.0%	2.8%
생활	21	27	21	9	78
	7.7%	5.4%	9.6%	3.8%	6.3%

해외/국제	37	76	32	34	179
	13.7%	15.1%	14.6%	14.4%	14.6%
기타	0	0	1	0	1
	0.0%	0.0%	0.5%	0.0%	0.1%
전체	271	504	219	236	1230
	100.0%	100.0%	100.0%	100.0%	100.0%

여기에서 위 표의 아이템 유형 중 '22대 총선' 관련한 아이템(137건)도 별도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선거 보도는 2024년 4월 10일 시행된 22대 총선 관련 보도로 선거라는 특수한 시기적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적 시기의 보도와는 다른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후부터 제시되는 결과는 '외부인 초청 대담' 37건과 '22대 총선' 아이템 137건이 제외된 뉴스 일반 보도(1,093건) 분석의 결과이다. '외부인 초청 대담'과 '22대 총선' 아이템은 별도의 챕터로 구성되어 결과를 제시하였다.

(2) 뉴스 아이템 성격

뉴스 아이템 성격은 한 건의 뉴스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아이템의 성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이는 '정치인 혹은 정치적 쟁점 이슈'와 '비정치인 혹은 비정치적 쟁점 이슈'로 구분하였는데, '비정치인 혹은 비정치적 쟁점 이슈'가 더 많이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093건의 보도 가운데, 여기에 해당하는 보도는 86.0%인 940건이었고, '정치인 혹은 정치적 쟁점 이슈'는 14.0%인 153건이었다.

뉴스 프로그램 별로는 <뉴스NIGHT>의 경우, '비정치인 혹은 비정치적 쟁점 이슈'가 총 807건 중 85.9%인 693건으로 나타났고, '정치인 혹은 정치적 쟁점 이슈'는 14.1%인 114건이었다. <뉴스와이드>는 '비정치인 혹은 비정치적 쟁점 이슈'가 86.4%인 247건이었고, '정치인 혹은 정치적 쟁점 이슈'가 13.6%인 39건으로 조사되었다.

<표 30> 뉴스 아이템 성격(단위: 건, %)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정치인 혹은 정치적 쟁점 이슈	114	39	153
	14.1%	13.6%	14.0%
비정치인 혹은 비정치적 쟁점 이슈	693	247	940
	85.9%	86.4%	86.0%
전체	807	286	1093
	100.0%	100.0%	100.0%

뉴스 제시 방식에 따른 뉴스 아이템의 성격은 '정치인 혹은 정치적 쟁점 이슈'의 경우, '기자 리

포트 패키지'가 74.5%인 114건이었고, '단신'이 25.5%인 39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정치인 혹은 비정치적 쟁점 이슈'도 '기자 리포트 패키지'가 59.7%인 561건이었으며 '단신' 39.3%인 369건, '(기자)현장 연결' 1.0%인 9건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31> 뉴스 제시 방식별 뉴스 아이템 성격(단위: 건, %)

구분	정치인 혹은 정치적 쟁점 이슈	비정치인 혹은 비정치적 쟁점 이슈	전체
기자 리포트패키	114	561	675
	74.5%	59.7%	61.8%
(기자)현장연결	0	9	9
	0.0%	1.0%	.8%
단신	39	369	408
	25.5%	39.3%	37.3%
기타	0	1	1
	0.0%	0.1%	0.1%
전체	153	940	1093
	100.0%	100.0%	100.0%

(3) 뉴스 아이템 편향성

뉴스 아이템 편향성은 '정치인 혹은 정치적 쟁점 이슈'를 다룬 뉴스 가운데, 정부·여당·여권이나 야당·야권 등에 대한 우호적/비판적이거나 유/불리 등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총 1,093건의 보도 가운데 '비정치인 혹은 비정치적 쟁점 이슈' 940건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하였고, 이를 제외한 '정치인 혹은 정치적 쟁점 이슈' 153건을 분류하면, '분류 어려움'이 6.4%인 70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야당·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당·여권 비판적'인 아이템은 3.2%인 35건,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 우호적 혹은 야당·야권 비판적'인 아이템은 2.5%인 27건, '대체로(간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 우호적 혹은 야당·야권 비판적'인 아이템 1.3%인 14건, '대체로(간접적으로) 야당·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당·여권 비판적'인 아이템 0.6%인 7건 등의 순이었다.

'분류 어려움'에 해당하는 아이템 사례는 영수회담 및 여·야 회담, 각 정당 동정, 정부 인사, 비쟁점 법안이나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야당·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당·여권 비판적'인 아이템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나 김건희 여사 논란 및 특검, 채해병 특검, 정부의 친일 논란 등에 해당한다. 또한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 우호적 혹은 야당·야권 비판적'인 아이템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전)민주당 소속 지자체 의원 범죄 혐의 등이다. '대체로(간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 우호적 혹은 야당·야권 비판적'인 아이템은 대

통령 특별 사면, 박근혜 전 대통령 북 콘서트 개최, 대통령 소외계층 방문 등이며, ‘대체로(간접적으로) 야당·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당·여권 비판적’인 아이탬은 국민의힘 친윤 급부상, 대통령 일정 돌연 연기, 민주당 전당대회 등이 해당한다.

<표 32> 뉴스 아이탬 편향성(단위: 건, %)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 우호적 혹은 야당·야권 비판적	13	14	27
	1.6%	4.9%	2.5%
대체로(간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 우호적 혹은 야당·야권 비판적	12	2	14
	1.5%	0.7%	1.3%
분류 어려움	55	15	70
	6.8%	5.2%	6.4%
대체로(간접적으로) 야당·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당·여권 비판적	6	1	7
	0.7%	0.3%	0.6%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야당·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당·여권 비판적	28	7	35
	3.5%	2.4%	3.2%
해당사항 없음	693	247	940
	85.9%	86.4%	86.0%
전체	807	286	1093
	100.0%	100.0%	100.0%

이를 뉴스 제시 방식별로 살펴보면, ‘기자 리포트 패키지’는 ‘해당사항 없음’을 제외하고 ‘분류 어려움’이 7.3%인 49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야당·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당·여권 비판적’인 아이탬이 4.4%인 30건이었다. 다음으로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 우호적 혹은 야당·야권 비판적’인 아이탬은 3.0%인 20건, ‘대체로(간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 우호적 혹은 야당·야권 비판적’ 아이탬 1.3%인 9건, ‘대체로(간접적으로) 야당·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당·여권 비판적’인 아이탬 0.9%인 6건의 순이었다. ‘단신’ 역시 ‘분류 어려움’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가운데,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 우호적 혹은 야당·야권 비판적’인 아이탬이 1.7%인 7건이었다. ‘대체로(간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 우호적 혹은 야당·야권 비판적’ 아이탬과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야당·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당·여권 비판적’인 아이탬은 각각 1.2%인 5건으로 조사되었다.

<표 33> 뉴스 제시 방식별 아이템 편향성(단위: 건, %)

구분	기자 리포트 패키지	(기자)현장 연결	단신	기타	전체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 우호적 혹은 야당·야권 비판적	20	0	7	0	27
	3.0%	0.0%	1.7%	0.0%	2.5%
대체로(간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 우호적 혹은 야당·야권 비판적	9	0	5	0	14
	1.3%	0.0%	1.2%	0.0%	1.3%
분류 어려움	49	0	21	0	70
	7.3%	0.0%	5.1%	0.0%	6.4%
대체로(간접적으로) 야당·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당·여권 비판적	6	0	1	0	7
	0.9%	0.0%	0.2%	0.0%	0.6%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야당·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당·여권 비판적	30	0	5	0	35
	4.4%	0.0%	1.2%	0.0%	3.2%
해당사항 없음	561	9	369	1	940
	83.1%	100.0%	90.4%	100.0%	86.0%
전체	675	9	408	1	1093
	100.0%	100.0%	100.0%	100.0%	100.0%

2) 뉴스 내용

(1) 뉴스 내용 구성 방식

분석대상 YTN 뉴스의 내용 구성방식을 분석한 결과는 총 1,093건의 보도 가운데, 뉴스 아이템에 대한 객관적 사실 중심의 스트레이트성 리포트에 해당하는 ‘사건설명’이 59.7%인 652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다음으로 ‘사건설명+분석+객관적 논평’에 해당하는 보도가 25.4%인 278건이었고, ‘사건설명+분석’이 12.5%인 135건, ‘사건설명+분석+주관적 논평’은 2.6%인 28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더라도, <뉴스NIGHT>와 <뉴스와이드>에서 ‘사건설명’이 각각 55% 이상으로 절반 이상의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사건설명+분석+주관적 논평’이 4% 미만으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34> 뉴스 내용의 구성방식(단위: 건, %)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사건설명	490	162	652
	60.7%	56.6%	59.7%
사건설명+분석	101	34	135
	12.5%	11.9%	12.4%
사건설명+분석+객관적 논평	197	81	278
	24.4%	28.3%	25.4%
사건설명+분석+주관적 논평	19	9	28
	2.4%	3.1%	2.6%
전체	807	286	1093
	100.0%	100.0%	100.0%

(2) 취재원 제시 형태

취재원은 뉴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이템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인물, 기관 등을 의미한다. 뉴스 과정에서 취재원을 명확히 밝힐 경우, 뉴스 내용은 비교적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시청자는 해당 뉴스를 사실로 믿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분석대상 YTN 뉴스의 취재원 제시 형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YTN 뉴스는 취재원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투명한 취재원’을 제시한 형태가 총 1,093건의 보도 가운데, 85.5%인 934건으로 매우 높은 비율이었다. <뉴스NIGHT>도 807건의 보도 중 700건(86.7%), <뉴스와이드>도 286건의 보도 중 234건(81.8%)에서 ‘투명한 취재원’ 제시 형태를 나타내 대부분의 보도에서 취재원을 명확히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익명의 취재원’을 활용한 경우는

5.8%에 불과했으며, 취재원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8.8%로 모두 10% 미만이었다.

<표 35> 취재원 제시 형태(단위: 건, %)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투명한 취재원	700	234	934
	86.7%	81.8%	85.5%
익명의 취재원	45	18	63
	5.6%	6.3%	5.8%
취재원 제시없음	62	34	96
	7.7%	11.9%	8.8%
전체	807	286	1093
	100.0%	100.0%	100.0%

(3) 취재원 유형

앞선 분석 결과에서는 취재원을 크게 투명한 취재원과 익명의 취재원으로 구분한 바 있는데, ‘투명한 취재원’은 기관명, 성명 등 취재원을 명확히 제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 ‘익명의 취재원’은 기관명, 성명 등을 모호하게 또는 뭉뚱그려 제시함으로써 취재원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이에 ‘투명한 취재원’으로 분류된 뉴스 934건을 대상으로 어떤 취재원을 활용하고 있는가를 분석 유목에 따라 27개로 분류하여 그 유형을 살펴보았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취재원은 정부 부처, 산하기관 등에 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 총 934건 중 25.4%인 237건에서 등장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13.3%인 124건에서 ‘해외 언론사’가 취재원으로 제시되었으며, 11.6%인 108건에서 ‘경찰’, ‘시민사회·노동·이익단체’ 5.9%인 55건, ‘더불어민주당’ 4.6%인 43건, ‘검찰’ 4.5%인 4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뉴스NIGHT>와 <뉴스와이드> 등 프로그램별로는 다소 양상이 다른 상황이다. <뉴스NIGHT>는 전체적인 경향과 동일하게 ‘정부기관’을 취재원으로 활용한 보도가 총 700건 중 28.4%인 199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취재원은 ‘해외언론사’로 11.6%(81건)에 달한다. 반면, <뉴스와이드>의 경우, 총 234건의 보도 가운데 가장 많은 18.4%인 43건에서 ‘해외언론사’를 취재원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정부기관’이 16.2%(38건)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의 경우는 IOC, 특정 중·고교 등이 해당한다.

<표 36> 투명한 취재원 유형(단위: 건, %)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대통령실	29	10	39
	4.1%	4.3%	4.2%

정부 기관	199	38	237
	28.4%	16.2%	25.4%
민주당	33	10	43
	4.7%	4.3%	4.6%
국민의힘	21	7	28
	3.0%	3.0%	3.0%
조국혁신당	1	1	2
	0.1%	0.4%	0.2%
개혁신당	1	0	1
	0.1%	0.0%	0.1%
국회	5	0	5
	0.7%	0.0%	0.5%
검찰	36	6	42
	5.1%	2.6%	4.5%
경찰	76	32	108
	10.9%	13.7%	11.6%
사법부	45	6	51
	6.4%	2.6%	5.5%
지자체	23	9	32
	3.3%	3.8%	3.4%
전문가	5	1	6
	0.7%	0.4%	0.6%
독점취재	5	0	5
	0.7%	0.0%	0.5%
자체분석	6	8	14
	0.9%	3.4%	1.5%
국내 타언론사	1	0	1
	0.1%	0.0%	0.1%
해외언론사	81	43	124
	11.6%	18.4%	13.3%
민간통계자료	6	4	10
	0.9%	1.7%	1.1%
일반인 및 시청자	19	15	34
	2.7%	6.4%	3.6%
시민사회·노동·이익단체	40	15	55
	5.7%	6.4%	5.9%
외국정부 자료	11	10	21
	1.6%	4.3%	2.2%
해외 민간기관	7	3	10
	1.0%	1.3%	1.1%
북한정권/기관지/언론매체	8	2	10
	1.1%	0.9%	1.1%

기업체	20	5	25
	2.9%	2.1%	2.7%
국내문화예술인	20	8	28
	2.9%	3.4%	3.0%
해외문화예술인	1	0	1
	0.1%	0.0%	0.1%
기타	1	1	2
	0.1%	0.4%	0.2%
전체	700	234	934
	100.0%	100.0%	100.0%

(4) 뉴스 내용의 초점

뉴스 내용의 구성 차원을 살펴보면, 총 1,093건의 보도 가운데 63.6%인 695건이 사회 일반에 초점을 맞춘 내용인 ‘사회일반 초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특정 쟁점 초점’이 13.3%인 145건이었고, ‘특정 개인 초점’ 12.5%인 137건, ‘특정 집단/단체 초점’ 10.6%인 116건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프로그램 별로는 <뉴스NIGHT>의 경우 전체적인 경향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뉴스와이드>는 특정 쟁점에 초점을 맞춘 내용보다는 특정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한 뉴스 보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뉴스 내용의 구성 차원(단위: 건, %)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특정 개인 초점	101	36	137
	12.5%	12.6%	12.5%
특정 집단/단체 초점	83	33	116
	10.3%	11.5%	10.6%
특정 쟁점 초점	121	24	145
	15.0%	8.4%	13.3%
사회일반 초점	502	193	695
	62.2%	67.5%	63.6%
전체	807	286	1093
	100.0%	100.0%	100.0%

(5) 뉴스 내용의 편향성

‘정치인 혹은 정치적 쟁점 이슈’를 다룬 뉴스를 대상으로 내용의 편향성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편향성을 분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총 1,093건의 보도 가운데, ‘정치인 혹은 정치적 쟁점 이슈’가 아닌 ‘비정치인 혹은 비정치적 쟁점 이슈’는 940건이었고, 편향성에 대해 ‘분류 어려움’으로 판단된 보도는 142건이었다. 실제, 뉴스 내용의 편향성은 1개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정부·여권이나 야권에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유/불리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1개의 보도 내에서 정부·여권과 야권, 주장과 반론, 공격과 방어 등을 대부분 동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체로(간접적으로) 야당·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당·여권 비판적’인 뉴스는 6건, ‘대체로(간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 우호적 혹은 야당·야권 비판적’인 뉴스는 5건으로 조사되어 정치적 편향에 대해 비교적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체로(간접적으로) 야당·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당·여권 비판적’인 뉴스 내용의 사례는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한 내용이 대표적인데, 뉴스 아이템 상으로는 분명하게 정부·여권에 비판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뉴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특검에 대한 반대 입장도 일부(소수) 들어있기 때문에 대체로(간접적으로) 정부·여권 비판적인 내용으로 보았다. ‘대체로(간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 우호적 혹은 야당·야권 비판적’인 뉴스의 사례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련 내용이 대표적이다.

<표 38> 뉴스 내용의 편향성(단위: 건, %)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대체로(간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 우호적 혹은 야당·야권 비판적	5	0	5
	0.6%	0.0%	0.5%
분류 어려움	103	39	142
	12.8%	13.6%	13.0%
대체로(간접적으로) 야당·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당·여권 비판적	6	0	6
	.7%	0.0%	0.5%
해당사항 없음	693	247	940
	85.9%	86.4%	86.0%
전체	807	286	1093
	100.0%	100.0%	100.0%

2.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1) 스튜디오 대담 건수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건수는 <뉴스NIGHT>가 27건, <뉴스와이드>가 10건으로 총 37건이었다. 월별로는 4월 14건, 11월 9건, 2월과 8월 각 7건이었다. <뉴스NIGHT>의 경우 총 27건 중에서 4월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11월이 7건, 2월과 8월이 각 5건이었다. <뉴스와이드>의 경우 총 10건 중에서 4월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2월, 8월, 11월에 각 2건이었다.

<표 39>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건수(단위: 건, %)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2월	5	2	7
	18.5%	20.0%	18.9%
4월	10	4	14
	37.0%	40.0%	37.8%
8월	5	2	7
	18.5%	20.0%	18.9%
11월	7	2	9
	25.9%	20.0%	24.3%
전체	27	10	37
	100.0%	100.0%	100.0%

2) 출연자 수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출연자 수는 <뉴스NIGHT> 27건, <뉴스와이드> 10건 등 총 37건 모두 2명의 출연자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40>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출연자 수(단위: 건, %)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2명	27	10	37
	100.0%	100.0%	100.0%
전체	27	10	37
	100.0%	100.0%	100.0%

3) 출연자 성격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출연자 성격을 살펴보면, 총 74명 중 ‘전문가’가 4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의힘’ 16명, ‘민주당’ 12명, ‘군소정당’ 2명, ‘전/현직 타언론사 기자’ 1명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뉴스NIGHT>의 경우 총 54명 중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16명, ‘군소정당’ 2명, ‘전문가’ 24명이었다. 반면 <뉴스와이드>의 경우 ‘전문가’ 19명, ‘전/현직 타언론사 기자’ 1명이었다. <뉴스NIGHT>는 정치인 위주로, <뉴스와이드>는 전문가 위주로 대담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두 프로그램은 뚜렷한 차별성을 나타냈다.

<표 41>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출연자 성격(단위: 건, %)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민주당	12	0	12
	22.2%	0.0%	16.2%
국민의힘	16	0	16
	29.6%	0.0%	21.6%
군소정당	2	0	2
	3.7%	0.0%	2.7%
전문가	24	19	43
	44.4%	95.0%	58.1%
전/현직 타언론사 기자	0	1	1
	0.0%	5.0%	1.4%
전체	54	20	74
	100.0%	100.0%	100.0%

(1) 출연자1 성격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출연자 중 첫 번째 발언자를 출연자1로 규정하였다. 출연자1의 성격을 살펴보면 총 37명 중 ‘전문가’가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의힘’ 11명, ‘민주당’ 6명, ‘군소정당’과 ‘전/현직 타언론사 기자’ 각 1명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뉴스NIGHT>의 경우 총 27명 중 ‘국민의힘’ 11명, ‘민주당’ 6명, ‘군소정당’ 1명, ‘전문가’ 9명 순으로 나타났다. <뉴스와이드>의 경우 총 10명 중 ‘전문가’ 9명, ‘전/현직 타언론사 기자’ 1명으로 나타났다.

<표 42>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출연자1 성격(단위: 건, %)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민주당	6	0	6
	22.2%	0.0%	16.2%
국민의힘	11	0	11
	40.7%	0.0%	29.7%
군소정당	1	0	1
	3.7%	0.0%	2.7%
전문가	9	9	18
	33.3%	90.9%	48.6%
전/현직 타언론사 기자	0	1	1
	0.0%	10.0%	2.7%
전체	27	10	37
	100.0%	100.0%	100.0%

(2) 출연자2 성격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출연자 중 두 번째 발언자를 출연자2로 규정하였다. 출연자2의 성격을 살펴보면, 총 37명 중 '전문가'가 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주당' 6명, '국민의힘' 5명, '군소정당' 1명 순이었다.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뉴스NIGHT>의 경우 총 27명 중 '전문가' 15명, '민주당' 6명, '국민의힘' 5명, '군소정당' 1명 순이었다. <뉴스와이드>의 경우 총 10명 중 '전문가'가 10명이었다.

<표 43>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출연자2 성격(단위: 건, %)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민주당	6	0	6
	22.2%	0.0%	16.2%
국민의힘	5	0	5
	18.5%	0.0%	13.5%
군소정당	1	0	1
	3.7%	0.0%	2.7%
전문가	15	10	25
	55.6%	100.0%	67.6%
전체	27	10	37
	100.0%	100.0%	100.0%

4) 아이템

(1) 아이템 수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아이템 수는 '4개 이상'인 경우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3개'가 13건, '2개'가 1건, '1개'가 3건으로 나타났다. <뉴스NIGHT>는 '4개 이상'이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뉴스와이드>는 '3개'인 경우가 6건으로 다소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44>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아이템 수(단위: 건, %)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1개	3	0	3
	11.1%	0.0%	8.1%
2개	0	1	1
	.0%	10.0%	2.7%
3개	7	6	13
	25.9%	60.0%	35.1%
4개 이상	17	3	20
	63.0%	30.0%	54.1%
전체	27	10	37
	100.0%	100.0%	100.0%

(2) 1번 아이TEM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아이TEM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한 아이TEM을 1번 아이TEM으로 규정하였다. 1번 아이TEM의 세부 내용을 월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월의 경우 <뉴스NIGHT>는 ‘갤럽 여론조사 기반 대통령, 정당 지지율’,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인천계양을 선거구도’, ‘이낙연-이준석 개혁신당 분열’, ‘민주당 경선결과’ 등이었다. <뉴스와이드>는 ‘국민의힘 공천상황’, ‘여야 공천결과 및 분위기 해석’ 등이었다. 4월의 경우 <뉴스NIGHT>는 ‘여, 다시 비대위 가닥’, ‘대통령, 총선 후 첫 입장’, ‘첫 영수회담 다음 주 전망’, ‘22대 총선 범야권 압승’, ‘윤대통령, 다음 주 입장 발표’ 등 총선 관련 아이TEM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뉴스와이드>는 ‘여당 총선패배 후폭풍’, ‘이란, 이스라엘 보복공격’, ‘22대 총선 판세분석’, ‘수도권 및 주요지역 총선 판세분석’ 등이었다. 8월의 경우 <뉴스NIGHT>는 ‘민주당-국민의힘, 대표회담 신경전 계속’, ‘댓글조작 김경수 복권’, ‘민생법안 처리 위한 여야정 협의체 합의 불발’, ‘이진숙 탄핵안 가결’ 등이었다. <뉴스와이드>는 ‘내일 여야 대표회담’, ‘이재명 연임 빼기’ 등이었다. 11월의 경우 <뉴스NIGHT>는 ‘이대표 여론전’, ‘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특검법 수정안 공방’, ‘윤대통령 지지율 19%’, ‘방위비 분담 등 외교 관련’, ‘트럼프 당선 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휴전 가능성’ 등이었다. <뉴스와이드>는 ‘이재명 공개연설 생략, 자제요청’, ‘여야 특검 충돌’ 등이었다.

이들 1번 아이TEM 내용을 분류한 결과 총 37건 중 ‘22대 총선’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내정치’가 14건, ‘해외/국제’가 4건, ‘선거일반’과 ‘중앙행정’이 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뉴스NIGHT>의 경우 총 27건 중 ‘22대 총선’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내정치’ 10건, ‘해외/국제’ 3건, ‘선거일반’과 ‘중앙행정’이 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뉴스와이드>의 경우 ‘22대 총선’ 5건, ‘국내정치’ 4건, ‘해외/국제’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 45>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1번 아이TEM 분류(단위: 건, %)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국내 정치	10	4	14
	37.0%	40.0%	37.8%
선거일반	1	0	1
	3.7%	0.0%	2.7%
22대 총선	12	5	17
	44.4%	50.0%	45.9%
중앙행정	1	0	1
	3.7%	0.0%	2.7%
해외/국제	3	1	4
	11.1%	10.0%	10.8%
전체	27	10	37
	100.0%	100.0%	100.0%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1번 아이템의 성격을 살펴보면, 총 37건 중 '논쟁적 이슈로 정치적 아이템'이 33건, '비논쟁적 이슈'가 4건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뉴스NIGHT>의 경우 총 27건 중 '논쟁적 이슈로 정치적 아이템'이 24건, '비논쟁적 이슈'가 3건이었다. <뉴스와이드>의 경우 총 10건 중 '논쟁적 이슈로 정치적 아이템'이 9건, '비논쟁적 이슈'가 1건으로 나타났다.

<표 46>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1번 아이템 성격(단위: 건, %)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논쟁적 이슈로 정치적 아이템	24	9	33
	88.9%	90.0%	89.2%
비논쟁적 이슈	3	1	4
	11.1%	10.0%	10.8%
전체	27	10	37
	100.0%	100.0%	100.0%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1번 아이템의 편향성('비논쟁적 이슈'로 분류된 4건 제외)을 살펴본 결과, 총 33건 중 '분류 어려움'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체로 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권 비판적', '분명하게 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권 비판적'이 각 4건, '대체로 정부·여권 우호적 혹은 야권 비판적'이 2건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뉴스NIGHT>의 경우 총 24건 중 '분류 어려움'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체로 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권 비판적', '분명하게 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권 비판적'이 각 3건, '대체로 정부·여권 우호적 혹은 야권 비판적'이 1건으로 나타났다. <뉴스와이드>의 경우 '분류 어려움'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권 비판적', '분명하게 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권 비판적', '대체로 정부·여권 우호적 혹은 야권 비판적'이 각 1건으로 나타났다.

<표 47>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1번 아이템 편향성(단위: 건, %)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대체로(간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 우호적 혹은 야당·야권 비판적	1	1	2
	4.2%	11.1%	6.1%
분류 어려움	17	6	23
	70.8%	66.7%	69.7%
대체로(간접적으로) 야당·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당·여권 비판적	3	1	4
	12.5%	11.1%	12.1%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야당·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당·여권 비판적	3	1	4
	12.5%	11.1%	12.1%
전체	24	9	33
	100.0%	100.0%	100.0%

(3) 2번 아이템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아이템 중에서 두 번째로 등장한 아이템을 2번 아이템으로 규정하였다. 2번 아이템의 세부 내용을 월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월의 경우 <뉴스NIGHT>는 ‘배현진 피습 사건 이후 공개활동’, ‘제3지대 통합과 비례정당 영향’, ‘수도권 및 주요 지역 공천 전략’, ‘민주당 공천 내홍’, ‘국민의힘 공천 상황’ 등이었다. <뉴스와이드>는 ‘대통령 경호 논란’, ‘개혁신당과 제3지대 정당 전망’ 등이었다. 4월의 경우 <뉴스NIGHT>는 ‘윤대통령, 국무회의서 총선 관련 입장 발표 예정’, ‘국민의힘, 실무형 비대위 구성 결론’, ‘김건희 여사 특검 신경전’, ‘총선참패 후폭풍 국민의힘’, ‘선거 주요 격전지 분석’, ‘여론조사 신뢰성과 경합 지역 분석’, ‘대표 정치인의 사전투표 장소와 상징성 분석’, ‘정권 심판론 및 여야의 메시지’, ‘막판 여론 흐름과 초접전 지역 분석’ 등이었다. <뉴스와이드의>는 ‘윤대통령, 다음주 입장 발표’, ‘윤대통령 인적쇄신 고심’, ‘부울경 민심 변화와 대응 전략’, ‘2030 청년층 표심과 부동층 향방’ 등이었다. 8월의 경우 <뉴스NIGHT>는 ‘독도 조형물 독도 지우기 의혹’, ‘반쪽 광복절 현실화?’, ‘민생법안 첫 합의처리’, ‘금투세 폐지 연일 논쟁’, ‘이진숙 불출석 공방’ 등이었다. <뉴스와이드>는 ‘갈등 불거진 여당 연찬회’, ‘김경수 복권 눈앞’ 등이었다. 11월의 경우 <뉴스NIGHT>는 ‘정부 여당 원팀 외침’, ‘당원 게시판 논란’, ‘명태균 녹취 추가공개’, ‘천하람, 정진석 설전’ 등이었다. <뉴스와이드>는 ‘조국 다음달 선고’, ‘이재명 이번주 선고’ 등이었다.

이들 2번 아이템 내용을 분류한 결과, 총 34건 중 ‘국내정치’ 16건, ‘22대 총선’ 15건, ‘중앙행정’ 3건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뉴스NIGHT>의 경우 총 24건 중 ‘국내정치’ 12건, ‘22대 총선’ 11건, ‘중앙행정’ 1건이었다. <뉴스와이드>의 경우 총 10건 중 ‘국내정치’와 ‘22대 총선’이 각 4건, ‘중앙행정’ 1건이었다.

<표 48>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2번 아이템 분류(단위: 건, %)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국내 정치	12	4	16
	50.0%	40.0%	47.1%
22대 총선	11	4	15
	45.8%	40.0%	44.1%
중앙행정	1	2	3
	4.2%	20.0%	8.8%
전체	24	10	34
	100.0%	100.0%	100.0%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2번 아이템 성격을 살펴보면, 총 34건 중 ‘논쟁적 이슈로 정치적 아이템’이 31건, ‘논쟁적 이슈로 유사 정치적 아이템’이 3건이었다.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뉴스NIGHT>의 경우 총 24건 중 ‘논쟁적 이슈로 정치적 아이템’이 22건, ‘논쟁적 이슈로 유사 정치적 아이템’이 2건이었다. <뉴스와이드>의 경우 총 10건 중 ‘논쟁적 이슈로 정치적 아이템’이 9건, ‘논쟁적 이슈로 유사 정치적 아이템’이 1건이었다.

<표 49>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2번 아이템 성격(단위: 건, %)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논쟁적 이슈로 정치적 아이템	22	9	31
	91.7%	90.0%	91.2%
논쟁적 이슈로 유사 정치적 아이템	2	1	3
	8.3%	10.0%	8.8%
전체	24	10	34
	100.0%	100.0%	100.0%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2번 아이템의 편향성을 살펴본 결과, 총 34건 중 각 2건이 ‘분명하게 정부·여권 우호적 혹은 야권 비판적’, ‘대체로 정부·여권 우호적 혹은 야권 비판적’, 19건이 ‘분류 어려움’, 9건이 ‘대체로 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권 비판적’, 2건이 ‘분명하게 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당 비판적’으로 분류되었다.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뉴스NIGHT>의 경우 총 24건 중 13건이 ‘분류 어려움’, 2건이 ‘대체로 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권 비판적’, 2건이 ‘분명하게 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당 비판적’으로 나타났다. 뉴스와이드의 경우 총 10건 중 2건이 ‘분명하게 정부·여권 우호적 혹은 야권 비판적’, 6건이 ‘분류 어려움’, 2건이 ‘대체로 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권 비판적’으로 나타났다.

<표 50>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2번 아이템 편향성(단위: 건, %)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 우호적 혹은 야당·야권 비판적	0	2	2
	0.0%	20.0%	5.9%
대체로(간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 우호적 혹은 야당·야권 비판적	2	0	2
	8.3%	0.0%	5.9%
분류 어려움	13	6	19
	54.2%	60.0%	55.9%
대체로(간접적으로) 야당·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당·여권 비판적	7	2	9
	29.2%	20.0%	26.5%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야당·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당·여권 비판적	2	0	2
	8.3%	0.0%	5.9%
전체	24	10	34
	100.0%	100.0%	100.0%

(4) 3번 아이템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아이템 중에서 세 번째로 등장한 아이템을 3번 아이템으로 규정하였다. 3번 아이템의 세부 내용을 월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월의 경우 <뉴스NIGHT>는 ‘3지대 빅텐트 통합’, ‘국민의힘 공천 논란 및 총선전략’, ‘민주당 공천 잡음’, ‘국민의힘 공천과 재배치’, ‘범야권 통합예비정당 창당 논의’ 등이었다. <뉴스와이드>의 경우 ‘민주당 공천상황’ 등이다. 4월의 경우 <뉴스NIGHT>는 ‘문재인 전 대통령 선거지원 유세와 그 정치적 배경’, ‘선거 후보자 논란과 선거 판세에 미치는 영향’, ‘한동훈 선거전략’, ‘지역별 투표율의 의미와 판세분석’, ‘양당 의석 전망 및 여소야대 가능성’ 등이었다. 8월의 경우 <뉴스NIGHT>는 ‘계엄 준비설 파장’, ‘국방장관 인선 공방’, ‘김건희 여사 무혐의 가닥’, ‘채상병 특검 3라운드’,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 김상훈 지명’, 등이었다. 뉴스와이드의 경우 ‘문재인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다시 거부권 정국’ 등이었다. 11월의 경우 <뉴스NIGHT>는 ‘명태균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1심 무죄’, ‘이대표 1심 생중계 불허’, ‘윤-명태균 통화 파장’ 등이었다. <뉴스와이드>는 ‘한동훈 대표 시험대’, ‘윤대통령 담화 후폭풍’ 등이었다.

이들 3번 아이템 내용을 분류한 결과, 총 33건 중 ‘국내정치’ 15건, ‘22대 총선’ 14건, ‘중앙행정’ 3건, ‘선거일반’ 1건이었다.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뉴스NIGHT>의 경우 총 24건 중 ‘국내정치’ 11건, ‘22대 총선’ 10건, ‘중앙행정’ 3건이었다. <뉴스와이드>의 경우 총 9건 중 ‘국내정치’와 ‘22대 총선’이 각 4건, ‘선거일반’ 1건이었다.

<표 51>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3번 아이템 분류(단위: 건, %)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국내 정치	11	4	15
	45.8%	44.4%	45.5%
선거일반	0	1	1
	0.0%	11.1%	3.0%
22대 총선	10	4	14
	41.7%	44.4%	42.4%
중앙행정	3	0	3
	12.5%	0.0%	9.1%
전체	24	9	33
	100.0%	100.0%	100.0%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3번 아이템 성격을 살펴보면, 총 33건 중 ‘논쟁적 이슈로 정치적 아이템’이 32건, ‘논쟁적 이슈로 유사 정치적 아이템’이 1건이었다.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뉴스NIGHT>의 경우 총 24건 중 ‘논쟁적 이슈로 정치적 아이템’이 23건, ‘논쟁적 이슈로 유사 정치적 아이템’이 1건이었다. <뉴스와이드>의 경우 총 9건 중 9건이 ‘논쟁적 이슈로 정치적 아이템’으로 분류되었다.

<표 52>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2번 아이템 성격(단위: 건, %)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논쟁적 이슈로 정치적 아이템	23	9	32
	95.8%	100.0%	97.0%
논쟁적 이슈로 유사 정치적 아이템	1	0	1
	4.2%	0.0%	3.0%
전체	24	9	33
	100.0%	100.0%	100.0%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3번 아이템의 편향성을 살펴본 결과, 총 33건 중 ‘분류 어려움’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체로 정부·여권 우호적 혹은 야권 비판적’, ‘분명하게 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권 비판적’이 각 4건, ‘대체로 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권 비판적’이 2건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뉴스NIGHT>의 경우 총 24건 중 ‘분류 어려움’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분명하게 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당 비판적'이 3건, '대체로 정부·여권 우호적 혹은 야권 비판적', '대체로 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권 비판적'이 각 2건으로 나타났다.

<표 53>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3번 아이템 편향성(단위: 건, %)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대체로(간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 우호적 혹은 야당·야권 비판적	2	2	4
	8.3%	22.2%	12.1%
분류 어려움	17	6	23
	70.8%	66.7%	69.7%
대체로(간접적으로) 야당·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당·여권 비판적	2	0	2
	8.3%	0.0%	6.1%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야당·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당·여권 비판적	3	1	4
	12.5%	11.1%	12.1%
전체	24	9	33
	100.0%	100.0%	100.0%

5) 아이템 종합

이상에서 다룬 외부인 초청 대담 관련 분석을 종합하여 1번부터 3번까지 다룬 아이템 분류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먼저, 대담에서 다룬 아이템은 '22대 총선'과 관련한 내용이 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내 정치' 45건, '중앙행정' 7건, '해외/국제' 4건, '선거 일반'이 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뉴스NIGHT>는 '국내 정치'와 '22대 총선'을 동일하게 33건 다루었고, <뉴스와이드>는 '22대 총선' 관련 대담을 13건 다루어 가장 많은 회수를 차지하였다.

<표 54>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아이템 종합(단위: 건, %)(다중응답 분석)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국내 정치	33	12	45
	31.7%	11.5%	43.3%
선거 일반	1	1	2
	1.0%	1.0%	1.9%
22대 총선	33	13	46
	31.7%	12.5%	44.2%
중앙행정	5	2	7
	4.8%	1.9%	6.7%
해외/국제	3	1	4
	2.9%	1.0%	3.8%
전체	75	29	104
	72.1%	27.9%	100.0%

외부인 초청 대담의 아이템 성격은 '논쟁적 이슈로 정치적 아이템'이 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논쟁적 이슈로 유사 정치적 아이템'과 '비논쟁적 이슈'는 각각 4건으로 동일했다. <뉴스NIGHT>와 <뉴스와이드>는 '논쟁적 이슈로 정치적 아이템'을 각각 69건, 27건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아이템 성격(단위: 건, %)(다중응답 분석)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논쟁적 이슈로 정치적 아이템	69	27	96
	66.3%	26.0%	92.3%
논쟁적 이슈로 유사 정치적 아이템	3	1	4
	2.9%	1.0%	3.8%
비논쟁적 이슈	3	1	4
	2.9%	1.0%	3.8%
전체	75	29	104
	72.1%	27.9%	100.0%

대담 아이템의 전반적인 편향성을 조사한 결과, 분류하기 어려운 사례가 65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대체로 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권 비판적’ 아이템이 15건이었고, ‘분명하게 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권 비판적’이 10건, ‘대체로 정부·여권 우호적 혹은 야권 비판적’ 아이템이 8건, ‘분명하게 정부·여권 우호적 혹은 야권 비판적’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아이템 성격을 여권과 야권의 이분법적으로 봤을 때, 여권에 우호적인 아이템이 10건(10%), 야권에 우호적인 성격이 25건(25%)으로 조사되었다.

<표 56>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아이템 편향성(단위: 건, %)(다중응답 분석)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 우호적 혹은 야당·야권 비판적	0	2	2
	0.0%	2.0%	2.0%
대체로(간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 우호적 혹은 야당·야권 비판적	5	3	8
	5.0%	3.0%	8.0%
분류 어려움	47	18	65
	47.0%	18.0%	65.0%
대체로(간접적으로) 야당·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당·여권 비판적	12	3	15
	12.0%	3.0%	15.0%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야당·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당·여권 비판적	8	2	10
	8.0%	2.0%	10.0%
전체	72	28	100
	72.0%	28.0%	100.0%

3. 22대 국회의원 선거 보도

1) 총선보도 아이템 수

22대 국회의원 선거보도 관련 아이템은 총 137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판세분석’이 11건, ‘전략분석’이 22건, ‘후보자 자체 논란’ 16건, ‘유세스케치’ 9건, ‘정책/공약 분석’ 3건, ‘투·개표 현황 및 결과’ 42건, ‘공천갈등’ 10건, ‘TV토론’ 21건, ‘기타’ 3건이었다.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뉴스 NIGHT>의 경우 총 120건 중 ‘판세분석’ 11건, ‘전략분석’ 19건, ‘후보자 자체 논란’ 16건, ‘유세스케치’ 6건, ‘정책/공약분석’ 3건, ‘투·개표 현황 및 결과’ 39건, ‘공천갈등’ 7건, ‘TV토론’ 16건, ‘기타’ 3건이었다. <뉴스와이드>의 경우 총 17건 중 ‘전략분석’ 3건, ‘유세스케치’ 3건, ‘투·개표 현황 및 결과’ 3건, ‘공천갈등’ 3건, ‘TV토론’ 5건이었다.

<표 57> 총선 보도 아이템(단위: 건, %)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판세분석	11	0	11
	9.2%	0.0%	8.0%
전략분석	19	3	22
	15.8%	17.6%	16.1%
후보자 자체논란	16	0	16
	13.3%	0.0%	11.7%
유세스케치	6	3	9
	5.0%	17.6%	6.6%
정책/공약분석	3	0	3
	2.5%	0.0%	2.2%
투·개표 현황 및 결과	39	3	42
	32.5%	17.6%	30.7%
공천갈등	7	3	10
	5.8%	17.6%	17.3%
TV토론	16	5	21
	13.3%	29.4%	15.3%
기타	3	0	3
	2.5%	0.0%	2.2%
전체	120	17	137
	100.0%	100.0%	100.0%

2) 총선보도 시간배분

총선보도 시간배분을 살펴본 결과 총 137건 중 ‘여권에 많이 할애’ 37건, ‘야권에 많이 할애’ 32건, ‘균형배분’ 4건, ‘군소정당에 많이 할애’ 2건, ‘중립 객관 내용 많이 할애’ 6건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뉴스NIGHT>의 경우 총 120건 중 ‘여권에 많이 할애’ 35건, ‘야권에 많이 할애’ 29건, ‘균형배분’ 27건, ‘군소정당에 많이 할애’ 8건, ‘중립 객관 내용 많이 할애’ 21건 순이었다. <뉴스와이드>의 경우 총 17건 중 ‘중립 객관 내용 많이 할애’ 6건, ‘균형배분’ 4건, ‘야권에 많이 할애’ 3건, ‘여권에 많이 할애’와 ‘군소정당에 많이 할애’ 각 2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 58> 총선보도 시간배분(단위: 건, %)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여권에 많이 할애	35	2	37
	29.2%	11.8%	27.0%
야권에 많이 할애	29	3	32
	24.2%	17.6%	23.4%
균형 배분	27	4	31
	22.5%	23.5%	22.6%
군소정당에 많이 할애	8	2	10
	6.7%	11.8%	7.3%
중립 객관 내용 많이 할애	21	6	27
	17.5%	35.3%	19.7%
전체	120	17	137
	100.0%	100.0%	100.0%

아이템별 총선 보도의 시간적 배분은 ‘판세 분석’에서는 여권과 야권에 동일한 비율이었으며, ‘전략분석’ 아이템에서는 야권에 더 많은 시간을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자체논란’ 아이템에도 야권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으며, ‘유세 스케치’도 동일한 양상이었다. ‘정책/공약 분석’은 모두 ‘균형 배분’으로 나타났고, ‘투·개표 현황 및 결과’와 ‘TV토론’ 아이템에서는 여권에 보다 많은 시간적 배분이 이루어진 경향으로 조사되었다. ‘공천갈등’ 아이템은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인 내용에 상대적으로 시간을 배분한 보도가 많았다.

<표 59> 아이템별 총선 보도 시간적 배분(단위: 건, %)

구분	여권에 많이 할애	야권에 많이 할애	균형 배분	군소정당에 많은 할애	중립 객관 내용 많이 할애	전체
판세분석	1	1	8	0	1	11
	9.1%	9.1%	72.7%	0.0%	9.1%	100.0%
전략분석	6	8	7	0	1	22
	27.3%	36.4%	31.8%	0.0%	4.5%	100.0%
후보자 자체논란	1	8	2	0	5	16
	6.3%	50.0%	12.5%	0.0%	31.3%	100.0%
유세 스케치	0	3	3	2	1	9
	0.0%	33.3%	33.3%	22.2%	11.1%	100.0%
정책/공약분석	0	0	3	0	0	3
	0.0%	0.0%	100.0%	0.0%	0.0%	100.0%
투·개표 현황 및 결과	17	8	8	2	7	42
	40.5%	19.0%	19.0%	4.8%	16.7%	100.0%
공천갈등	0	0	0	0	10	10
	0.0%	0.0%	0.0%	0.0%	100.0%	100.0%
TV토론	11	4	0	6	0	21
	52.4%	19.0%	0.0%	28.6%	0.0%	100.0%
기타	1	0	0	0	2	3
	33.3%	0.0%	0.0%	0.0%	66.7%	100.0%
전체	37	32	31	10	27	137
	27.0%	23.4%	22.6%	7.3%	19.7%	100.0%

3) 총선보도 내용 편향성

총선보도 내용 편향성을 살펴본 결과 총 137건 중 ‘분류 어려움’이 1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체로 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권 비판적’이 4건, ‘대체로 정부·여권 우호적 혹은 야권 비판적’이 2건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뉴스NIGHT>의 경우 ‘분류 어려움’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체로 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권 비판적’이 3건, ‘대체로 정부·여권 우호적 혹은 야권 비판적’이 2건 순이었다. <뉴스와이드>의 경우 총 17건 중 ‘분류 어려움’이 16건, ‘대체로 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권 비판적’이 1건이었다.

<표 60> 총선보도 내용 편향성(단위: 건, %)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대체로(간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 우호적 혹은 야당·야권 비판적	2	0	2
	1.7%	0.0%	1.5%
분류 어려움	115	16	131
	95.8%	94.1%	95.6%
대체로(간접적으로) 야당·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당·여권 비판적	3	1	4
	2.5%	5.9%	2.9%
전체	120	17	137
	100.0%	100.0%	100.0%

총선 아이টে별로 보도의 편향성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아이টে에서 ‘분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후보자 자체 논란’ 관련 아이টে에서 ‘대체로 정부·여권 우호적 혹은 야권 비판적’인 내용이 2건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유세 스케치’와 ‘투·개표 현황 및 결과’에서 ‘대체로 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권 비판적’이 각각 1건과 2건으로 총 3건으로 나타났다.

<표 61> 아이টে별 총선 보도 편향성(단위: 건, %)

구분	대체로(간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 우호적 혹은 야당·야권 비판적	분류 어려움	대체로(간접적으로) 야당·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당·여권 비판적	전체
판세분석	0	11	0	11
	0.0%	100.0%	0.0%	100.0%
전략분석	0	22	0	22
	0.0%	100.0%	0.0%	100.0%
후보자 자체논란	2	14	0	16
	12.5%	87.5%	0.0%	100.0%
유세 스케치	0	8	1	9
	0.0%	88.9%	11.1%	100.0%
정책/공약분석	0	3	0	3
	0.0%	100.0%	0.0%	100.0%
투·개표 현황 및 결과	0	40	2	42
	0.0%	95.2%	4.8%	100.0%
공천갈등	0	10	0	10
	0.0%	100.0%	0.0%	100.0%
TV토론	0	20	1	21
	0.0%	95.2%	4.8%	100.0%
기타	0	3	0	3
	0.0%	100.0%	0.0%	100.0%
전체	2	131	4	137
	1.5%	95.6%	2.9%	100.0%

4. 유진 그룹 관련 보도 추가 분석

본 연구에서는 2024년 2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에 따라 유진 그룹에 대한 YTN의 보도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분석대상 뉴스 프로그램으로 설정한 YTN 주중 <뉴스NIGHT>, <YTN24>(4월)와 주말 <뉴스와이드>, <YTN24>(4월)의 분석 일자에서 유진 그룹과 관련된 보도는 1건만 발견되었다. 텍스트 전문은 다음과 같다.

YTN <뉴스NIGHT> 2024년 2월 20일

“유진, 사장추천위 무력화 의도... YTN 인수 취소해야”

[앵커] YTN의 최대 주주가 된 유진그룹이 사장추천위원회 등 기존 제도를 무시하고 새 이사진을 사실상 내정했다며 언론시민단체들이 승인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창현/언론노조 위원장 : YTN 경영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무시한 지금의 이 상황이 당신들이 스스로 부과한 설립 조건, 그리고 유진이 스스로 말했던 기존 제도의 존중이라는 명제를 위반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 정도 신의도 지킬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YTN을 경영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경영하는 YTN의 미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의 분석대상 및 일자의 유진 그룹 관련 보도는 위의 텍스트로 제시한 1건으로, YTN의 유진 그룹에 대한 보도를 평가하기는 불가능하다. 이에 YTN 웹사이트(<https://www.ytn.co.kr/search/>)에서 유진 그룹에 대한 보도를 검색하였다. 다만, YTN 검색 웹 페이지에서는 각 뉴스 프로그램별 검색 기능이 부재하여, 어떤 뉴스 프로그램에서 보도된 것인지 확인하기 곤란했다. 이에 검색 조건에 맞게 도출된 전체 보도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1) 유진 그룹 관련 보도 자료 수집 및 결과

유진 그룹 관련 보도는 검색 키워드를 ‘유진’으로, 검색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검색조건은 제목과 본문을 포함하는 전체로 설정한 후, ‘동영상 기사³⁾’에 한정하여 해당 보도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YTN 294건, YTN 사이언스 11건, YTN2 0건, YTN 라디오 0건, YTN dmb 0건이 도출되었는데, 다음의 그림과 같다.

3) YTN 기사 검색 웹 페이지에는 ‘전체 기사’, ‘동영상 기사’, ‘이미지 기사’로 검색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림 1> 검색 키워드 '유진'으로 도출된 YTN 보도 화면



*출처: https://www.ytn.co.kr/search/index.php?q=%EC%9C%A0%EC%A7%84&x=23&y=10&se_date=3&ds=20240101&de=20241231&target=0&mtarget=1

이 가운데, YTN에서 도출된 294건의 보도를 대상으로 유진 그룹이 제목이나 본문에서 언급된 내용을 확인한 후, 추가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는데, 총 41건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와 같이 추출된 41건은 중복된 제목과 내용의 보도도 있다. 그러나 동일한 프로그램 내 동일 뉴스로 단정할 수 없어 중복된 내용을 통합하지 않았는데, 추출된 41건 전체 뉴스의 인터넷상 제목과 보도일자 및 시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62> YTN의 유진 그룹 관련 보도 현황

인터넷상 제목	보도 일자 및 시간
유진그룹 사옥 매입에 계열사 동원...'사익 편취' 의혹에 묵묵부답	2024.02.05. 오전 07:10.
YTN 노조 "부적격한 유진그룹...불법 매각 멈춰야"	2024.02.05. 오후 1:51.
'손실 돌려막기'에 '주가 조작' 수사..."방통위, 유진그룹 심사 엄격해야"	2024.02.06. 오후 6:09.
'손실 돌려막기'에 '주가 조작' 수사..."방통위, 유진그룹 심사 엄격해야"	2024.02.06. 오후 10:54.
방통위, YTN 대주주 변경 논의...유진 부적격성 논란	2024.02.07. 오전 09:28.
방송통신위원회, YTN 최대주주 변경 조건부 승인 의결	2024.02.07. 오전 11:19.
방송통신위원회, YTN 최대주주 변경 조건부 승인	2024.02.07. 오전 11:46.
방송통신위원회, YTN 최대주주 변경 조건부 승인 의결	2024.02.07. 오후 12:23.
민주 "2인 방통위 YTN 매각 '무심사 의결'은 무효"	2024.02.07. 오후 12:33.
언론노조·기자협회 "방통위의 유진그룹 YTN 대주주 변경 승인은 범죄"	2024.02.07. 오후 1:13.

[YTN 실시간뉴스] YTN 최대주주로 '유진' 승인..."불법 매각"	2024.02.07. 오후 1:50.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10가지 조건 제시	2024.02.07. 오후 1:58.
언론노조·기자협회 "YTN 매각은 범죄"...YTN "졸속 결정 방통위 책임 져야"	2024.02.07. 오후 3:48.
YTN 최대주주 '유진'으로 변경...방통위, 조건부 승인	2024.02.07. 오후 3:58.
유진그룹 인수, YTN 공공성 훼손 우려 '여전'...노조 "YTN 매각은 범죄"	2024.02.07. 오후 4:51.
YTN 최대주주 '유진'으로 변경...방통위, 조건부 승인	2024.02.07. 오후 6:21.
"유진, YTN 독립성 침해 우려"...언론노조 '집행정지' 법적 대응 예고	2024.02.07. 오후 6:22.
"방통위원 2명이 결정·통매각 의혹은 여전히 논란"	2024.02.07. 오후 7:50.
YTN 최대주주 '유진'으로 변경...방통위, 조건부 승인	2024.02.07. 오후 10:11.
"방통위원 2명이 결정·통매각 의혹은 여전히 논란"	2024.02.07. 오후 10:13.
언론노조·기자협회 "YTN 매각은 범죄"...YTN "졸속 결정 방통위 책임 져야"	2024.02.07. 오후 10:14.
"유진, YTN 독립성 침해 우려"...언론노조 '집행정지' 법적 대응 예고	2024.02.07. 오후 11:33.
"유진, YTN 독립성 침해 우려"...언론노조 '집행정지' 법적 대응 예고	2024.02.08. 오전 00:56.
YTN 노조, 방통위 상대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소송...집행정지도 신청	2024.02.13. 오후 5:11.
'유진그룹 매각 반대' YTN 노조 법적 대응..."2인 체제 위법"	2024.02.13. 오후 6:15.
'유진그룹 매각 반대' YTN 노조 법적 대응..."2인 체제 위법"	2024.02.13. 오후 10:07.
YTN 노조, 방통위 상대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소송...집행정지도 신청	2024.02.13. 오후 11:36.
YTN 노조 "'권력의 나팔수' 사장 내정...방통위 승인 취소 사유"	2024.02.16. 오후 1:21.
YTN 노조 "'권력의 나팔수' 사장 내정...방통위 승인 취소 사유"	2024.02.16. 오후 11:34.
"유진, 사장추천위원회 무력화 의도...YTN 인수 승인 취소해야"	2024.02.20. 오후 4:47.
"유진, 사장추천위원회 무력화 의도...YTN 인수 승인 취소해야"	2024.02.20. 오후 6:24.
"유진, 사장추천위원회 무력화 의도...YTN 인수 승인 취소해야"	2024.02.20. 오후 11:13.
YTN 노조 "방통위, 절차적 흠결 알면서 무시...졸속 승인 취소해야"	2024.02.26. 오후 3:15.
YTN 노조 "방통위, 절차적 흠결 알면서 무시...졸속 승인 취소해야"	2024.02.26. 오후 11:04.
YTN 전·현직 시청자위원들 "방통위 YTN '불법 매각' 승인 취소해야"	2024.02.27. 오후 1:32.
YTN 전·현직 시청자위원 "방통위 YTN '불법 매각' 승인 취소해야"	2024.02.27. 오후 5:21.
YTN 매각 공방..."방통위가 불법 저질러" vs "2인 체제 불가피"	2024.02.27. 오후 11:16.
YTN 전·현직 시청자위원 "방통위 YTN '불법 매각' 승인 취소해야"	2024.02.27. 오후 11:17.
언론단체 "김백 물러나야...정부의 공영 언론 장악 규탄"	2024.03.29. 오후 2:38.
언론단체 "김백 물러나야...공영 언론 장악 규탄"...언총 "새출발 기대"	2024.03.29. 오후 5:12.
[경제PICK] "층간소음 잡아라!"...신기술 개발 경쟁	2024.11.01. 오후 5:14

2) 월별 보도 수

YTN의 유진 그룹 관련 월별 보도 건수를 살펴보면, 총 41건의 보도 가운데 92.7%인 38건이 2월에 집중 보도된 것을 알 수 있다. 3월에는 4.9%인 2건, 11월에는 2.4%인 1건 보도되었다. 2월에 보도가 집중된 이유는 2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이 있었던 2월 7일 보도가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는데, 2월 7일에만 18건의 보도 수를 나타내고 있다.

<표 63> 월별 유진 그룹 관련 보도 수

구분	빈도	비율
2월	38	92.7
3월	2	4.9
11월	1	2.4
전체	41	100.0

3) 뉴스 제시 방식

유진 그룹 관련 뉴스의 제시 방식은 ‘기자 리포트 패키지’와 ‘단신’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총 41건 중 ‘단신’에 해당하는 뉴스가 53.7%인 22건이었고, ‘기자 리포트 패키지’가 46.3%인 19건이었다.

<표 64> 유진 그룹 관련 뉴스 제시 방식

구분	빈도	비율
기자 리포트 패키지	19	46.3
단신	22	53.7
전체	41	100.0

다만, ‘단신’으로 분류된 YTN 뉴스는 일반적인 타 방송뉴스의 단신보다 긴 형태를 보이기도 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자 리포트 없이 앵커가 뉴스를 직접 소개하는 형태를 뉴스 제시 방식 중 ‘단신’으로 상정하였다. 즉, 뉴스 길이와 관계없이 기자가 등장하여 리포트하지 않으면 단신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다수의 유진 그룹 관련 YTN 뉴스가 단신으로 처리되었다는 의미다. 가령, 아래의 텍스트와 같은 뉴스도 ‘단신’으로 분류된 사례이다.

언론단체 "김백 물러나야...공영 언론 장악 규탄"...언총 "새출발 기대"

2024.03.29. 오후 5:12.

YTN 주주총회에서 김백 전 YTN 상무가 사내 이사로 선임된 가운데, 언론계가 공영 언론 장악을 멈추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오늘(29일) YTN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에 친화적인 인물을 사장 자리에 앉히려는 시도는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겠다는 거라며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김 전 상무가 YTN을 나간 뒤 극우 언론 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를 만들어 YTN 보도를 폄훼하고, 김건희 여사의 다올백 관련 보도가 언론의 스토킹이라는 등 윤석열 정권 입장을 대변해 보도전문채널을 제대로 경영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진그룹이 약속한 공정성이 보장되고 있느냐며 반문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앞으로 김백 이사를 비롯해 유진그룹을 퇴출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진의 YTN 인수가 확정된 뒤 경영진 사퇴를 촉구해온 보수 성향의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YTN 민영화는 공정한 언론을 구현하는 데 대단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환영하고 새 출발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 뉴스 아이템

(1) 유진 그룹 관련 보도 아이템

유진 그룹 관련 보도의 아이템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보도가 유진 그룹의 YTN 인수가 의결된 2월에 집중된 것처럼, '유진 그룹 YTN 인수' 관련 보도가 총 41건 중 97.6%에 해당하는 40건으로 나타났다.

<표 65> 유진그룹 관련 보도 아이템

구분	빈도	비율
유진 그룹 YTN 인수	40	97.6
유진 그룹 자체 이슈	1	2.4
전체	41	100.0

1건으로 분류된 '유진 그룹 자체 이슈'는 2024년 11월 1일 오후 5시 14분에 방영된 것으로 <경제PICK] "층간소음 잡아라!"...신기술 개발 경쟁>이라는 인터넷 제목의 보도이다. 이 보도는 건설업계가 층간 소음을 잡기 위해 신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유진 그룹을 1회 언급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다.

[경제PICK] "층간소음 잡아라!...신기술 개발 경쟁

2024.11.01. 오후 5:14.

[앵커]

두 번째 키워드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건설업계가 층간 소음을 잡기 위해 어떤 신기술들을 개발한 건가요?

[기자]

(중략)

현대엔지니어링은 국내 건설업계에서 최초로 이른바 '천장형 차음 구조'를 개발했는데요. 기존에 업계에서 활용하던 바닥형 차음 구조와 달리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구조를 천장에 시공하는 기술입니다. 우미건설도 두산건설, **유진기업** 등과 함께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고점탄성 모르타르를 사용한 바닥 구조'를 개발했는데요. 이를 통해 바닥충격음을 8에서 10데시벨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유진 그룹 YTN 인수 관련 세부 보도 아이템

40건에 해당하는 '유진 그룹 YTN 인수' 관련 보도의 세부적인 아이টে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50.0%인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과정 및 결과'를 스트레이트성으로 전달하는 보도가 20.0%인 8건이었고, 'YTN 인수' 문제에 대한 보도에서 유진 그룹이 언급된 보도가 17.5%인 7건, '유진 그룹의 인수 자격조건'을 언급한 것이 12.5%인 5건으로 나타났다.

<표 66> 유진그룹 YTN 인수 관련 세부 보도 아이টে은

구분	빈도	비율
방통위 의결 과정 및 결과	8	20.0
방통위 의결 절차적 문제점	20	50.0
유진 그룹의 인수 자격조건	5	12.5
YTN 인사	7	17.5
전체	40	100.0

5) 뉴스 내용

(1) 내용 구성 방식

유진 그룹에 대한 YTN 보도의 내용 구성 방식은 총 41건의 보도 중 ‘사건설명’이 65.9%인 27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다음으로 ‘사건설명+분석+객관적 논평’이 26.8%인 11건, ‘사건설명+분석’이 7.3%인 3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7> 뉴스 내용의 구성 방식

구분	빈도	비율
사건설명	27	65.9
사건설명+분석	3	7.3
사건설명+분석+객관적 논평	11	26.8
전체	41	100.0

(2) 취재원 제시 형태 및 유형

유진 그룹 관련 보도의 주요한 취재원은 ‘투명한 취재원’이 92.7%인 38건에서 나타났으며, ‘익명의 취재원’은 7.3%인 3건에 불과했다.

<표 68> 취재원 제시 형태

구분	빈도	퍼센트
투명한 취재원	38	92.7
익명의 취재원	3	7.3
전체	41	100.0

‘투명한 취재원’에 해당하는 38건의 보도에서 나타난 취재원 유형을 살펴보면, ‘YTN 노동조합 및 전·현직 등 YTN 구성원’이 31.6%인 12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언론노조 및기자협회 등 직능단체’가 28.9%인 11건, ‘방송통신위원회’가 21.1%인 8건, YTN 뉴스의 자체분석에 해당하는 보도가 7.9%인 3건, 방송통신위원회를 제외한 ‘정부 기관’ 5.3%인 2건, ‘더불어민주당’과 ‘법원’이 각각 2.6%인 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9> 투명한 취재원 유형

구분	빈도	비율
방송통신위원회	8	21.1
정부 기관(방통위 제외)	2	5.3
민주당	1	2.6
언론노조 및 기자협회 등 직능단체	11	28.9
자체분석	3	7.9
노동조합, 전·현직 등 YTN 구성원	12	31.6
법원	1	2.6
전체	38	100.0

6) 유진 그룹 YTN 인수에 대한 논조

유진 그룹에 대한 YTN의 보도가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유진 그룹의 YTN 인수 관련 보도에 해당하여, 그 논조를 살펴보았다. 논조는 유진 그룹 인수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양적으로 우세한지, ‘우호적’ 내용이 양적으로 우세한지를 판단하였다. 즉, 뉴스 내용이 현저하게(약 70% 이상) 한쪽의 입장을 전달할 경우, ‘비판적’ 혹은 ‘우호적’으로 판단하였다. 양쪽의 입장을 양적으로 동일하거나 70%미만으로 전달할 경우, ‘중립/판단하기 곤란’으로 판단하였다.

그 결과, ‘유진 그룹 인수에 대해 비판적 내용 우세’가 70.7%인 29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중립/판단하기 곤란’한 경우가 26.8%인 11건으로 나타났다.

<표 70> 유진그룹 YTN 인수에 대한 논조

구분	빈도	비율
유진 그룹 인수에 대해 비판적 내용 우세	29	70.7
중립/판단하기 곤란	11	26.8
해당사항 없음	1	2.4
전체	41	100.0

‘유진 그룹 인수에 대해 비판적 내용 우세’에 해당하는 실제 보도 사례는 다음과 같다.

YTN 전·현직 시청자위원들 "방통위 YTN '불법 매각' 승인 취소해야"

2024.02.27. 오후 1:32.

“유진그룹 계열사에 대한 방통위의 YTN 지분 매각 승인은 졸속 심사로 이뤄진 불법적 결정이라며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YTN 전·현직 시청자위원들은 오늘(27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설립 취지에 어긋난 2

인 체제 방통위에서 유진그룹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이뤄졌는지 믿기 어렵고, 유진그룹이 YTN 보도 개입 등 승인 조건을 어겼을 때 제재 조항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11·12기 시청자위원을 지낸 최영문 변호사는 대통령실 의지가 없었다면 방통위가 막무가내로 승인을 몰아가진 못했을 거라며, 정당성 없는 2인 체제에서 매각에 관여한 방통위원들이 처벌받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13기 현직 시청자위원인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YTN 불법 매각으로 공정방송 제도가 무너지면 가장 큰 피해를 겪는 건 시청자라면서, 재판부에 방통위의 승인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는 '2인 체제'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큰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V. YTN 보도의 공정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YTN 뉴스의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주중 <뉴스NIGHT>, <YTN24>(4월)와 주말 <뉴스와이드>, <YTN24>(4월)를 대상으로 각각의 보도를 진단하였다. 그리고 공정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소재 집중도 지수와 편향성 지수 등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1. 뉴스 일반 보도 공정성

1) 소재의 다양성

이론적인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론보도의 ‘다양성’은 공정성을 구성하는 하위 개념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이에 다양성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뉴스 아이템의 소재 집중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뉴스 아이템을 25개로 분류한 바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뉴스의 소재가 특정한 분야에 집중되지 않았는가를 점검하기 위해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Herfindahl-Hirschman index)를 활용하였다. 25개의 비교적 많은 아이템으로 범주화하였기 때문에 HHI 합계가 전반적으로 높지 않지만, 뉴스 프로그램별 상대적 차별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뉴스NIGHT>와 <뉴스와이드>가 다른 각 아이템별 %의 계수를 제공한 값들의 합이 HHI 값이 되는데, YTN의 HHI는 791.84로 도출된다. 프로그램별로는 <뉴스NIGHT>가 785.11이었고, <뉴스와이드>가 999.2로 나타났다. HHI 값이 클수록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뉴스와이드>가 <뉴스NIGHT>보다 소재 집중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1> 소재 집중도 분석 결과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총 소재
HHI 값	785.11	999.2	791.84

이를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2022년 TV조선과 KBS1TV, MBC 메인뉴스의 소재 다양성을 분석한 결과⁴⁾와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2022년 당시 KBS1TV의 뉴스 HHI 값은 1147.41이었으며, MBC는 1097.89, TV조선 920.95였다. 2024년 YTN <뉴스NIGHT>와 <뉴스와이드>의 HHI 값은 791.84로 시기의 차이가 있지만, 이에 비교하면 소재 집중도는 낮은 편이다.

4) 2022년 한국미디어경영학회는 TV조선의 뉴스 프로그램과 KBS 1TV의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를 본 연구와 유사한 방법으로 내용분석한 바 있다.

<표 72> 소재 집중도 비교

구분	2022년			2024년
	KBS1TV	MBC	TV조선	YTN
HHI 값	1147.41	1097.89	920.95	791.84

2) 아이템 선정의 편향성

본 연구에서는 뉴스 일반의 '정치인 혹은 정치적 쟁점 이슈'와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의 '논쟁적 이슈로 정치적 아이템' 및 '논쟁적 이슈로 유사 정치적 아이템' 등을 대상으로 편향성 지수를 측정하였다. 편향성 지수는 한국미디어경영학회에서 2020년, 2021년, 2022년에 사용한 방법을 차용하여 판단하였다. 즉,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에 우호적이거나 유리한' 경우 +2점, '대체로(간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에 우호적이거나 유리한' 경우 +1점, '분류 어려움' 0점, '대체로(간접적으로) 야당·야권에 우호적이거나 유리한' 경우 -1점,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야당·야권에 우호적이거나 유리한' 경우 -2점으로 측정한 후, 총합을 아이템 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뉴스 일반의 '정치인 혹은 정치적 쟁점 이슈' 153건을 대상으로 아이템 선정의 편향성을 조사한 결과, <뉴스NIGHT>는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정부·여권에 우호적 혹은 야권에 비판적'인 아이템은 13건, '대체로(간접적으로) 정부·여권에 우호적 혹은 야권에 비판적'인 아이템이 12건, '대체로(간접적으로) 야권에 우호적 혹은 정부·여권에 비판적'인 아이템 6건,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야권에 우호적 혹은 정부·여권에 비판적'인 아이템 28건 등으로 편향성 지수는 -0.21로 나타났다. <뉴스와이드>는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정부·여권에 우호적 혹은 야권에 비판적'인 아이템은 14건, '대체로(간접적으로) 정부·여권에 우호적 혹은 야권에 비판적'인 아이템이 2건, '대체로(간접적으로) 야권에 우호적 혹은 정부·여권에 비판적'인 아이템 1건,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야권에 우호적 혹은 정부·여권에 비판적'인 아이템 7건으로 편향성 지수는 +0.38이었다. <뉴스NIGHT>와 <뉴스와이드> 두 프로그램의 전체 편향성 지수는 -0.06으로 매우 미세하게 야권에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3> 뉴스 아이템 선정의 편향성 지수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 우호적 혹은 야당·야권 비판적(+2)	+26 (13건)	+28 (14건)	+54 (27건)
대체로(간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 우호적 혹은 야당·야권 비판적(+1)	+12 (12건)	+2 (2건)	+14 (14건)
분류하기 어려움(0)	0 (55건)	0 (15건)	0 (70건)
대체로(간접적으로) 야당·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당·여권 비판적(-1)	-6 (6건)	-1 (1건)	-7 (7건)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야당·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당·여권 비판적(-2)	-56 (28건)	-14 (7건)	-70 (35건)
계	-24 (114건)	+15 (39건)	-9 (153건)
편향성 지수	-0.21	+0.38	-0.06

이를 앞서 언급한 한국미디어경영학회의 2022년 뉴스 보도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2022)는 2022년 대선을 기준으로 정권교체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아이템 선정의 편향성을 제시하였는데, 현 정권을 고려하여 정권교체 이후 지수와 비교하였다. 2022년 당시 KBS1TV와 MBC의 뉴스의 아이템 선정 편향성 지수는 각각 +0.31이었으며, TV조선은 +0.59로 정부·여권에 우호적인 아이템 선정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은 정권교체 후, 새로운 정부가 막 출범한 시기라는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2024년 YTN <뉴스NIGHT>와 <뉴스와이드>의 아이템 선정 편향성 지수는 -0.06으로 야권에 우호적인 아이템이 미세하게 우세하다.

<표 74> 아이템 선정의 편향성 지수 비교

구분	2022년			2024년
	KBS1TV	MBC	TV조선	YTN
편향성 지수	+0.31	+0.31	+0.59	-0.06

3) 투명한 취재원 활용

시청자 혹은 대중을 대상으로 한 뉴스에서 익명의 취재원을 활용하거나 취재원을 밝히지 않을 경우, 해당 뉴스는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앞선 취재원 제시 형태의 분석 결과, YTN의 <뉴스NIGHT>와 <뉴스와이드>는 ‘투명한 취재원’을 활용한 비율이 각각 86.7%와 81.8%로 전체적으로 85.5%가 ‘투명한 취재원’으로 나타나 ‘익명의 취재원’ 활용이나 취재원을 제시하지 않는 사례보다 앞도적으로 높은 비율이었다.

다만, 2022년 분석결과와 비교하면, 타 방송 뉴스보다는 ‘투명한 취재원’ 활용도 비율이 낮아 다소 아쉬운 대목이다. 2022년 당시 KBS와 MBC, TV조선 모두 99%대의 ‘투명한 취재원’ 활용 비율

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표 75> 투명한 취재원 활용도 비교

구분	2022년			2024년
	KBS1TV	MBC	TV조선	YTN
편향성 지수	99.7%	99.7%	99.2%	85.5%

4) 뉴스 내용의 편향성

‘정치인 혹은 정치적 쟁점 이슈’ 153건 뉴스 내용의 편향성 지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뉴스NIGHT>의 경우,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정부·여권에 우호적 혹은 야권에 비판적’인 내용은 없었고, ‘대체로(간접적으로) 정부·여권에 우호적 혹은 야권에 비판적’인 내용이 5건, ‘대체로(간접적으로) 야권에 우호적 혹은 정부·여권에 비판적’인 내용 6건,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야권에 우호적 혹은 정부·여권에 비판적’인 내용은 없었다. 이에 편향성 지수는 -0.01로 도출되었다. <뉴스와이드>는 정부·여권이나 야권에 우호/비판적 내용이 없었고, 분류하기 어려운 내용만 39건으로 도출되어 편향성 지수는 0.00이었다. 결과적으로 두 프로그램을 종합한 편향성 지수는 -0.01로 뉴스 아이템 선정의 편향성 보다 더욱 미세하게 야권에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6> 뉴스 내용의 편향성 지수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대체로(간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 우호적 혹은 야당·야권 비판적(+1)	+5 (5건)	0 (0건)	+5 (5건)
분류 어려움(0)	0 (103건)	0 (39건)	0 (142건)
대체로(간접적으로) 야당·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당·여권 비판적(-1)	-6 (6건)	0 (0건)	-6 (6건)
계	-1 (114건)	0 (39건)	-1 (153건)
편향성 지수	-0.01	0.00	-0.01

뉴스 내용의 편향성도 2022년 뉴스 보도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이 역시 2022년 대선을 기준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상황과 비교하였는데, 2022년 당시 뉴스 내용의 편향성 지수는 KBS1TV가 +0.03이었고, MBC는 -0.03, TV조선은 +0.21로, KBS1과 TV조선 뉴스는 정부·여권에 유리한 경향을, MBC는 야권에 유리한 경향을 보였다. 2024년 YTN의 뉴스 내용 편향성 지수는 -

0.01로 미세하게 야권에 유리하지만, 상대적으로 편향성 지수 0에 가장 가깝다.

<표 77> 뉴스 내용의 편향성 지수 비교

구분	2022년			2024년
	KBS1TV	MBC	TV조선	YTN
편향성 지수	+0.03	-0.03	+0.21	-0.01

2.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의 공정성

1) 스튜디오 출연자 성격

YTN의 분석대상 프로그램인 <뉴스NIGHT>와 <뉴스와이드>의 분석대상 모든 날짜에 외부인을 스튜디오에 초청하여 대담을 진행한다. 2022년 분석대상이었던 KBS, MBC, TV조선의 메인뉴스에도 스튜디오 대담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YTN과 같이 정기적으로 구성하지는 않아 그 횟수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을 초청하여 스튜디오에서 대담을 진행하는 유사한 형식으로 판단하여 당시 상황과 비교를 시도하였다.

YTN의 경우, ‘전문가’에 해당하는 출연자가 58.1%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이는 2022년 KBS의 결과와 유사하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2022년 KBS와 MBC는 ‘더불어 민주당’ 소속의 인물들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보다 많이 출연했으나, TV조선은 ‘국민의힘’ 소속 인물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출연했다. YTN도 ‘국민의힘’ 소속이 21.6%로 상대적으로 ‘민주당’보다 높은 비율이나 군소정당 출연자를 합하면, 야권이 18.9%에 달해 큰 차이를 보인다고 말할 수는 없다.

<표 78> 스튜디오 출연자 성격 비교

구분	2022년			2024년
	KBS1TV	MBC	TV조선	YTN
더불어민주당	2	1	1	12
	28.6%	50.0%	14.3%	16.2%
국민의힘	0	0	3	16
	0.0%	0.0%	42.9%	21.6%
군소정당	1	1	0	2
	14.3%	50.0%	0.0%	2.7%
전문가	3	0	3	43
	42.9%	0.0%	42.9%	58.1%
전/현직 타 언론사 기자	0	0	0	1
	0.0%	0.0%	0.0%	1.4
스포츠 선수 및 연예인	1	0	0	0
	14.3%	0.0%	0.0%	0.0%
계	7	2	7	74
	100.0%	100.0%	100.0%	100.0%

2) 대담 아이템

외부인 초청 대담이 공정성은 ‘논쟁적 이슈로 정치적 아이템’과 ‘논쟁적 이슈로 유사 정치적 아이

템' 총 100건을 대상으로 편향성 지수를 살펴보았다. <뉴스NIGHT>는 '대체로(간접적으로) 정부·여권에 우호적 혹은 야권에 비판적'인 아이템이 5건, '대체로(간접적으로) 야권에 우호적 혹은 정부·여권에 비판적'인 아이템 12건,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야권에 우호적 혹은 정부·여권에 비판적'인 아이템 16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편향성 지수를 산출한 결과, -0.32였다. <뉴스와이드>의 경우,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정부·여권에 우호적 혹은 야권에 비판적'인 아이템은 2건, '대체로(간접적으로) 정부·여권에 우호적 혹은 야권에 비판적'인 아이템이 3건, '대체로(간접적으로) 야권에 우호적 혹은 정부·여권에 비판적'인 아이템 3건,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야권에 우호적 혹은 정부·여권에 비판적'인 아이템 4건으로 편향성 지수는 0.00으로 도출되었다. 두 프로그램의 전체 편향성 지수는 -0.23으로 야권에 다소 우호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⁵⁾

<표 79>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 아이템 편향성 지수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 우호적 혹은 야당·야권 비판적(+2)	0 (0건)	+4 (2건)	+4 (2건)
대체로(간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 우호적 혹은 야당·야권 비판적(+1)	+5 (5건)	+3 (3건)	+8 (8건)
분류 어려움(0)	0 (47건)	0 (18건)	0 (65건)
대체로(간접적으로) 야당·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당·여권 비판적(-1)	-12 (12건)	-3 (3건)	-15 (15건)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야당·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당·여권 비판적(-2)	-16 (8건)	-4 (2건)	-20 (10건)
계	-23 (72건)	0 (28건)	-23 (100건)
편향성 지수	-0.32	0.00	-0.23

5) 2022년 한국미디어경영학회는 스튜디오 대담 아이템 비율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3. 선거 보도의 공정성

1) 시간적 배분

본 장에서는 2024년 4월 10일 시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 해당하는 보도를 대상으로 방송시간 배분을 통해 양적인 편향성 측정을 시도하였다. 이때, 여당·여권에 많은 시간 할애(당해 아이템 보도시간의 약 70% 이상)를 +1, 야당·야권에 많은 시간 할애(당해 아이템 보도시간의 약 70% 이상)를 -1로 설정하였다. 반면, 여권/야권에 균형적으로 시간 배분(당해 아이템 보도시간의 약 50%-69%씩 배분)하였거나 군소 정당에 많은 시간 할애(당해 아이템 보도시간의 약 70% 이상)한 경우와 중립적, 객관적 내용에 많은 시간 할애(당해 아이템 보도시간의 70%이상)한 경우 등은 모두 0으로 코딩하였다. 조사결과, <뉴스NIGHT>의 편향성 지수는 +0.05였으며, <뉴스와이드>는 -0.06으로 나타났다. 두 뉴스 프로그램을 종합하면, 편향성 지수는 +0.36이었다. 시간적 배분의 편향성 지수는 양(+)이거나 음(-)이라고 해서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보도가 전달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시간 배분을 더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80> 총선 보도 시간 배분의 편향성 지수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여권에 많이 할애(+1)	+35 (35건)	+2 (2건)	+37 (37건)
야권에 많이 할애(-1)	-29 (29건)	-3 (3건)	-32 (32건)
균형 배분/중립·객관적 내용/군소정당에 많이 할애(0)	0 (56건)	0 (12건)	0 (68건)
계	6 (120건)	-1 (17건)	+5 (137건)
편향성 지수	+0.05	-0.06	+0.36

2022년 대선 당시 선거보도와 2024년 YTN의 총선보도에 대한 시간 배분의 편향성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주의할 점은 2022년 대선 당시 여권은 더불어민주당이었으며, 야권은 국민의힘 등이었다는 점이다. 즉, 2022년에는 양(+)이 여당인 민주당에 우호적 경향이며 음(-)이 국민의힘 등 야당에 우호적인 경향을 의미한다. 시간적 배분을 보면, 2022년에 KBS, MBC, TV조선 등 분석대상인 방송뉴스는 국민의힘 등 야권에 시간적 배분을, 2024년 YTN도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 선거보도 시간 배분의 편향성 지수 비교

구분	2022년			2024년
	KBS1TV	MBC	TV조선	YTN
편향성 지수	-0.10	-0.13	-0.11	+0.36

2) 선거보도 내용

제22대 총선보도 내용의 편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선거 보도 가운데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정부·여권에 우호적 혹은 야권에 비판적’인 내용을 +2점, ‘대체로(간접적으로) 정부·여권에 우호적 혹은 야권에 비판적’인 내용 +1점, ‘대체로(간접적으로) 야권에 우호적 혹은 정부·여권에 비판적’인 내용 -1점,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야권에 우호적 혹은 정부·여권에 비판적’인 내용 -2점 등으로 설정하여 리코딩하였다. 조사 결과, <뉴스NIGHT>는 -0.01이었고 <뉴스와이드>는 -0.06으로 나타나 두 프로그램 종합 -0.01로 도출되었다. 즉, 제22대 총선보도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야권에 미세하게 유리한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82> 총선보도 내용 편향성 지수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대체로(간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 우호적 혹은 야당·야권 비판적(+1)	+2 (2건)	0 (0건)	+2 (2건)
분류 어려움(0)	0 (115건)	0 (16건)	0 (131건)
대체로(간접적으로) 야당·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당·여권 비판적(-1)	-3 (3건)	-1 (1건)	-4 (4건)
계	-1 (120건)	-1 (17건)	-2 (137건)
편향성 지수	-0.01	-0.06	-0.01

YTN의 2024년 총선보도와 2022년 당시 KBS, MBC, TV조선 뉴스의 대선보도 등 선거보도의 내용 편향성 지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022년 선거보도 당시 KBS와 MBC의 편향성 지수는 각각 +0.01과 +0.16으로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우호적 내용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경향을 보였으나 TV조선의 경우, -0.18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등 야권에 우호적 경향으로 나타났다. 2024년 YTN의 경우, -0.01로 미세하게 민주당 등 야권에 우호적인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YTN은 편향성 지수가 -0.01로 2022년 당시 MBC나 TV조선의 편향성 지수보다 0에 더 가까운 대목은 중립성 유지 관점에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표 83> 선거보도 내용의 편향성 지수 비교

구분	2022년			2024년
	KBS1TV	MBC	TV조선	YTN
편향성 지수	+0.01	+0.16	-0.18	-0.01

VI.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24년 YTN 뉴스의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분석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1개월이며, 분석대상 뉴스는 해당기간에 YTN에서 프라임타임에 방영된 뉴스이다. 즉,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21시 30분대에 방영된 주중(월-금) 뉴스인 <뉴스NIGHT>, <YTN24>(4월)와 주말(토, 일) <뉴스와이드>, <YTN24>(4월)이다. 그러나 해당 뉴스의 각 월별 모든 일자를 분석하는 것은 그 데이터가 방대하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내 수행하기에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했다. 또한 이들 뉴스 프로그램의 방영 시간은 타 방송 메인뉴스 시간과 달리 모두 하루 2시간 정도이다. 이에 분석기간을 매 분기별 3개월 간격으로 1개월(2월, 5월, 8월, 11월)로 상정한 후, 각 1주로 한정하였다. 다만, 2024년 4월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5월 대신 4월로 대체하였고, 선거일인 4월 10일을 전후로 각 1주일간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분석 일자는 월마다 주 구성편집(Constructed Week Sampling)을 통해 추출하였다.

분석유목은 한국미디어경영학회에서 수행한 2020년 <TV조선 뉴스 및 시사·보도 프로그램 공정성 연구>와 2021년, 2022년 <TV조선 뉴스프로그램 공정성 연구>에서 활용되었던 유목에 근거하여 2024년의 상황과 분석 매체가 뉴스채널인 YTN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다. 유목은 뉴스 일반과 외부인 초청 스튜디오 대담을 구분하여 설정하였는데, 분석대상 뉴스인 YTN <뉴스NIGHT>, <YTN24>(4월)와 주말(토, 일) <뉴스와이드>, <YTN24>(4월) 모두 약 20-30분 가량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스튜디오에서 앵커와 대담을 나누는 형식이 포함되어 있었다. 뉴스 일반의 분석 유목은 뉴스 제시 방식, 뉴스 아이템(유형, 성격, 편향성), 뉴스 내용(구성방식, 취재원 제시 형태, 투명한 취재원 유형, 초점 내용, 편향성) 등으로 범주화하였다. 또한 4월 10일 시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고려하여, 선거보도 역시 아이템, 시간적 배분, 편향성 등으로 유목을 설정하여 살펴보았다. 외부인 초청 대담의 분석 유목은 출연자 수, 출연자 성격, 대담 아이템 수와 첫 번째 대담 아이템부터 세 번째 대담 아이템까지 대담 아이템 주제, 성격, 편향성 등을 반복하여 코딩하였다. 마지막으로 2024년 2월 유진 그룹의 YTN 인수가 결정된 사건을 고려하여, 유진 그룹에 대한 YTN 보도를 추가적으로 점검하였다. 코딩은 언론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3명이 수행하였으며, 코딩에 대한 사전 교육과 상호 회의 및 토론을 통해 신뢰도를 확인한 후 수행하였다.

전체 분석대상의 뉴스는 주중에 방송되었던 <뉴스NIGHT>가 543건, <YTN24>(4월) 411건이었고, 주말에 방송되는 <뉴스와이드> 206건, <YTN24>(4월) 107건 등 총 1,267건으로 조사되었다. 분석결과를 제시하는데 있어서, 주중 <뉴스NIGHT>와 <YTN24>, 주말 <뉴스와이드>와 <YTN24>는 시기에 따라 프로그램명과 방송 시작시간의 변동이 있으나,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간주하여 편의

상 주중 프로그램은 <뉴스NIGHT>로, 주말 프로그램은 <뉴스와이드>로 통합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뉴스의 제시 방식은 앵커가 이후 전개될 리포트를 간략히 설명한 후, 기자 리포트가 진행되는 ‘기자 리포트 패키지’ 방식이 분석대상인 두 뉴스 프로그램 모두에서 절반 이상의 비율로 나타나 가장 많았다. 또한 ‘단신’의 분포 비율도 30% 이상의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YTN의 단신은 일반적인 타 방송 뉴스의 단신보다 방송 시간이 긴 형태도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시간이나 길이와 관계없이 기자가 등장하여 리포트하지 않고 앵커가 혼자 뉴스를 직접 소개하는 형태를 단신으로 상정하였기 때문에 단신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외부인 초청 대담’도 일반적인 타 방송 뉴스보다 많이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분석 대상인 <뉴스 NIGHT>(주중 <YTN24> 포함), 주말 <뉴스와이드>(주말 <YTN24> 포함)에서 거의 매일 1회 이상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뉴스의 아이টে은 전체적으로 ‘해외/국제’ 관련이 가장 많았는데, 2024년 시행된 미국 대통령 선거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의 해외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분석대상 일자에 해당하는 11월 6일에는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는데, YTN은 <뉴스 NIGHT>(21:40)를 <뉴스 특보> 체제로 방송하였다. 다음으로는 ‘사회’ 관련 아이টে은 높은 비율이었고, ‘22대 총선’, ‘경제’, ‘국내 정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뉴스 아이টে은 성격은 정치인이나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정치인 혹은 정치적 쟁점 이슈’보다 ‘비정치인 혹은 비정치적 쟁점 이슈’가 더 높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높은 비율로 도출된 ‘해외/국제’ 아이টে은이나 ‘사회’, ‘경제’ 등의 아이টে은 비정치적 아이টে은이기 때문이다.

아이টে은 편향성은 정치 이슈를 다룬 뉴스를 대상으로 정부·여권이나 야권에 우호적이거나 불리한 아이টে은, 혹은 이들 모두로 분류하기 어려운 아이টে은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YTN 뉴스는 ‘분류 어려움’으로 평가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야당·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당·여권 비판적’인 아이টে은이 3.2%,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 우호적 혹은 야당·야권 비판적’인 아이টে은은 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권의 경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특검, 채 해병 특검 등이, 야권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각각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전반적으로 뉴스 아이টে은 성격을 여권과 야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면, 정부·여권에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টে은이 3.8%(41건), 야권에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টে은이 3.8%(42건)으로 거의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뉴스 내용의 구성방식은 객관적 사실 중심의 스트레이트성 리포트에 해당하는 ‘사건설명’이 가장 많이 보도되었고, 다음으로 ‘사건설명+분석+객관적 논평’, ‘사건설명+분석’, ‘사건설명+분석+주관적 논평’의 순으로 나타났다. YTN 뉴스는 취재원을 명확히 밝힌 경우가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취재원은 ‘정부 기관’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또한 ‘해외 언론사’가 취재원인 경우도 비교적 많았으며, ‘경찰’, ‘시민사회·노동·이익단체’, ‘더불어민주당’, ‘검찰’ 등의 순이었다. 뉴스 내용 구성은 사

회 일반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특정 쟁점 초점’, ‘특정 개인 초점’, ‘특정 집단/단체 초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뉴스 내용의 편향성은 대부분의 뉴스에서 분류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뉴스 내용의 편향성은 1개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정부·여권이나 야권에 대해 우호적 혹은 비판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같은 보도 내에서 정부·여권과 야권의 입장, 주장과 반론, 공격과 방어 등을 대부분 동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권 비판적’이거나 ‘대체로 정부·여권 우호적 혹은 야권 비판적’인 뉴스가 각각 6건과 5건 발견되었다. 이는 뉴스 아이템과 유사하게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한 내용이 대표적인데, 아이템 상으로는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정부·여권에 비판적인 것으로 분류되나 뉴스 내용의 측면에서는 특검에 대한 반대 입장도 일부(소수) 들어있기 때문에 ‘대체로(간접적으로)’ 정부·여권에 비판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대체로’ 야권 비판적인 뉴스 내용의 사례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련 내용이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여권/야권의 유/불리는 1건의 보도 수 차이가 있으나, YTN 뉴스 내용에서의 정치적 편향은 비교적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외부인 초청 대담은 분석대상 YTN 뉴스에서 1회 이상 구성되어 있었다. 총 37회의 초청 대담이 방영되었는데, 출연자는 각 회 모두 2명이었다. 이에 출연자는 총 74명이었으며, 출연자의 소속을 바탕으로 출연자 성격을 파악한 결과,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에 해당하는 인물이 가장 많았으며, ‘국민의힘(16회)’, ‘더불어민주당(12회)’, ‘군소정당(2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군소정당’ 역시 야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출연자에 있어서 여권과 야권이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담 아이템 수는 ‘4개 이상’인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22대 총선’ 관련 아이템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국내 정치’, ‘중앙행정’, ‘해외/국제’, ‘선거 일반’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논쟁적 이슈로 정치적 아이템’이 9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담 아이템의 편향성 역시 분류하기 어려운 사례가 절반 이상이었고, ‘대체로 야권에 우호적 혹은 정부·여권에 비판적’인 아이템, ‘분명하게 야권에 우호적 혹은 정부·여권에 비판적’, ‘대체로(간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 우호적 혹은 야당·야권 비판적’, ‘분명하게(직접적으로) 정부·여당·여권 우호적 혹은 야당·야권 비판적’인 아이템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담 아이템의 경우, 전반적으로 야권에 우호적인 아이템(35.0%)이 정부·여권에 우호적인 아이템(10.0%)보다 높은 비율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보도는 총 137건으로 나타났는데, ‘투·개표 현황 및 결과’가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공천 갈등’, ‘전략분석’, ‘TV토론’, ‘판세 분석’ 등의 순이다. 총선 보도의 시간적 배분은 여권에 많이 할애한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27.0%)이었으나, 군소정당을 포함한 야권 할애 비율(30.7%)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권과 야권의 시간적 배분 차이 비율(3.7%)은 크지 않았다. 총선보도 내용 편향성도 ‘분류 어려움’으로 판단된 보도가 가장 많았으며, ‘대체로 야권 우호적 혹은 정부·여권 비판적’이 내용과 ‘대체로 정부·여권 우호적 혹은 야권 비판적’인 내용의 보도 수 차이(2건)가 크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2024년 2월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에 따라 유진 그룹에 대한 YTN 보도를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 뉴스 프로그램과 일자에는 유진 그룹 관련 보도가 단 1건뿐 이었다. 이에 YTN 웹사이트를 통해 유진 그룹 관련 보도를 검색하였다. YTN 웹사이트의 검색 기능 상 프로그램별 검색은 불가능했으므로, 2024년 한 해 동안 등장한 유진 그룹 관련 ‘동영상 기사’ 보도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총 41건의 보도가 도출되었으며,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유진 그룹의 YTN 인수 관련 보도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 조건에는 아래의 표와 같이 “유진이엔티(주)(방송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특수관계자 포함)에 유리한 보도·홍보성 기사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YTN의 보도·편성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 명시되어 있다.

<표 84>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

(주)YTN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
1.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후 유진이엔티(주)의 사외이사과 감사를 유진이엔티(주)의 최대주주(방송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특수관계자 포함)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자로 선임할 것
2. (주)YTN의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고, 사외이사과 감사는 유진이엔티(주)(방송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특수관계자 포함)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3. 유진이엔티(주)(방송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특수관계자 포함)에 유리한 보도·홍보성 기사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YTN의 보도·편성에 개입하지 않을 것
4. 사업계획서('23.11.15) 및 추가 개선계획('24.1.15./'24.1.29)에 제시한 (주)YTN에 대한 증자 및 투자계획을 이행할 것
5. (주)YTN의 재무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자산매각과 내부거래(방송법시행령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 등 포함)를 하지 않을 것
6. 사업계획서 및 추가 개선계획에 제시한 대로 (주)YTN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주)YTN을 위해 사용할 것
7. 사업계획 및 추가 개선계획에 제시한 유진이엔티(주)의 증자계획과 조직 및 인력확대계획을 이행할 것
8. 사업계획 및 추가 개선계획에 제시한 대로 유진이엔티(주)의 재정적 건전성 확보 시까지 방송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
9. 사업계획 및 추가 개선계획에 제시한 청렴·윤리·준법 경영 계획과 사회 공헌 확대 방안을 이행할 것 - 이와 별도로 유진이엔티(주)의 추가적 사회 공헌 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2024년 4월 30일까지 제출할 것
10. 1~9호의 조건과 유진이엔티(주) 및 유진이엔티(주)의 최대액출자자의 최대액출자자가 제출한 이행각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전년도 이행실적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할 것.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 및 추가 개선계획, 이행각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24.2.7.).

또한 최대 주주 변경에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유진 그룹이 YTN의 보도에 간섭하는 등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대상 뉴스와 추가 검색 결과로는 아직까지 YTN보도에 대한 유진그룹의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YTN 보도의 공정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소재 집중도 지수와 편향성 지수 등을 활용하였다. 또한 YTN의 보도를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시기와 분석 대상 매체에 큰 차이가 있지만, 2022년 수행된 한국미디어경영학회의 KBS, MBC, TV조선의 보도 내용분석 결과와 비교를 시도하였다. 먼저, 소재 집중도를 파악하기 위해 뉴스 아이템의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Herfindahl-Hirschman index)를 산출하였다. HHI 값은 2024년 YTN이 2022년 KBS, MBC, TV조선보다 낮았다. 소재 집중도는 HHI 값이 클수록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에 따르면 YTN이 KBS·MBC·TV조선 보다 소재 집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템과 뉴스 내용의 편향성은 편향성 지수를 통해 도출하였는데, 이 역시 YTN이 KBS·MBC·TV조선 보다 상대적으로 0에 더욱 가까워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투명한 취재원을 활용한 비율은 3사보다 낮았다. 투명한 취재원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임과 함께 보도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외부인 초청 대담의 출연자는 2022년 KBS의 결과와 유사하게 전문가가 비율이 높았다. 정치인에 한정하여 출연자를 살펴보면, 2022년 KBS와 MBC는 ‘더불어 민주당’ 소속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보다 출연 횟수가 많았으나, TV조선은 국민의힘 소속 인물이 더 많이 출연했다. 2024년 YTN도 국민의힘 소속이 상대적으로 민주당보다 높은 비율이나 군소정당 출연자를 합하면, 큰 차이는 없었다.

선거보도의 경우, 시간적 배분에서 YTN의 편향성 지수는 2022년 KBS·MBC·TV조선 보다 0에서 상대적으로 멀어진 결과를 보였다. 이는 여권에 할애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선거보도 내용에 있어서의 편향성 지수는 2022년 MBC·TV조선보다 0에 가까워서 비교적 균형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2. 연구의 함의

기획재정부는 2022년 11월 11일 보도자료 “공공기관 혁신 본격화 한다-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자 산효율화 계획 확정”을 통해 한전KDN과 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을 발표하였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①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확정(2022.7.29.) ②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 안」 마련(2022.8.18.) ③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발표(2022.9.23.) 등을 거치고, ‘공공기관 혁신 T/F’를 운영하여 확인 및 점검했다고 밝혔다.

방송기업의 민영화는 소유의 다원화를 넘어서 내용의 다양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또한 민영화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로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에 대응력을 높일 수 있 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더구나 2011년 ‘연합뉴스TV’가 출범하면서 공영방송 형태의 24시간뉴스채널 의 중복성 논란도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그렇기에 2024년 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YTN의 최대 주주 를 유진 그룹으로 변경 및 승인하였다.

그러나 당시 공공기관의 YTN 지분 매각 결정은 의견 수렴이나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공기관 혁신 및 효율화에만 치중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공기업이 보유한 언론사 지분 을 매각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파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 부재도 비판의 대상이 었다. 특히 방송의 민영화로 인해서 방송보도가 소유주의 입장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되 면 보도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2024년 민영화의 첫 걸음을 내딛은 YTN의 보도에 대한 첫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주어진 조건하에서 가능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주요 뉴스 프로그램 내용을 분석 및 비교하였 다. 이는 당초 YTN의 대주주변경이 YTN의 보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외부의 시각에 대한 검증 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는 크게 YTN의 뉴스보도가 언론의 공정성이라는 큰 원칙에서 벗어나 편향 성을 갖고 있는 지에 대한 검증과 대주주 변경에 따른 자사 이기주의가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YTN 뉴스는 비교적 다양한 소재의 아이টে을 전달하고 있었다. 정치 이슈에 대해서도 크게 편향된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는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정부·여권에 불리한 아이টে이나 내용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 야권에 불리한 아이টে이나 내용을 양적으로 큰 차이 없이 유사하게 보도하고 있었다. 물론, 양적으로 완벽하게 여/야권의 유/불리가 동일한 비율로 나온 것은 아니다. 뉴스와 대담 아이টে, 뉴스와 총선 보도 내용 등에서 오히려 정부·여권에 불리한 비율이 다소 높지만, 심각하게 큰 차이가 없다는 의미다. 이러한 결과는 2024년 지 속적으로 대통령, 영부인 관련 논란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던 점을 고려하면 납득할 수 있는 대목 이라고 할 수 있다.

스튜디오 출연자나 총선 보도 시 시간적 배분도 야당인 민주당보다는 여당인 국민의힘 쪽에 많이 할애하고 있었지만 큰 차이라고 볼 수 없었으며, 범야권을 포함하면 유사한 비율이었다. 또한 비교 대상으로 적합도가 낮을 수 있으나, 2022년 KBS, MBC, TV조선 뉴스의 내용분석 결과와 비교해도

YTN뉴스의 편향성 지수는 0에 가까운 사례가 많아 상대적으로 균형을 이루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YTN의 보도가 균형과 중립 등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최대 주주인 유진 그룹이 YTN보도에 직·간접적 영향력 행사하여 공정성을 훼손한 경우가 발견되지 않았다. 분석 대상 뉴스 프로그램에서 유진그룹 관련 보도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YTN 웹사이트를 통해 검색된 1년간의 뉴스 중에서도 유진 그룹 뉴스도 많지 않았다. 대부분 2024년 2월에 대주주 변경과정에 대한 언론노조 및 시민단체의 목소리 등이 담긴 보도였다. 뉴스보도에서 유진그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거나 유진그룹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의도적 삭제한 경우도 없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분석대상 및 범위의 한계이다. YTN 하나의 매체를 대상으로 했지만, 약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뉴스는 매우 많은 관계로, 분기별 특정 일자의 특정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표본을 추출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로 인해 표본 추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본 연구의 분석 대상과 다른 달, 다른 일, 다른 뉴스 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할 경우,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둘째, YTN 웹 사이트에서는 각 뉴스 프로그램별 해당 일자 뉴스의 스크립트가 존재하지 않고, 프로그램 전체 동영상만 시청 가능하다. 따라서 YTN에서 제공받은 해당 일자 뉴스 프로그램의 스크립트를 분석하였는데, 웹사이트의 동영상과 다소 차이가 있는 지점도 발견되었다. 분석은 보도 이후 YTN에서 제공한 스크립트를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방영된 뉴스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질적 분석이 충분히 병행되지 못했다. 양적 분석은 분석 대상을 일정한 유목에 따라 범주화하여 계량해 제시하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의 사회적 맥락과 의미는 질적 분석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다루는 뉴스 아이템이나 이슈가 광범위한 관계로 질적 분석을 충분히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넷째, 내용분석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분석 유목에 따른 계량적 차이가 드러나기도 하지만, 이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2022년 KBS, MBC, TV조선과 비교한 결과는 YTN이 24시간 뉴스채널이라는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YTN은 24시간 뉴스채널로서, 일반 종합편성채널의 뉴스와 달리 시간도 길며, 다루는 아이템과 내용 등도 더욱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YTN 뉴스프로그램의 특징을 설명함에 있어서 또 다른 뉴스전문채널인 '연합뉴스TV' 뉴스와의 비교분석을 진행할 경우, YTN뉴스의 특징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도 있다는 점은 향후 연구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강명구(1989). 탈 사실의 시대에 있어서 뉴스공정성의 개념구성에 관한 연구. 언론정보연구, 제26권, 85-111.
- 강명구(1994). 한국 저널리즘 이론. 나남.
- 강태영(2004). 텔레비전 보도와 공정성 기준. 텔레비전 저널리즘 공정성과 정치 세미나 발제문, 한국방송학회.
- 강태영·권영설(2000).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 방송위원회.
- 강재원·최일우(2024). 방송의 공정성 관련 국내 법원 판례 분석 : 공정성의 원칙과 사회적 합의. 방송통신연구. 125, 7-42.
- 권형돈·하주용·배진아(2015). 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 기획재정부(2022.11.11.). <보도자료> 공공기관 혁신 본격화 한다.
- 김대근(2018, 3). 전국언론노조YTN지부 박진수 지부장 인터뷰 파업은 '생존' 위한 선택. 방송기자, 41, 24-27.
- 김상호(2007). 언론의 객관성에 대한 분석적 고찰: 해석 공동체의 해석틀로서의 객관성 개념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7(3), 5-38.
- 김세은·이상길 (2007). 서유럽 방송의 공정성 원칙과 규제. 방송통신연구, 67, 69-112.
- 김승수(2004). 언론산업의 정치경제학. 개마고원.
- 김연식(2009). 방송 저널리스트의 공정성 인식 연구. 한국언론학회, 53(1). 161-186.
- 김영덕(2007.2). 보도전문채널 정책 점검 YTN·MBN 외에는 뉴스 편성 하지마. 신문과 방송, 148-151.
- 김성준(2017). 한국 공영방송의 공정성 평가와 규제 태도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창숙·민영(2021). 2020년 총선과 유튜브 저널리즘: 방송사 채널과 인플루언서 채널 선거 동영상의 공정성과 품질 분석.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2(2), 130-166.
- 권혁남(1999). 텔레비전의 15대, 16대 대통령선거 보도 비교 분석.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12, 45-91.
- 남지나·최윤정(2010). 한국과 미국 TV뉴스의 대선보도 비교. 한국방송학보, 24(4), 87-121.
- 남재일·이강형(2017). '좋은 저널리즘'의 구성 요소에 대한 기자 인식 변화 추이. 언론과학연구, 17(2). 82-128.
- 동세호·안호림(2023). 한국 방송의 팩트 체크 뉴스 공정성 비교 분석. 문화기술의 융합, 9(3), 495-508.

- 문종대(2004). 한국 방송 저널리즘과 정치: 공정성을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제16권 1호.
- 문종대·윤영태(2004). 언론 공정성 개념의 재개념화- 언론의 자율성 논변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27호(겨울호), 93-121.
- 문재완(2008). 언론법: 한국의 현실과 이론. 늘봄.
- 방송통신위원회(2024.2.7.). 방통위, (주)와이티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의결- 방송의 공정성·공적 책임 실현 등을 위해 엄격한 조건 부과.
- 배진아(2015). 지상파 방송의 공정성 심의. 방송통신연구, 90, 9-41.
- 손영준(2011). TV 뉴스 공정성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한국방송학보 25권 5호, 122-158.
- 송영주(2019). 방송의 형식적 공정성에 대한 규제방법- 프랑스 방송의 정치적 다원주의 규제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3(4), 161-190.
- 심훈(2014). 한국 공영방송의 공정보도에 대한 인식 평가.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66호, 110-132.
- 유의선(2024). 공영방송의 '영역의 정의' 구현 방안 - 보도 진실성과 공정성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28(2), 217-264.
- 원희영·윤석민(2015). 종합편성채널의 보도 공정성에 관한 연구: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메인 뉴스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9(1), 117-148.
- 윤석민(2018). 미디어 공정성 연구. 나남출판사.
- 윤성욱(2009).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법적 규제와 규제 범위.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0(1), 37-77.
- 유종원(1995). 한국에서의 공정보도의 개념과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33호(봄호), 137-164.
- 이민웅(1996). 한국 TV저널리즘의 이해. 나남.
- 이민웅·이창근·김광수(1993). 보도 공정성의 한국적 기준을 위한 연구. 방송연구, 제36호, 180-213.
- 이승용(2014) 텔레비전 뉴스 재난보도에 대한 공정성 평가: 세월호 참사 보도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 이정훈·정준희(2018). 공영방송 저널리즘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고찰.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 3-14.
- 이종수·이은미(1995). 공중파TV와 케이블TV 뉴스 비교분석 - KBS, MBC, SBS, YTN 뉴스 비교 분석. 한국언론진흥재단
- 이종혁(2015). 언론보도에 대한 편향적 인식이 공정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9(1), 15-16.
- 이준웅·김경모(2008). '바람직한 뉴스'의 구성조건- 공정성, 타당성, 진정성. 방송연구, 2008년 겨울호, 9-44.

- 임태섭(1993). 텔레비전 뉴스의 공정성에 대한 담론 분석. 언론과 사회, 제1권, 67-109.
- 유선영(1995). 객관주의 100년의 형식화 과정. 언론과 사회, 제10권, 86-128.
- 정필모(2012). 공영방송 보도의 공정성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언론통제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KBS사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항제(2019). 한국 언론의 공정성- 이론적 구성. 컬처룩.
- 주대우(2023, 2). BBC, 방송 공정성 평가 보고서 발간 - BBC 방송이 적절한 방송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평가. 해외방송정보, 2-9.
- 최영재·홍성구(2004). 언론 자유와 공정성, 한국언론학보, 48(6), 326-342.
- 홍성철 외 (2020). TV조선 뉴스 및 시사·보도 프로그램 공정성 연구. 한국미디어경영학회.
- 홍성철 외 (2021). TV조선 뉴스 프로그램 공정성 연구. 한국미디어경영학회.
- 홍성철 외 (2022). TV조선 뉴스 프로그램 공정성 연구. 한국미디어경영학회.
- 허미선(2020). 2020 미디어어워드. 미디어미래연구소.

<해외 문헌>

- Annan, N.G. (1977).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Future of Broadcasting.
- Cushion S (2011) Television Journalism. London: SAGE.
-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v. Pacifica Foundation, 438 U.S. 726 (1978)
- Flood C, Hutchings S, Miazhevich G, et al. (2011) Between impartiality and ideology. Journalism Studies 12(2): 221-238.
- Fico, F. & Soffin, S. (1995). Fairness and Balance of Selected Newspaper Coverage of Controversial National, State, and Local Issue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2(3). 621-633.
- Golding, P. (1977). 'The Missing Dimension - News Media And the Management of Social Change,' in J. Curran et al. (eds.).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Beverly Hills, CA: Sage.
- Herr, P. (1986). Consequences of Priming: Judgment an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06-1115.
- Martin, G. J & Yurukoglu, A. (2014). Bias in Cable News: Persuasion and Polarization,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20798,
- Pickard, V. (2018). The Strange Life and Death of the Fairness Doctrine: Tracing the Decline of Positive Freedoms in American Policy Discours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12, 3434-3453.

- Red Lion Broadcasting Co., Inc. v. FCC, 395 U.S. 367 (1969)
- Reuters Institute (2024). Digital News Report 2024. Oxford University. Reuters Institute, 2024
- Sambrook, R. J. (2012). Delivering trust: Impartiality and objectivity in the digital age.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University of Oxford.
- Wahl-Jorgensen, K., Berry, M., Garcia-Blanco, I., Bennett, L., & Cable, J. (2017). Rethinking balance and impartiality in journalism? How the BBC attempted and failed to change the paradigm. *Journalism*, 18(7), 781-800.
- Westerståhl, J. (1983). Objective news reporting. *Communication Research*, 10(3), 403-424.
- William L. R., Wilbur, S., Clifford G. C. (1980), *Responsibility in Mass Communications*(3rd edition). New York: Harper & Row.
- Weatherly, J. & Petros, T. & Christopherson, K. & Haugen, E. (2007). Perceptions of Political Bias in the Headlines of Two Major News Organizations. *Harvard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12, 91-104.

<언론보도 및 웹사이트>

경향신문(2023.10.23.). 민영화 땀 ‘정권 편향 언론판’ 우려...YTN “정치적 배경 의심”
https://www.ytn.co.kr/search/index.php?q=%EC%9C%A0%EC%A7%84&x=23&y=10&se_date=3&ds=20240101&de=20241231&target=0&mtarget=1